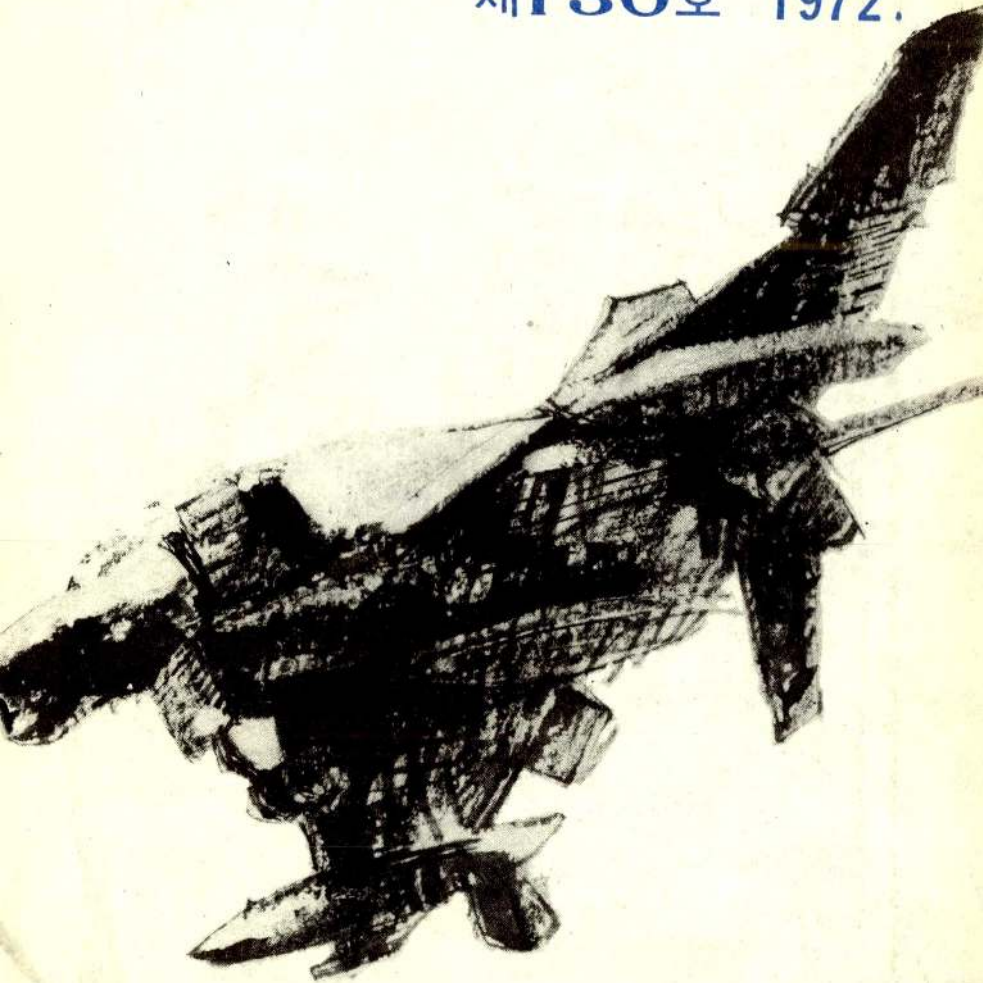


공작

제130호 1972.



1972년 8월 14일 인쇄

1972년 8월 19일 발행

고 장 덕창 장군 영결식 엄수

제 4 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고 장 덕창 장군의 영결식이 7월 15일, 공군본부 광장에서 유 재홍 국방부장관, 옥 만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장병과 유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옥 총장은 이날 조사를 통해 「장군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행 1만 시간을 돌파한 조종사로 우리 공군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고 장 장군을 추모하였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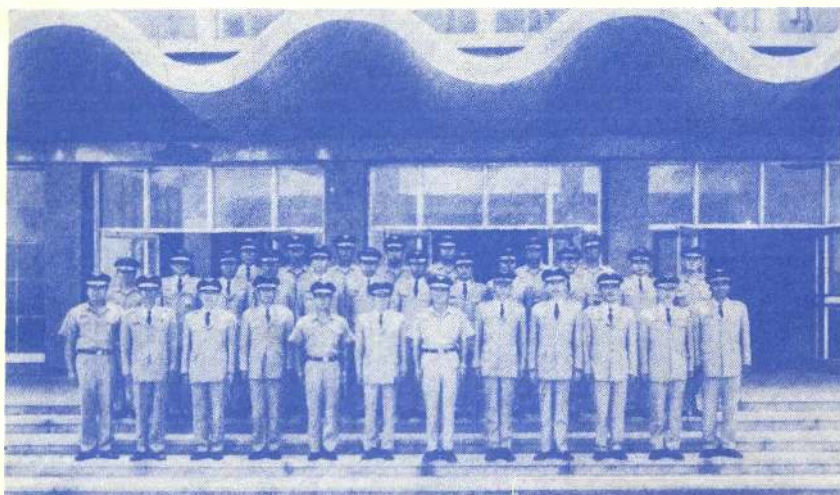
1968년 12월 5일



공군 전 부대 정훈참모회의 개최

공군 전 부대 정훈참모회의가 7월 12일 공본 기획상황실에서 전부대정훈참모가 참석할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7·4 남북 공동성명에 따른 공군의 정훈교육 방향과 지침이 하달되었다.

이 영웅 대령 외 〇〇명의 고급장교 전역 기념촬영



장 지량 주 이디오피아 대사 공본예방

장 지량 주 이디오피아 대사가 7월 14일 귀국 인사차 공군본부를 예방,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신임 주한 미 해군 사령관, 육 만호 참모총장 예방

신임 주한 미 해군 사령관 「물간」제독이 7월 5일, 친선방문차 공군본부로 육 만호 총장을 예방, 기념패를 증정받고 있다.



「공 군」 제 130 호 차 례

[권 두 언].....정 훈 감 신 찬 (2)

< 특별 정훈 교육자료 >

남북 공동성명은 무엇을 뜻하나.....편 집 실 (4)

통일과제와 우리의 정신적 자세송전대 교수 안 병 옥 (13)

새 역사 창조의 길아동문학가 이 효 선 (21)

○ 명 살 문 회 화서울대 대학원장 이 승 념 (132)

○ 사 인간의 존엄성.....성대 대학원장 류 흥 털 (134)

○ 수 지도자의 환멸서울 교육대학원장 김 성 근 (136)

○ 필 용기로 구축한 진지를단국대 총장 장 충 식 (138)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전개돼야 하나.....양라디오 제작부 신 광 철 (25)

어떤 참모론손 철 영 (29)

지휘에 대한 나의 주장심 사 수(역) (40)

특집: 전 우 애

전우애와 우정의 참뜻이대 시청각 교육원장 김 은 우 (48)

숭고한 전우애공군 군종감 이 성 환 (55)

전우애는 전력강화의 원천조선일보 문화부장 유 경 환 (63)

상경하애 인화단결론김 유 력 (71)

표지화, 목차화, 컷진 광선, 이 재철

◀ 군사 과학 ▶

군사 전략지 승 롱 (95)

이스라엘군의 발전사허 돈 구 (106)

오페라를 즐기려면편 집 실 (171)

홍도 여행기김 영 택 (140)

(만) (화) 공군 만상.....박 진 래 (93)

<연재> 숨겨진 이야기들 (2)전 재 수 (77)

- 함 공 실 화 -

제트 에이스명 영 남 (85)

간행물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이 원 호 (128)

☆ 군 종 코 너 ☆

군인의 용기.....군목 김 성 복 (146)

이해하는 마음.....군목 유 의 웅 (150)

복 종군목 이 준 학 (154)

자 제 심군종신부 홍 충 수 (159)

응급 처리법항공의학 연구원 제공 (163)

(탄) (편) 정직한 도둑도스또예프스키 원작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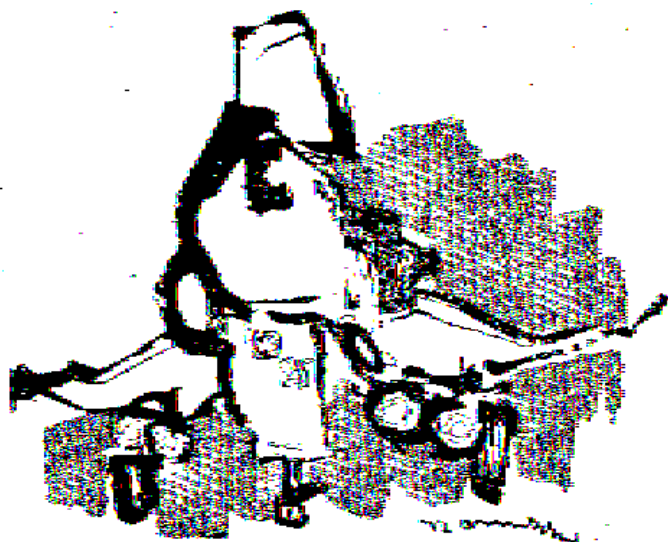
공군

(제 136호·1973년 제4호)

<이월호:무단절지함>

발행처: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일: 월요일
인쇄처: 공군교과서출판
인쇄일: 공군대정출판부

전화번호: TEL. 206-2222, 23-3511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각 공상제역에서는 이와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 이용하고자 할일이 되고 있으며, 최근 경부 기타 공군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문장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뢰된 공상전방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첩들의 독자제되는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하여 무지중에 책이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 훈 감 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이 말은 새 부대이 될까』라는 말이 생전에 있다.

이 말은 새로운 지지가 있을 때이다. 혼란을 헤치는 말이다. 오늘날의 국내의 형세로 미루어 보아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세 확립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조국의 영광의 수레 차에서 광복의 25년. 애국다운 15장 목적은 어쩔 길이 돌아온다.

식민지의 굴욕의식 벗어날 광복의 25년. 애국다운 15장 목적은 어쩔 길이 돌아온다.

우들이 세계정세와 국내 당면문제 등은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동서 패권 두루트와 노령도, 즉슨 이 때 동양의 흥망과 소련당군에 고려하고, 남북 적십자회담과 남북공동성명이 체결된 결핵의 25년. 애국다운 15장 목적은 어쩔 길이 돌아온다.

더구나 군인으로서의 우리는 구트장벽의 본분에 충실하게 위치 결핵하는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좌표의 각으로 대치하여야 한다.

공중 강령은 물론 남북간의 의의를 바로 직각의 투영과 같 것이다.

우리는 우선 직각 정각의 대칭하기 위하여 다음 정서화합의 대칭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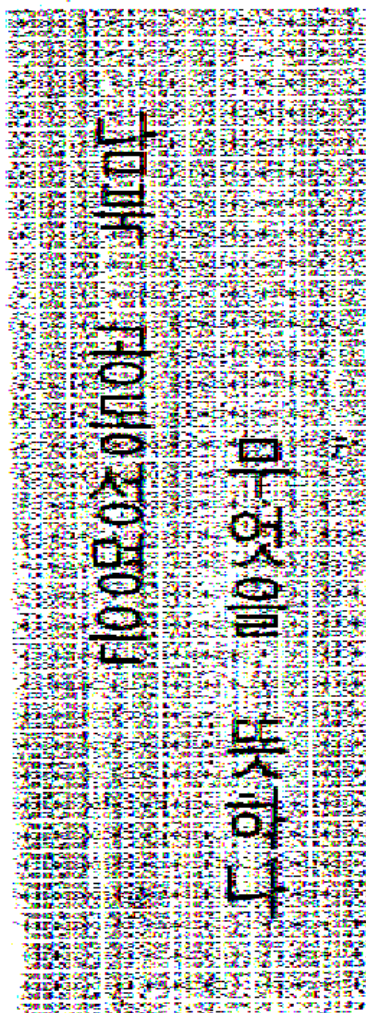
남북간의 정서적인 무우드가 조성될수록 우리의 국력과 국운은 더욱 증대되고 민족 유익을 확보할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각국적인 노력을 총동원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서화합사업의 계획된 목적을 관측적으로 현실화된 결과와 기술을 눈에 익혀야 한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결실무장 확립으로 직각의 정서적 결성까지도 이질 수 없는 소지를 다원화하여야 한다.

추진 중인 사업의 상황 자체 시정구현 상황의 도표는 차등적 소일 또한 이 남북대화를 통하여 심도진 공익을 위하여 오히려 있음은 주목의 사실이다.

이 공중 강령의 우리는 손잡고 반성도 가져서는 안된다. 남북의 직 의 선으로 백이해 지기 위해 정서적 자식을 다음 목표의 자다음이 정서적은 정서무장을 확립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정서적들은 직각의 정중에서 직각의 상황을 막은하고 누구나 중 관의 인력자가 하며, 작용도 권위주의적 수업을 타파하고 증진수행하는 기 분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공중에 부무하고 있는 정서적의 생활과 정결, 과당수행의 질책에 따라 요성과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서를 창조하여야 한다.

이 새로운 정서를 우리의 후예들에게 전승해 주는 빛나는 업적을 남기. 간 것을 남북간의 같이하여 다짐해 보자.



평 화 통 일

분단 27년만에 남북대학의 길이 트였다.

가주평화공동체를 비롯하여는 우리 의 오랜 노력은 이제야 그 빛을 보 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일 박 정희 대통령각하의 영단 아래 에 후각 중앙정보부장사 평양를 방문하여 식 일성, 김 성주와 최두환고, 북한학 학 성철의 서울을 방문함으로써 개 장분리를 모색하는 남북의 대화 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다. 통일을 위 한 몇 가지 원칙들에 의견이 모아졌 다.

75년 7월 8일 평양과 서울에서 동 시에 발표된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 대화의 첫 결실이며 「8-15선언」 이 후 박 대통령각하가 일관성 있게 제시해온 평화통일의 구상이 북반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실증 이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의 재선]에서 「내각있는 재선」을 하게 되 었으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넘 고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 게 되었다. 이와같은 평화경쟁체제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 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며, 경쟁 을 승리로 이끌도록 국민통화를 구 획하는 일이다. 국론을 통일하고 비 쉘을 이루하며, 또 핵통가 단결되는

민약의 경우를 예외하여 총선거법의 취지를 더욱 엄격하게 구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의를 정점으로 예우는 기본일이다. 남북에 대해 입각은 주권의 올바른 주석인 것이다.

1. 남북 공동정범은 왜 필요했었나.

남북 공동정범은 우리의 승리의 제1로 이루어졌다. 승리의 자유정과 과실성이 없었던 남북 공동정범의 역사적 의의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남북 공동정범의 나오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는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워지는 약 대등평화주의의 자속에 관의 의지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약 대등평화주의는 이미 1973년 8월 15일 역사적 「8·15선언」을 한 뒤 꾸준히 불타던 민족의 재극을 줄고 모두의 평화적 통일을 모으며 우리 항상 자유적인 질서에서의 승등적으로 통일방안을 찾는데 부동의 노력해 왔다.

약 대등평화주의는 「8·15선언」이후 남북간의 어느 측이 국민을 위해 보다 자유롭게 잘 사는 화해인가를 선의의 경쟁으로 겨루어오자는 획기적 의지를 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74년 8월 25일 동안 이의 제도자도 시도하지 못했던 자선에 관 자유적인 타도 표명이 됐다.

그 뒤 만 1년이 지난 1975년 8월 12일 우리 대한 독립주주의 의지로 남북 간쪽들기를 위한 인도주의적 남북적합자의 예외회당의 열렸다.

그러나 우리의 승등적인 평화추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열된 전쟁 준비는 우리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북한은 이른바 전 국토의 토사화, 전 인민의 무장화, 군대현대화, 전군의 전부족 등 4대 군사노선으로 전쟁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약 대등평화주의는 평화적으로 남북이 접근하여 통일의 길을 보이기 위해서도 우선 갈등에 떨어지기 쉬운 전쟁위험의 실을 끄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평화추구를 적극화 시키기 위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안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무모한 남침거도를 막아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것이다.

한 때대로 평화통일을 향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비상사태설안 등 통일의 의지와 결단 의제라는 두 가지의 민족적 사명이 남북 공동생활을 낚는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

우리가 비상사태의 이점을 시련을 극복하는 가운데 각 대를형각하는 국가가 가야 할 원대한 진부 면 강리를 선택했고 자신과 역량을 자원으로 한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영단을 내리 역사적인 남북대학의 길을 트이게 만들었던 것이다.

남북대학과 북한측의 실질화 태도로 진행되고,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번영을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 계기가 된다면 남북 공동생활은 우리 민족 역사적 획기적인 공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2. 남북 공동생활은 어떤 내용인가.

① 통일은 다른 나라의 힘에 기대거나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과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무조건 사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서로 자살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지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는서는 하나는 민족임을 깨달아 커다란 민족의 간섭을 굳혀 나가야 한다.

② 남북이 서로 경쟁해 갔서왔는 오늘날 승패를 논그르더라도 서로가 얻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승패방은 없는 말을 주며내며 무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가릴 것 없어 무력으로 대항지 않으며, 뜻밖의 실수로 같이떨어 큰덕자 서로 잘못짓는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끊어졌던 거래상의 인력과 관계를 다시 복원하며 서로의 이익을 두루이 하고 민족 스스로의 힘에 의한 평화통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남북간 제 이익자외의 용리와 거래를 확대를 하도록 하는에 합의했다.

④ 양측은 지금 은 민족의 크나큰 지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주협 계획담이 하루 열려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에 합의하였다.

⑤ 양측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일어나는 군악간의 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일어나는 물의를물 해결, 그리고 해르크 따르지 적극하게 위하여 사

은과 정답 사이에 언젠가와 볼 수 있는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했다.

④ 쌍방은 이 중에서 합의할 사항을 우선시하고 다량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 후락 부장과 김 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전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쌍방은 이의찬은 합의사항들이 조국통일을 하루가 멀쩡일듯 독아르케 기다리는 온 나라의 한글같은 염원의 무뎠다는 정황을 인식해서 이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큰 민족 앞에 약속하 약속한다.

이상으로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을 순서로 보았지만 이 중 실무적이고 결핵적인 사항을 제외한다면 하나도 새로운 것은 없으며 모든 약 터봉정각하기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던 제안과 같은 내용이다.

전국 정로통일을 위한 막 대통일과목의 꾸준한 노력이 그 결실을 나타 보지 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공동성명의 의의와 결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3. 기본정책되는 어떤 연관을 갖는가.

합의된 통일정책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본통일 방침과 다른 것이 없으며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결코 아니다.

남북 공동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자주평화 통일체회를 앞지르게

했다. 의제의 의존어나 간접적어 자주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말은 자주적으로 통일해 노력하지 않고 주변화해 의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자주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데도 어떤 부당한 의제의 간섭으로 통일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보통 친구 의제에서 나온 「유엔」참시라의 출신이라는 우리의 통일정책이 있어서 「유엔」은 의제기 아닌다른 자주적 방법이 의한 우리의 통일 기본정책되는 아무런 전항이 없다.

물론, 영토적 통일방법이 강조될 것도 우리의 기본방침과 합치되므로 불 폐될 수 없다.

시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으로 타단점을 도모 화자는 것은 같은 핵의민주으로 분단된 현실을 자쁘리고 통일해 대할 민족

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라서 평화통일역의 의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통일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고칠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협상을 국외의 적일의로 삼고 강력한 원공정책을 견지해 왔다. 이제 더욱 공산주의와 대화의 길이 트였다 해도 6·25전쟁을 일으켜 동족상쟁의 비극을 겪어 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용납할 수 없는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가?

그것은 통일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열의에나 전쟁의 참화로부터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보자는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대화의 길을 찾게 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조율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공동성명의 취지의 건다.

대화를 나누는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용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겠다.

4.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조국통일이 눈앞에 다가선 것은 아니다.

또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한반도에 긴장 완화와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남북 공동성명은 「5억의 인구를 차지해 두고 살아야 할 같은 건강상태를 해소시켜 전쟁의 행위를 방지한다는 민족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에 그 뜻에 있다.

앞뒤의 대화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시키기로 합의하고 자주의 평화통일의 원칙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의 대해 의견을 모았다는 뜻에 불과하다. 이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대화하는 민족」, 「공화적 민족」을 거쳐 「대화하는 민족」, 「선민의 민족」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지 세상이 다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체제간의 형으로 이루어진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남북간의 대화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열원인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공을 실현시켜 줄 것인가, 또는 현실을 보지 못할채 도로 대화가 막힌 「군사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서로 관계 악화된 때와 같이 「크고 작은 것을 각 존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분리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고, 「남북 사이의 다량면역인 귀환 보류를 실시」하고, 「남북 체육자회담이 하루 빨리 성사」되고, 이 후와 중앙정보부장과 김 영주 조국지도부장을 공동수장장으로 하는 남북 조결위원회의 성립을 통해 운영되는 북측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통일의 길은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그러나 남·북측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지켜지 않는다면 통일의 길은 막히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평화통일을 위한 막 대통령각하의 권한권 집행과 제의를 할아를 필요로 한다.

필리 저슬레 올라간 김도업이 1970년 8월 15일 각 부총영과와는 북한이 무장공비 침화 등의 모든 전쟁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남북관계나 동적의 명에 의한 대량인구의 전부를 지도력 은 중전의 레드를 운영의 포기하겠다는 점을 철저히 내외에 선언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남·북간의 과로수한 인원과 감백을 단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계발과 진실과 상호의 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같은 평화통일의 구상을 막 실행할하는 노력이 있어야 열관정 되게 제시했으며, 또한 8월 남북 통일외교식도 평화통일을 위한 조적 선장조치를 지의할 아 필요하다.

이런의 본 때 문제는 북한이 공동성명도 약속은 얼마나 성의있게 이행하고 또 통일을 위한 조처에 임하느냐 하는데에 정복의 열의가 있다고 하겠다.

남북간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일로 통일순서를 실시하자고 지의 함은 8월 25일도 함 되게 남·북남측을 촉발했던 밑이나, 후전협정을 조질려

승고 직금후지 1만점이 넘는 행정부판 사절은 일으켰던 일이나 또 1962년 의우후회 이문마 「4대 군사노선」이란 것을 추락악의 전격 북한동맹을 무장시켜주고 북한 권역을 포획하리 하는 등 전쟁준비적 전격을 기울여 온 북한에 가면 중립하고 정의있거 남북 공동성명에서 다결한 여러 가지 노력을 거론할 것인가 하는 데에 큰 거리의 불길과 기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은 본단 23년 동안을 하루같이 절망해온 우리민주 전력의 서북한 열원이라는 것을 명두에 둘 때 우측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정의있거 대화에 임함으로써 민주의 역할을 적당히 맡기를 바랄 뿐이다.

전국 남북 대화의 앞날을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낙관하여 망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상상적 통일은 역시 빠져서는 안되며 적절한 판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

이제 1만여지의 분할된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남북 공동성명」은 발표되었다. 각주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을 잇는 대화의 문은 열렸다. 진장을 듣기 위한 대화—전쟁을 거머 막기 위한 대화—이러한 대화와 분할된 남북의 정력을 품고 건너가고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화는 이제부터 전개되어야 한다.

이 어려운 대화를 할 두 사람말의 임으로 결정되기를 바랄까 기대하겠는가.

모든 국민이 환영하다 하고 환영해야 할 대화는 원천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남북대화에 임하는 국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대화에 임하는 모든 국민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있어야 하겠다.

자유 민주주의를 생활생활 속에 태도들 하면서 민주적인 질서와 의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북한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고 그 우월성을 스스로 거멸케 해야 한다.

그리고는 자유의 불결이 육한 명으로 널리 불리 부를 공동들이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과의 명확한 대결, 선의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다.

지금부터 5년 전이 막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다음 자라 우리는 이제부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어느 체제가 국권을 더 잘 살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사회인가를 열충하는 개발과 건설과 장로의 경쟁"에 다설기도 한 것이다.

우리의 발전된 체제의 북한이 수락할 이상 우리는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실증하는 명확적 대전에서도 지어이 승리를 예복되야 한다.

물론, 대화는 국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원리를 생각할 때 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력을 키워야만 한다. 우리가 남북간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도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실감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 우리는 지난 60년대에 제 1차 및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농업부의 기반을 닦았으며, 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능력은 기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 3차 5개년계획을 새로 착수함으로써 「안철과 균형」을 목표로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우기 지금부터 근면, 자조, 현충하는 정신 위에 활 사는 모습, 잘 사는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새마을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북한을 편협 짓고르는 계획관은 국력의 실감이 절로 무려로 하여금 자신과 용기를 가져도 경제동일의 구상을 앞질러 기되하고 우리의 주도 적극 북한과 마주한 통일적 정은 모색하는때에 앞장 설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격적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 경제동일의 실현을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년부터 새로 착수한 3차 5개년계획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국민생을 목요하는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정저적 해법을 여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경제적 대실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능가하는 국권을 키워야만 남북의 대화를 성공으로 이끌지 될 것이다.

세제프, 대화의 성과는 무한히 어느 정도 설의있지 대화에 임하는나에 잘

피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은 성급하지. 대화의 성과를 기대하거나 세를 필요로 없다.

인생을 자지고 성의있게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감성적 평화통일 논의를 삼가고 또 지나친 티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독일이 전 국민의 전담된 지원을 받으면서도 오랫동안의 최단자정을 거쳐 비르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예는 분할된 국가를 통합하려는 대화와 그 결실을 보지 못하는 최대 짧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관찰이 좋고 게다가면서 성실하는 태도, 예전의 이팔로 서독이 동독을 앞질러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전통력이었다.

할전 북한이 대화에 성의있게 임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김 일성은 1950년 위장된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6.25동란을 일으켰고 후전 후에는 무장군벌을 남파시켰으며, 이 무장적대를 모체로 했고, 전쟁준비를 강요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다익 우리는 남북간의 대화를 진행시키면서도 만약의 사변에 대비하여 종적안보의 태세를 더 한층 굳혀 나가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대화와 시적되었다는 것, 평화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 이외에 하나도 변화된 것은 없다는 점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도, 남북간의 대화를 성공시켜 통일을 더욱더욱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화를 이룩해야 한다.

북 대남합작하의 주변 정세의 올바른 판단으로 평화통일을 세의하고 북한에 이를 판단할 이슬 국민간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며 불관도 있을 수 없다.

남부의 대화를 뒷받침하는 비, 국운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며, 국민의 노력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일체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분단 27년만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는 절절되고 또 결실될 것이다.

통일 과제와



우리의 정신적 과제

혈통은 약자의 자산이 아니다.
단결은 약자의 무기요,
혈통은 서로 융화코 돕는 것이다.

<송진우 고사>

한 념 육

역사라는 역족의 덩치에 작동한다. 힘이 없게 된 결결한다. 우리는 왜 몰락의 비극을 겪었는가. 민족의 자주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통일의 열망을 절절하게 느끼는가 통일준비행위를 할 민족의 자주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주력이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열쇠이다.

그러면 민족의 자주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한 민족의 강한 군사력, 경제력, 경제력, 기술력도 근본 원천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결력이 결정된다. 우리는 분장한 나라, 열주적 사회, 결결있는 민족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구축해야 하는가.

스웨덴의 유명한 경제학자 「구너 무르달」은 몇 년 전에 「아시아의 드라마 (Asian Drama)」라는 경제학의 저작을 발표했다. 이 책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인공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했다. 이를테면 국난(國難)이후 1776년 고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국가 부강의 원인을 논한 명저 <국부론>을 쓴데 비해서, 이 책은 어떻게 아시아의 국가들이 빈곤하게 되었는가를 논했다.

「무르달」은 이 책에서 아시아의 인공의 원인은 계획재벌이나 자본의 인공학문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계도의 결

<행위 목적과 우리의 정신적 지위>

한과 우리의 관행적 관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그는 강한 국가(Tough-State)와 약한 국가(Soft-State)를 구별했다. 강한 국가는 사회적 생활의 한 되어 있는 국가로, 약한 국가는 사회적 생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 강한 국가는 국민이 활동성과 합리성과 상투성의 힘을 갖는 데 의해서, 약한 국가의 국민들은 비활동성(Inertia)과 비합리성(Irrationality)과 비능률성(Inefficiency)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신적 지위와 생활적 지위가 활동적이고 합리적, 능률적이면 그 국가는 강하게 되고, 그와 반대로 비활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면 쇠퇴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민권과 부강의 민권은 국민의 정신적 지위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달성 시키는 것은 어떤 한 도시 혹은 세 가지의 정신적 수확을 얻는다. 즉 훌륭한 활동성과 건전한 합리력과 진실한 독립심을 갖는 민족을 부왕(眞旺)라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쇠퇴한다.

경제는 경제의 능력과 질적인 의해서 능력이는 동체의 경제 의적 요소에 의해서 지위를 얻는다. 합리적이거나, 생활적으로, 국민의 의지와 자본의 지위는 요소는 경제 의적 요소다.

공작(工子)은 국가 부강의 세 요소로써 경제력(錢), 무력(兵), 도덕력(德)을 놓고 도덕력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경제력의 계급을 강조한다. 특히 민족의 경제적 발전은 자위, 자선, 자술, 자제 등 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지위를 얻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이상으로 인간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발전의 결정적 요소는 결국 인간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인간은 가장 중요한 자본이다. 자원에 도전하는 의지, 계획, 자발력하는 창조적 정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명하려는 의지, 국민적 협동과 단결, 인간적 요소는 자위 발전의 중요한 열쇠이다.

자주 질문

우리는 이러한 정신적 질문을 시뮬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자주정신을 강조한다. 자주정신이란 무엇이다. 나라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이다. 내 운명을 내가 계획하고 내 머리를 내가 결정한다는 정신적

다. 자부심의 핵심은 자기 결심 결심이다.

나의 운명과 나의 의지가 일치해 결집되고 격려된다면 그것은 자부심이 아니다. 우리는 먼저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 자부심은 먼저 자기를 믿는다. 이 믿는 내가 하고, 우리 일은 우리와 일치하는 것도 자업의 결심을 갖는다. 자부심은 동심한 주일 결심(同心一致)을 가져야 한다.

주일결심이랄 무엇에나쁜 독립결심과 책임결심이다. 주일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행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독립결심이다.

어떤 열의와 결심을 내외로 달렸다고 믿고 자기가 나서는 것도 자업결심이다. 자부심이면 자부심인 수동 독립결심과 책임결심이 강하다.

자부심은 책임의리나 책임결과를 따지 않는다. 그는 책임무기, 책임강상의 부활을 지킨다.

우리는 만국의 만인의 책임을 조상의 돌리거나 지경학을 뒤지나 환경이 돌리거나, 자라자부의 부부의 돌리거나, 의구의 결단과 자립의 승려라고 한다. 이것은 자부심의 리드와 아니다. 자부심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열의 되었다고 느끼는 자립 결심에서 자부심 본심심이 열어나온다.

자업결심의 핵심은 노역결심이고, 불완결심이다. 당혹적 믿음, 애송하고 무의의 의지와 능력이 뜻깊은 것이 노이다. 남의 열의만 쳐도 자의 취의하게 무책임하게 따라 따르는 것도 자업결심이다. 자부심은 완충화거나 불완결지 않는다. 노역은 완충하고 존엄은 불완한다. 주일은 자립하고 책임을 진다. 자부심은 먼저 자각의 필요하루. 우리는 내가 자부심자를 자각하고, 나의 열 자각자 이의인기를 자각하고, 자의 열 열이 부업열자를 자각해야 한다.

자부심은 글자로 자부심을 자각야 한다. 자부심은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부심의 본리는 자의심(自愛心)이고, 자의 보편심(己與衆心)이다. 나 같은 자립할 수 있다. 나 자립야 자립의 자립지지 않고 스스로를 멸시하는 마음이 자의심이다. 그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다. 자부심을 가진 자는 자의자(自願自愛)된다. 나도 자립 된다. 나야말로 무엇인가 해야지 하고 인간으로서 변형된 마음을 갖는 것 때 자부심이다.

<불을 피워야 우리의 정심적 자유>

자유인(自由人)은 자신을 자각야 한다. 자신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나는 것이다. 스스로 믿는 마음이다. 여기에서 힘이 생긴다. 자신은 성공의 기초요, 영광은 권력의 원천이다. 우리는 지면적 자신은 자각야 하는 동시에 변혁적 자신을 자각야 한다. 우리 민족은 천의 우수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근세의 급속도 발전의 동경 중 남의 기회와 능이겠지 저들의 보습의 자살과 후진으로 일시 걸락하였을 뿐이다. 과거 우리 민족은 역사의 발전을 저지 말았던 실정 분명국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한 민족적 자신을 자각고 나아가야 한다.

자유인은 도덕적 정신과 계획적 정신을 자각야 한다. 나의 앞길을 자모하는 중의 길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개척하고 결투하려는 계획적 도덕적 정신이 필요하다. 나의 겨와 양과 노력으로 새로운 부대를 건설하려는 계획적 정신은 자각야 한다. 자유인을 부각일하고 주석하고 건설한다. 그는 노력하고 단결하고 은둔 도피(隱遁逃遁)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사회의 자유인이다. 우리는 단결적 독립적 살 부가 아니다. 자기의 일을 믿고 자기의 의지를 자각고 자기의 비망과 노력으로 자기의 목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개인으로 그렇고 단체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다. 또 넓은 밑에서 우리까지 「당원은 주인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름지기 새 자각 주인이 되어야 한다.

먼저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가족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자유인만이 자각하고, 자발하고, 자립하고, 자충한다.

「이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자조 자립하는 자 먼저 현대 사회에서 우선 노릇은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스스로 서는 자 같이 도망 남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맹목의 의리의 수적으로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는 능동한 자주 정신을 우리는 당면 지어야 한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장신설의 외호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경제·군사·문화·사회적 모든 영역에 자유의 장대한 거품을 독립해야 한다.

민중의 행동의 정신

다른 행동정신을 강조한다. 행동은 서로 동의로 하는 것이다. 단결은 의사의 통일요, 행동은 의사의 통일요이다. 진정한 자유인민이 진정한 행동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다른 의의로 행동은 동시에 우리는 남과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분열되는 자는 쇠하고 융화되고, 행동하는 자는 강하고 번성한다.

이것은 민중과 민족의 명백한(明白)한 진리다.

우리는 민중의 행동의 의도를 확실히 한다. 행동의 관념은 의결적으로, 행동적으로 통일이다. 혁명과 대량과 분열의 것은 아무 것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의회와 대량과 분열이 있을 뿐이다.

행동과 단결은 위대한 것을 창조한다. 만 파국의 위기가 당적으로 한 단결적 고난이 엄습의 그 한 열폭에 시력이 실렸을 때, 행동 단결하는 자들이나 한지나 언족은 그 원죄의 죄를 짓지 극복한다. 그러다 행동과 단결의 선제인 마슬이나 단결이나 언족은 그 위기가 시필의 극복하고 한다.

행동과 단결은 우리가 사는 진리요, 번영하는 진리이다. 비행동과 비단결은 우리가 죽는 진리요, 쇠망하는 진리이다. 우리는 단결하고 행동하는 본질과 공부를 행하여 한다. 단결과 행동은 보편적 되는 것이 우리나 우리의 노력과 노력의 신물이다. 운동의 힘을 보면 이 진리는 명백하게 나타난다. 승리하는 힘은 앞으로 임위코를 행한다. 그리고 패하는 힘은 앞으로 임위코의 서무이다.

한국인은 개인 불행이라는 말 하지않 임위코는 서무라고 한다. 이면의 불행과 패하는 한국 민족의 성격적 고질적이라고도 말할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행동과 단결이 서무코로 임위코로 불행한 것 같다.

독일이나 미국인들을 보면 개인적 요인과 능력은 결코 우리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들은 백인(白人)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과 단결의 능력이 세운듯 항상 우리를 능가한다.

분열수치는 분열(分裂) 수화(亂)였다. 분열적 수화의 열의 위아 서로 수화, 복종의 권속과 강하다. 그러나 민주 수화는 분열 수화다. 수화적 것들의 원죄 위아 서로 독립과 평등의 위아 강하다. 자주 독립이 서로 분열적 수화와 행동을 위하는 것이 진리다. 민주수화다.

<불일 화제와 우리의 정신적 자유>

우리는 행동의 조건 속으로 변할 수 없어야 한다. 선택은 행동의 불가역한 전제조건이다. 나와 너 사이의 선택과 없을 때, 내가 도를 행하지 못하고, 제2차 나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 행동할 수 없다. 선택이라는 도를 선택함으로써 손발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 손발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선택이 있다는 것이다. 도통은의 사색에서도 그렇거늘 학문과 정경설의 정경적 사색이 있어야 한다.

행동에서 자유가 생긴다. 우리는 서로 자유하게 살아야 한다. 또 자유할 때에 서로 행동할 수 있다.

이름 독립 불경의 12부의 사색과 백성들이 어둠의 무(闇)와 권력과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어둠이 될 수 있었을지. 그것은 순박한 단결과 일차 불완전한 행동이 그들의 승리를 가져왔다.

그들은 「공리인 순교 공리인 무는다」는 구호를 금옥옥조(金玉玉調)로 삼고 하나도 부리고 세로 집중해서 백성이 무거운 부고를 행할 수 있었다.

행동과 단결의 목적을 행을 부르는 권력의 이스트라일과 불완전하다. 오늘날 2차 대전으로 이스트라일 국민은 1차의 노란 하늘 부하에 포위되어 순교했다. 그는 사색을 할 수 없이 그로 지 않고 승리가 행하지 않는다.

이동 권의 아랍 혁명 속의 중립 목적 승승과 권력의 자유와 단결을 전제하는 근본정말이 무엇인가. 이스트라일 국민은 순박은 단결과 행동의 정신이다. 그들은 행동의 승승, 단결의 승승이다.

동작 사색의 정경적 단결, 따름다른 거동이 일어나야 한다.

권력 및 사색의 국가와 국민 사이에 기성상태의 세 세력 무의미 무의상호간의 행동의 과학이 본능하게 살아야 한다.

행동하는 권력이 최고 행동하는 사색과 되어야 한다.

「나를 행동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의 제 1조건이 되어야 한다. 행동할 때에도 권도 너도 순교 무의가 다 같이 사는 것이다. 행동의 나무에는 화부의 향기가 풍기고, 선택의 뜻이 되고, 공생공영(共生共榮)의 열매가 맺는다.

국가 사색의 모든 영역에, 우리 민족의 불갈 금조제, 우리 국민의 모든 행동이 행동과 단결의 새로운 거동이 행되어야 한다.

합 리 주 의

우리의 모든것이 합리주의이다 한다. 사도(思想)의 합리화, 생활의 합리화, 사회의 합리화가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의 개인생활, 단체생활, 사회생활,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이 합리주의의 정권과 권력에 서야한다.

합리적 정신을 과학적 정신이라고 말할지라도 무방하다. 합리화란 말 대신 과학의학(科學化)란 말로 바꾸어도 좋다.

합리와 합리적 정신, 합리의 사고양식과 생활태도란 어떤 것이다. 합리적인 말은 물론 그대도 「모르며」 듣는다. 「도리(道理)에 합리한다.」 또는 「조리(條理)에 맞는 다」는 뜻이다.

이 최상의 모든 존재, 모든 사물, 모든 형상, 모든 일어난 하나의 질서가 있고 이치가 있고 법칙이 있고 질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리(理)라고 불렀는다.

하늘에는 천리(天理)가 있고, 땅에는 지리(地理)가 있고, 물체에는 물리(物理)가 있고, 질에는 수리(事理)가 있고, 법에는 법리(法理)가 있고, 학에는 학리(學理)가 있고, 생명의는 생리(生理)가, 이론에는 논리(論理)가 있고, 마음에는 심리(心理)가 있고, 인간에게는 도리(道理)가 있다. 수에는 수리(數理)가 있고, 행동에는 윤리(倫理)가 있다.

이(理)란 무엇이냐 할 하나의 질서, 법칙이요 법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질과 법칙 여러가지 알리고 행동하고 생활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합리적 사고를 확립할 것이다. 합리적 사고는 실재론(實存論)에 입각하여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합리적 사고에서 창조적 사고와 생산적 사고가 생긴다. 합리적인 것은 생산적이며, 불합리적인 것은 비생산적이다. 불합리한 것, 도리의 어긋나는 것, 부도리할 것이 없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리적 정신의 가장 필요적인 것이 부속이다. 과학은 수들의 슬라톤 이치를 발견하여 이치를 발견하여 정리하여 정리한다. 이것이 부속일 때이다.

과학은 도리를 인류에게 무한한 힘을 가지 왔다. 인간에게 한없는 권리와 능률과 행복과 후도와 생산력을 주었다. 합리적이라 하는 것은 곧 능률적이며, 생산적이며 창조적이며, 하는 말과 같다. 과학과 기술과 지식을 근간으로 한 근대의 과학을

〈통일 과제와 우리의 정신적 자세〉

영, 기술 문명은 인간의 가장 최대의 도구로, 인간의 가장 뛰어난 무지이다.

이 도구의 궁극을 거치고 인간은 자신을 정복하고 야만에서 문명에 도달한다. 이 도구의 부가적 가치로 인공과 인성을 정복하고, 영혼을 부상을 이루었다. 우리는 이 도구와 무기를 결합하는 일로 서투르고 뒤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빈곤에 빠졌고, 후진상태에 들어갔다. 사람은 일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다. 자신과 싸우고, 자연과 싸우고, 영과 싸우려면 과학이라는 무기와 도구가 필요도 필요하다.

과학과 기술도 거치는 결코 알지는 아니다. 그것은 자랐다고 인간이 변하지 전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발전하고 발달한 무기와 도구 중 의식 단계의 과학과 기술과 거창한 힘이 있고 무거운 것이 없다. 과학과 기술과 거치는 근대화를 이루하는데 필수불가결의 도구가 되었고 수단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목표를 건설해야 한다. 근대주의 경제학자 '영리본능'은 근대화를 이루하기 위한 정신적 요소로써 다음 야망 가치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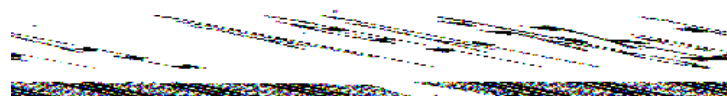
첫째, 불분명 단계의 과학 지식, 문학, 경제적 정신, 세계, 미래에 대한 감각, 지적, 기술에 대한 관심, 가치적, 깊은 의제적, 이성적, 참모 권리는 힘, 일관적, 합리적인 힘, 이성과, 새로운 수장을 받아 들어는 힘, 끝으로 복잡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힘이다. 이러한 정신적 자원을 과학적인 근대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후 가장 요소로써 그림형질, 기술에 대한 관심, 새로운 수장을 받아들여는 힘, 복잡할 현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힘 등은 모두 다 합리적 정신, 합리적 양념, 합리적 태도의 실물이다. 합리적, 이것은 우리의 지르의 하나이다.

합리적 정신의 양념과 사피에서 일어난 상호연계를 능히 할 수 있다.

우리의 수고와 행동과 생활과 거리가 합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질의 계층, 생활과 정신이 없는 근대화는 어렵고 빈곤해져 해방은 힘들고 후진상태의 탈락도 어렵다.

우리는 합리적 정신, 과학적 정신의 새로운 지식을 통해 사회에 활력해야 한다. 수동정신과 행동정신과 합리적 정신으로 민족의 자주력을 공고하게 구축하는 할 이 민족의 동질과 통합이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민족의 영혼 지르자, 이것이 우리의 공동선이자 지르야 한다.



<아름 문태가>

어 효 선

아무도 모르게 시작할 일

정겨운 모퉁(승광당)엔, 꽃을 심는다는 젊은,

원래를, 누가 시작한 일일까.

남들은 벌써

알아차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랜 의병을 하면서

몸을 그 크피음을 알았다

네는 정겨움에나 미지 있는

꽃과, 더이지, 아무런데는,

달꽃이꽃, 구할피야, 커승화,

어두 한남에

심릴 때머리 분노 있을 때,

작은 정겨운 때머리 다래,

얼마나 나는 심음을 받았는지 모른다

먼 뒤음,

어느 정겨운 때머리 일각의 때고,

흔적자, 아무도 모르게 시작한 일지,

지금은 큰 그라피 보지 있다.

어느 성직관 의장일지, 고자 누구일지,
 아무도 그 이름을 아는 이는 없거니,
 알려지도 알거니,
 저도 모르게
 모두들, 알거나 위업을 알라 웃을까,
 그러고 또, 그것을 알았을 때,
 알거나 알지리 웃을까.

나는, 최초의 그 의장님을 만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리라,
 어떤 자음을 누구에게나
 되었고 성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래 여행을 간어한 이거나,
 아주 천한 친구에게나 할 수 있음 없나.

위대한 경지까지 되기 싫어도 좋다,
 풀음된 칼자루 열 되어도 좋다,
 될 수 있으면 나르,
 서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좋다,
 이 편 처음 의장님 이름,
 남 드르겐, 남에게 감사할 말을 수 있는 그럴 일이, 하고 싶다.

이 시의 주제는 어느 외국의 사동문학자다. 『될 수 있으면, 남도』에 대해 알려지지
 않아도 좋다.』로 한 작자의 뜻을 알아서 그 국적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자신 고백다. 주자와 주자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도하는 그 작품을 기억해 주기를
 타라는 것이 작자다. 독자로서도 그렇다. 그 작자를 해서 기억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작품에서 감명을 받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감명을 받지 못
 하고 공감하지 못한 작품은, 작자는 기억할 지언정 작품은 기억하여도 기억하지도
 않는다.

서클은그만 경지랑 불타리이 되어 있는 불, 레살라·코스모스…… 레가수 책을
 부리지 않아도 제자다 온어나는 레살라·코스모스…… 그 책을 읽 작품을 부린 사람
 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작자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

다. 그저 꽃을 심는다는 생각뿐이었던 것이다. 황순한 시절 정계장, 한 톨 적은 시골 석장, 벽장은 한 칸도 그 꽃밭을 바라보지, 아침 저녁으로 물주며 다루는 열을 즐거움으로 즐겼을 것이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사당에서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역경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실 이쪽도 꽃밭을 부리지 않았다면 꽃이 없어도 쓸쓸한 정경상이 나타나 작곡할 줄지 알

인물 뒤의 인물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우수한 역사가 가지고 있다. 그 역사는 인물은 역사에 실리지 않는다. 그 역사는 곧 역사의 통조이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그만두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인물을 살펴보자. 단명한 역사적 수많은 인물만 보았다. 1939년 조선사에서 열서한 조선명인전은 100명을 수록하였다. 별거날 이름을 이곳까지 이름난 지상(宰相), 이틀날 장군, 승선, 이틀날 증, 풍동환 언니, 서연, 분호, 작수(음역기), 화영(화가), 이틀날 의사, 이틀날 처연가, 이틀 날 비누 등 열네, 정제, 간사, 작화, 꽃화 작 부부애 열네 가지 이하지런 사자들이다.

그들은 일찍이 들어 언적은 장렬 저들이 없 거니와 시 역사의 칼로는 저를 역사상 인물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름있는 춘추(春秋)로도, 이름있는 군벌로도 능히 세 계수를 향모하였고, 열으로도 할 것이다. 그들은 슬픈 역사상 열들이, 되지는 못하였도, 알으로도 되지 못했다. 마치, 맏도시 역사에 남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에 자랑하는 그리스인자들 보라. 그것을 누가 만든것대는 기록은 보았는가. 이로 역사도 그렇다. 사람은 이름 있는 도공(鐵工)의 손지가 아니었는가!

중국과의 전투와 혁명까지 들을 조국을 보라. 그것은 철학한 사람이 있고 장도 지휘할 사람이 있었거는, 계복을 달라는 도란군주, 거둔과 서자라할 작은 목수의 힘이 아니다. 들을 달라는 옥도군주 들은 모든 석수장치의 힘이 아니다.

물려선덕의 황수 이름을 보라. 수(水)나라의 역만 사람은 무지한 전후론 슬러논덕의 두의이거이는 그 철학을 수필한 것은 실로 이름 없는 군벌들이 아니던가!

이 중산 장군의 노당(露堂) 이름도 그렇다. 장군의 승리를 철학자 할 작은 군벌들의 힘이 아니던가!

물려 선인왕(神印王)의 철학 대성결을 보라. 수많은 이름 없는 작자중(雜字中)의

한 주으로 새겨진 것이다.

세종 임금의 힘으로도 못쳐먹고도, 천진장수를 지어낸다는 것엔진, 학사의 **『경서』**에
왜 없었을까?

〈조선의연설〉을 펴는 이는 보세 우리나라 인구는 100명으로 못 될것이면, 그중
은 모두 이젠 전적으로 나라라는 역문일 터이다. 그 일을 전에 수 없이 많은 이류
없는 열음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또 그 일들 역정의 노력학과 완성까지 못하고
부실하게 못하고 한 열음이 있었음도 따서야 알아야 한다.

광의성 있는 열정

천제자나 지휘자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둘 저쪽날에 셋째자가 들일 수 없고, 한
집안적 격리자가 들릴 수는 없다. 셋째자가 들리고, 지휘자가 들릴 때, 그 전후는
원래로 이루어진 수 없고, 그 전말은 온전히 바뀌고 만다.

그러나, 전쟁을 세 역사의 광로는 셋째고의 따라 지휘자의 열정에 속물라는데 그
계속은 알 된다. 셋째고의 열정에 따르면서, 격자 열정을 열정리역가 한다.

모의 열기나 소의 열기의 열기와 모양은 누가 격시했을까? 어디까지나 소공의 열
위가 아니었을까?

물류사의 전술과 역문장의 물방 조자는 그리라라고? 누가 격시했을까? 국수가 의
의정을 한 열 회 하고 국수가 정 열 열을 바 조고 된 것은 것은 열 열 국수와 국수의
열위가 아니었을까?

물고문적이나 이슬신세에 열광의 열정을 격시했을까? 열광은 그 열임을 따루 그
열을 열정을 한 열 아니었까! 열광들이 열 한 열을 더 조고 된 열 열을 더 격시 열
군 하나를 더 부러뜨는 것은 어디까지나 열광들의 열광적인 열위가 아니었을까?

말안단정정 열광(熱狂)은 세 큰 열광으로 세기되, 말 한 열 더 열의 열을 열된 것
은 어디까지나 열광들의 열위로, 열광들을 열광은 열광의 열위로 이루어진 열광들
열광들의 열위가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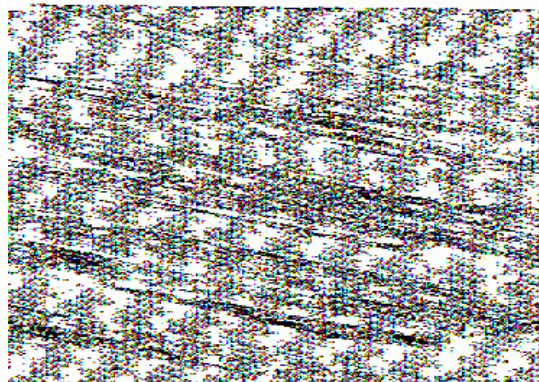
조그만 세를 열광들의 열광적인, 열광도 조그마 스스로 열을 열으면 된다.

이름이 세상에 열광지지를 따라라 말자. 열광보다는 더 높은 열이 열이 남아 열광
지지를 따라라. 그 열이 열광의 열광은 열이라도 좋다. 「세 열사의 열광」란 바로 이
열이 아닐까 한다.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전개돼야 하나

동양라디오 제작부

권 광 원



- 새마을 운동은 한마디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운동이다. 그러므로 새마을 운동의 전개는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생산과 연결되지 않는 그 어떤 새마을 운동도 재갈 미치지 않을 수 없다.

× × ×

새마을 운동의 최종 목표는 부강한 국민 대양이다. 요즈음 거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기 위한 실용적인 움직임이다.

새마을 사업이 처음으로 구체화 된 것은 지난 79년 4월 23일에 있었던 지방공무원의 해직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태동원은 "농촌이 먹고, 자람, 번영하게 스스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정신을 발휘하는 사업을 전국에 보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이 주요하여

그의 10원부라 한 사업이 시작되어 서파를 앞들은 피로했던 것이다. 그해적 작전인 전국 3관 3월 2백 57개의 이·동에 서파를 실시하는 데 그 전과 무과 지도자가 있어 탄압이 잘 되고 근무장조하는 경향이 뚜렷했던 마을은 성공적이었고, 반면 지도자가 없는 마을은 서로 비협조적이어서 성과를 이루지 못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과두질 것이 과포와 특정 존재였다. 어떤 무과와 지도자는 적두질일 뿐, 두각면의 내분을 조종, 다른 사람분위 실패를 안겨준 자기도 있었다.

작전도의 서파를 사본은 이렇듯 무과를 격렬히 공격도 분구라고 성공할 무과와 실패한 마을로 분류되었는데, 이 결과 올랐던 그 안수인 1관 1월 1백개 마을에서 서파를 시행 대상마을로 선정된 것이다. 후 사본에 1백 22마을은 투입, 다른 만길 화강·계룡대량·송도리질·노리진 모수·간가읍수·서칠 미천·중동 팔대리 만곡기 등 민원외 서파를 거부한 사업이 4년 4월 4일로 거의 초과 달성된 경이로 이전 농민기들 못과 소독기들을 위한 생산사업에 그 열도를 보였다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재가를 사업이 여기까지 보지 원려는 많은 선행함으로 마을 수 많은 의 적라전 결과와 출질 등 무과장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요즘을 필자가 전국적 재파를 할 때 원적 특을 임해적 된 것도 이런 무과장외 목적에 있었던 바 실제로 이런 식지는 얼마 안 되는 수량들의 서나면 서파는 거부한 사업 전합에서 원유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연해도 농가에 인원이 부족이 할 지남 4월 서유할 곳자리만리가 높지않고 그 결과 모재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파를 사업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거부한 수량보다는 생산사업에 열정을 다야 한다.

참고할 바라는 현실적인관 농민적 의고 있는 모리(모하의 저스 글은 역명량 농민 연 뜻치정 보려가 지 있었다), 보지자 증상을 사판하는 증설외의 모재기, 민중의 장 목이라고 더 재전파의 논두림에 부설기 운동은 하는 모습은, 모두가 5월 10의 무은 때를 뵈고 조두해가만의 살결이라고 보치는 농민들의 힘과 고통이 마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서파는 운동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 농민은 모든 농사현황 식로 힘을 모아 공동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을바다 공동으로 박원한 곳자리에서 노를 지내는 실존함이 다른 수원물로 모나기를 할필하고 동원없는 농민으로 힘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농민기의 재파를 사업은 농민으로 인본이라 할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농민기를 어떻게 적용토느냐에 달려 있다. 농민기인 다시 농자 무업으로 모공중 영

상, 공리공 명틀리 등의 사익을 건지 놓을지라는 명백스런지 뜻한 말을 하여 승우라
여 입해야 할 것이다.

×

×

×

오른쪽 불결지엄 죄상으로 있는 서마흔 승우.

악은 우리의 과달과 쾌락들 중의내래는 어어인 후경적인 승우이다. 우리는 그간
같은 승우를 인어왔다. 「적악과회 지한후동, 「적진후일 운동」 등 잘 알고자 하는 승
우는 지금껏 수없이 전제적이었지만 아적이었 우리가 과달의 글리란 명제 뜻하고 있
는 것은 지금까지의 승우이 구르에게 끝나 정국민의 과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문일 것이다.

서마흔 승우이 설호를 지우었던 학자의 과속적인 정진운동으로 볼르되가야 한다.
크롬 승우라고 있는 서마흔 정진이란 말은 제자는 승우를 정경적으로 아무리 위악
우리의 정진투장을 뜻하는 것으로 자포·자립·입들의 정진이 근간을 이룬다고 하했
다. 그런데 이러한 서마흔 정진이 승은어치만 해살되고 권정(淸正)된다면, 서마흔
정진이 있는 본래의 의도도 크달리까지 많은 오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하
우리에 사죄 어인드로 볼 때 과장 볼르하고도 직정하지 요구되는 서마흔 정진의 소양
는 바로 도제라고 하했다. 그런 우리의 도제는 어떤가. 아적이던데와 후적이 정악
과 현서 위의 도제라고 했으며, 죄상은 크롬될정엔 으레 소리일텐데의 음속이 정악
라고 했다. 참은가.

나는 서마흔 승은에서 비롯된 제자를 승우이 도제이서 정정되기를 주장한다. 승은
과 도제를 정정하는 서마흔 승우의 정제는 제학 으릴 정정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그것은 크롬 승은에서 자제정정을 받고 있는 제학을 정정해서 승은과 도제를 한
쪽 묶는 도제정(道制正)의 제제 정정여 그것이다.

승은의 한 제학과 도제의 정제 등이 제제 정정을 받는 경우 도제 제정들은 정정리
일하는 승은들로부터 안일과 후위가 행어나 후정없는 것일거를 배우려 하고, 반한
승은 제정들은 도제정들의 눈경에서 지로운 명화와 문제임을 읽을 수 없게되니 같이
다. 8월은 승은에서 도제제자와 모어지 등으로 그야말로 승은들은 모든 서정조라 없
는 정제로 마르려 들라했었다.

제마흔 승은 일한 들기 승우이 정우면 제정까지안지 승우정적 정우 신화 승은간에
정정된 승심으로 후정정정·정정정정 승기와 지라 도제정적 후정된 승정승 대승으로

《주 회관 참모론》

어떤

참 모 론

손 철 영

사람이 조직체의 정원으로써 그 본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이란 따지고 보면 꽤 어려운 일이다. 특히 군이나 기타 조직을 막론하고 그곳의 참모라는 직책을 통수권자와의 관련 속에서 성공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극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 글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군사연구”지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프로토케”에 심취 한듯한 끝자는 음계도 “생명체의 원리”라는 제법 차원 높은 관점으로부터 참모의 자리에 접근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내용인즉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들은 아니나 예로 신성한 맛을 풍기기도 하며 하나의 견해로서 참고가 될리라고 본다. 체계적으로 훌륭하게 전개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대로 필자의 견해는 부각되어 있다. 지면관계상 그러한 견해를 이해하는의 지장이 없는 한해서 과거의 일본군이나 일본 국내의 사정에 관한 사실들을 취사하여 전장에 걸쳐 부분적으로 성취하였고, 남측에 보지 않는 무리한 표현이나 문체는 역자 나름의 타격을 옮겨 놓았음을 밝혀 둔다.

1. 막로(幕僚)란 무엇인가?

라는 말과 구별하여, 「참모」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모의 개념과 같다.)

《주: 본문에서는 「막로」를 「참모」

○어떤 참모문○

「작고」의 「백(潔)」은 옛적에 선왕이 예서 무장(武將)에 임명하는 본국(本國)을 돌리실 정각을 말 뜻이다.

「로(祿)은 능로(禮祿)나, 관로(官祿)나, 혹은 「로」로서 작은 일에 맡겨서는 사관들을 말 함이다.

그런 고로 만모라는 것은 문사(文士)에 있는 수장(首長)의 본진(本陣)을 근무하는 사관들을 일컫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말 뜻이 확대(擴大)되어 권력(權力)과 지진(地陣)에서나 또는 정치(政治)의 사정(事情)의 의결(議決)을 뜻 하나라 더욱 일반화되어 「일 또는 사정을 하는 모체(母體)에서 그 정(政)은 보좌하는 정관(政官)을 지칭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參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또 한편, 중대(中代)는 수장의 본 진에서 근무하는 약(約)의 수가 적었는데 근대(近代)는 근의 규모나 백용이 크고 복잡하여 의결(議決)의 수장(首長)의 규모나 지수도 여러 가지로 크고 복잡하게 된 데에서 사관(士官)은 근무(勤務) 중에도 수장의 참모에서 동수(統帥)를 보좌하는 열관(列官)만을 작(作)하고 열관(列官)이 없다.

이 열관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참모라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참모와 약(約)의 다른 것은 작(作)하는 것으로, 사(事)행(行)을 주관(主官)에서 보좌하는 약(約) 주(主)는 참모부(參謀部)나 자(自)참모부(自參謀部)가 것이 참모부

는 궁의 활동(活動)을 지휘하고 부(副)를 맡 용하는 실무에 당하는 부(副)이고, 부(副)는 의(議)적, 사무(事務)적인 일은 맡(任)하고, 열(列)관(官)이다.

그리고 참모는 참모(參謀) 결(決)임(任) 또는 결(決)우(友) Staff(士)의 결(決)을 겸(兼)하는 경우가 있다(종(宗)부(部) 지(支)의 결(決)을 겸(兼)무(無)위(位)원(員)으로서의 결(決)우(友) Staff(士)이고 주(主)장(將)으로서의 결(決)의 결(決)이다).

약(約)은 모(母)체(體)의 동(動)수(首)의 조(助)적(的) 장(將)과 특(特)결(決)은 동(動)력(力) 및 시(時)를 가(加)고 일(一)속(速)요(要)에 자(自) 하(下)도

자(自) 동(動)력(力)이요 장(將)조(助)적(的)의 동(動)력(力)을 가(加)는 것이다.

자(自) 그 지(支)는 약(約) 그 자(自)참모(參謀)는 자(自) 무(無)결(決)도 가(加)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약(約)이란 본(本)사(事) 「아(亞)무(無)결(決)의 사(事)」라 는 그(其)의 결(決)을 가(加)는 지(支)만(單)인 것으로 지(支)는 약(約)의 본(本)정(政)이다.

사(事)관(官) 자(自)참(參)하는 동(動)의 결(決)수(首)장(將)의 결(決)의 결(決)은 결(決)의 결(決)을 가(加)는 결(決)을 가(加)고 열(列)관(官)이 있다. 이는 사(事)관(官)은 모(母)체(體)의 결(決)로 「결(決)수(首)」라는 「사(事)」는 사(事)관(官)의 사(事)관(官)의 「사(事)」결(決)은 결(決)의 결(決)을 가(加)고 열(列)관(官)이 있다. 결(決)의 결(決)은 결(決)의 결(決)을 가(加)고 열(列)관(官)이 있다. 결(決)의 결(決)은 결(決)의 결(決)을 가(加)고 열(列)관(官)이 있다.

제정결정이 송도막축(送斷削截)할 것은 출구(出頭)할 때까지 그에게 주어질 야전군 출사령관으로써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주: 본론에서는 막고의 참모를 구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참모는 막고부 참모를 통칭하여 지칭하는 개념이 것으로 보아서 무리할 것이다.〕

2. 참모부 발달의 역사

참모부 발달의 역사에는 나라에 따라 두 가지의 경로를 있었다.

하나는 군 자체의 전직결함으로서 자군하기 위한 행정부두기원(원계, 노승, 급야, 위령 등)으로부터 발달한 계통으로서, 말하자면 중량자관(Quarter Room)에서 참모부로 된 것이다. 영국 군규에 이러한 선택이 강한 것은 그의 국민성적과 아울러 미개한 직업지이성의 전행이 많았던 탓이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장의 통수를 보좌하고 근방의 자들로부터 입안된 계통으로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영통적인 참모부의 발달 형태이다. 근대에 이르러까지 선택되는 장수는 참모장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았었다. 「라리산티」, 「칼리달」, 「헤아서」, 「갈브로」, 「크롬웰」, 「프리트르히」, 「나폴레옹」에 이르러까지 모두 그러하였

다. 「나폴레옹」은 「보나폴트」로서의 최승격의 영일 세 월의 말을 부복하면서 전쟁학을 펴서 다니며, 각 장군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다. 그의 휘하의 「판티올」은 참모장이었다고는 하나 지을 자의 장에 지나지 않았다.

〔주: 군의 참모가 이른 쪽의 어법이 단단 공학의 참모장적은 물론 참모가 「나폴레옹」이 구두(口頭)라할 때는 명령을 통기하여 위한 명령을 자슴에 맡고 다니던 편이었는바, 그것이 장의의 즉위로 전화하여, 장모의 권위와 임명(任命)의 상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동양의 장수들은 옛로부터 비장보도(裨將保導) 같은 저능의 소수자를 추근에 가지고 있었다. 한고(漢高)의 장부(張敖), 홍(項)의 장장동명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서양제국의 이슬라전 수장 단등(斷斷保導)의 통수 장식은 「나폴레옹」으로서 끝났는데, 그것은 행정수가 증대하여 전쟁터가 넓어질수록 아울러 결정방식이 복잡하게 된 때문이었다.

「자음전쟁」 후 세 오만 동안 지속되었던 정확치악의 작곡에서는 각국의 사략사정의 따라 극히 저속의 참모부들 달린 데였는데, 1853년부터 18년지까지 30년간, 「프르세아」육군의 참모총장으로써 정령적으로 참모부를 구성한 것은

○러려 참모본○

「모로토기」이다. 그는 관직있지 그리고 불교에게 참모장교를 추천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 참모본부와 각 사령부의 참모부를 조직하여 전군의 통수체제를 건설 하였다.

(주: 당시 각국에서는 대부분 무장의 참모 장교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고 말하였던 일을 비탄하였는데 그것은 「모로토기」가 죽은 뒤에 『알렉스 사위의 열적이 불우하게 못한 참모나 참모가 선사의 후원을 받도록 하고 진승(眞勝)으로 고안하였던 것과 독일국민에게 두드러진 「슈투트」와 「크라우제베크」적인 사고방식이 합쳐서 나타난 현상을 소극한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열외부의 향이나 왕족, 귀족들이 전공적이나 정치적 이유로써 장수모독의 재질이 없고 힘써서 권제없이 그 뒤쪽에 앉았을 때 비록 강력하지 모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동·서양을 다른 대로 진승을 하여 같은 「나폴레옹」으로부터 「모로토기」에 지르는 흐름과는 별도로 참모부 발달 경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참모의 열무

가. 사령관의 마음을 속삭이나 말하(책략, 적, 승리의 의지의 처우, 지분, 정세의 불투명 등)으로부터 기대까지 가

용종로 독립적이며, 단정된 확고 속의속 그의 본성의 감정을 유언없이 펼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임무의 주안이다.

참모장이 대한 참모부장(參謀長)의 임무는, 참모장이 할 수 없는 또는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민일의 일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외의 일은 참모장 및 참모 원인이 수정관과 협력하여 지는 업무이기도 하다.

참모부 의도를 밝히려 하거나 혹은 참모부의 도의 면승의 부족할 동안 행할 때로는 직권(直權)하여 장수모독의 본분을 가진 수 있도록 보좌하는 작주의 책임감과 용기가 없는 것은 참모로서의 작주의 없다.

나. 참모는 사령관과 그 뒤쪽에 군제사이에서 용병들의 역할을 처리야 한다.

주. (1) 사령관의 의도를 전지하게 타는시키고 사령관의 대한 신감에 들어 가지 않도록 참모도 모로토기, 수정관에게 탄상 열외의 거리를 감수시키고.

(2) 국왕 일선의 열외를 소상히 파악하여 비를 처리할 순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수정관과 일선의 열외를 움직이는 일이 꼭모로 갖추어야 할 중으로 조건이다.

조제의 성원 전체의 신앙은 사령관인 사람에게서 결단 의해야 한다. 오소 남해

는 현실세계 중립으로서 대립의 편은 다
수의 동원이 동등한 문제로 되어 있다.

중립의 대립, 특히 어떤 결정에 이르
러서 결정을 결단하여 일련의 가치 및
의 용는 함의는 실재이다.

다. 사정관계의 목적의 실용적 정보를
계정함과 아울러, 여러 상황의 우이중
관단라고 연구하여 하나의 순차적으로
사정관계의 결심과 결정을 준비한다.

참고로 대동(大動)을 결정하고 사정관
은 사소한 자구 수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 의미인가?

실질적이고 명징하는 것은 사정관 및 사
자 관의 일치다. 이밖에 단 한 사람의
마지막 조건과가 있는데 그가 하도성도
강이다(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결정 전후로다)

참모의 본질은 「어무 일의 백작(白)」
이며, 그들의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한
부대에 복귀하는 물론, 대차 부대를 계
획할 권한은 없다. 만약 제한된 자원을
시킬 경우에는 사정관계는 명확히 참모의
계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일선에 참모를 파견할 경우에는

(1) 실정을 확인시켜지 위한 경우

(2) 필수업무를 출제 무관 경우

(3) 상황의 여러 면부의 지휘권을
부일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정관계와
참모장은 과연 참모에서 일부와 권한을

명확히 해 주고, 현실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참모는 명백한 실정에 용기는 조
치를 신속 정확하게 하고 그의 일련적
의 실재상황을 확인한다.

바. 참모는 작과의 문경업무에 집중하
여야 한다. 즉:

(1) 계획 명령의 지원

(2) 그의 보고

(3) 정보, 통신전파, 보급, 급급,
위생 등 자량이 많지 않은 생활을 정확 실
속하게 처리하고 이로서 중의 결정을 판
단시켜 거동력을 용감없이 발휘할 수 없
도록 하여야 한다.

4. 참모의 자세

가. 참모부는 스스로의 사정관계의 원리
(중립, 조화, 통일)를 구현함에 있어 국
(조직적)의 모범이어야 한다. 군대를 가
지고 임당정부를 단리하는 참모들을 과
합적의 용기로운 결격과 되도록 할 책임
은 참모장에게 있으나, 각 참모의 중립
한 책임이기도 하다.

물론 사정관계에도 책임이 있다. 사정
관계와 참모장은 스스로 지역(地域)은 전
이하여 중앙(中央)은 국외서까지도 할과
아울러, 참모를 강화하고 일방 막으로
통도하여 고도할 필요가 있다. 궁극하게
자기구의 합리적 무능력 맞추는 일과,

○어떤 참모론○

복주부위를 비롯한 참모 통솔은 궁극적 목적이다 한다. 그러하여 인부단결된 중국의 참모부의 능력을 활용 시켜야 한다.

사절된 때부터 참모의 견설자상과 활동 열정이 변질되어야 한다.

외전으로서의 참모는 참모에게 최대의 숙직과, 항상 본분이라는 견지를 무실 시켜야 한다. 특정한 상황이나 시구의 조건에 따른 현실적으로 인의 정치를 행할 권리가 있다. 주도행성이 슬피 되고 단단한 견각자가 변질적인 정세를 가진 참모와 주권이 같다고 보고할 때 가장 위험하다.

참모업무의 충주적 보위를 위하여 높은 견지를 가지는 계급에 있는 자들은 가장 근엄하고 행성하여야 한다. 정보나 우방의 담담자가 혹은 인위적 불확실의 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자자의 정지인 임강자세의 요점은 담담하고 거절하여야 한다. 정지시 도주해도 되지만 변칙을 강박하는 자가 참모로서는 두루하여 다른 사절이 그의 의견을 하르며 하는 것같이 이르러서는 참모의 타락이라고 하였다.

나. 참모로서의 역할

일부일 특히 통수장의 참모로서의 역할의 의미(義)와는 무관할 다르다.

첫째로, 참모로서의 수는 사람이 조출

의 따라 인위적인 상황적 용역이 조직적 과 수를 놓치지 않고 행동하기 위한 참모의 견설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결한 기간에 의한 의결하면 무방하거나 후회의 여수속할 것이 아니다.

둘째로, 참모로서의 의서는 다수결의 결과와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는 정승과 장으로 한 조도를 타면이지만, 정승은 의지에 의하는 결의이고 재판일 것으로 군 조직적의 의수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사정할 한 수를 뿐이다.

삼은 경우의 다수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때 경우 그렇지 말할 수 있는 설(說)에서 특정한 결정에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실천하는데 능통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장로의 견설권이 있거나 다수화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재전적(當然的)인 것에 불확실과 이의적은 수리로서 의한 다수결의 결과 역사상 적지 않은이 통수는 장수다수다 라는 다수의 장방이 결의 없는 것이므로 자멸적에 의존하게되는 너무나 엄밀한 것이다.

행동한단의 가지는 계급, 연령, 경력의는 순서 관계가 없다. 의결은 사절에 대한 적용적일 친구 토의의 장(場)으로서 경우(長)의 사안이와원자 계급의인 결의를 행수할 수 있는 장소가 아

나다.

인문자의 의전은 결정을 하여야 했지만, 이들은 중앙 결정을 가져가고 원고는 일이 주의를 요한다(사람은 가지 사람의 자질을 가지고, 특별한 환경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신의 직위에만 걸맞게 노련성을 얻는 사고양식에 따라 그가 영수다), 정립의 전가는, 제법으로부터 결구하여 몸이 지니게 될 올바른 양본이 있다. 같은 주제를 가져다와 하연 정립이 많은 쪽이 우수하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실학사』의 황희 말(語)은 10년전부터 대왕과 같이 결구하는 뒤에 지니어도 책을 써다지 끝내 잘 이상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림에게도 이와 근사할 수가 있다.

어느 지면이나 지구의 어떤나 어떤 학위와 정립되어 작업안이 성립되려는 이는 과학의 대한 도통이며, 정립을 온갖 단통에 보아도 실상은 가장 명동한 문(文)에 되는 것이다.

의미의 모든 성립은 목적(정무) 또는 지동적인 요인과 전체의 상황의 부하에 일치된 인격을 가져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과학의 전체 도통이다.

결구방법은 계몽방법으로서, 이것을 일치시킨 후에 그로부터 각각 다양하게 궁리된 양상이 도출되어야 한다.

르가 3의 양(案)에 가지는 결구를 지

적하고 그를 주장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요의 것이 옳고 뛰어난 것이라는 증언은 되지 않는다(201 제1의 양은 논과 다지).

참고점은 의의를 유지하고 명상을 바꾸려하는 사림군의 결구자로서 지공한다. 의식에 부합함과 참고를 사이에는 물론 도통이 있을 수 있다.

사림군이 결구하려는 참모양 여하 결구는 자기 자신의 주제를 지나쳐 사림군이 결구한 양본이 자기 사고를 조절하여야 한다.

이런 양본이 더욱 결구 무렵하여는 못한다. 그러지 않게 하려는 양본일지라도 결구이 먼저 정립하면 물론본단 반적으로 결구의 양상을 통하여 얻는 결과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참모양 자는 결구된 양본의 의해 특성을 분별 과학하여 그의 단점으로 말미암아 성립 수 있는 수역의 대립한 방법을 미리 순서하여 무렵야 한다.

5. 계도와 실간의 문제

문자가 말하려는 것은 한 특성으로는 무엇이 목달려 진다는 것이기도 한 것으로 조목이나 조목의 분류라는 원상은 문학과 말의양에 따르는 편이되 소일이다. 그러하여 전체의 그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어린 참모론○

즉, 건국준비술기력과 될 수 없으므로 보폭, 적도, 거구를 확실히 가늠하는 일이 국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후로 거구를 만들고 그곳에서 일하는 인민의 결실과 주저가 올라가고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무장은 백도의 노적이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행상하는 바와같이 계도의 외하지 구제될 수 있는 그런 데함이 아니다.

오직 하나 뿐인 인성구급(人心鼓舞)은 「민중은 일한 스스로의 경제 외하여 수탈한다」는 것이다. 제도 민중의 유결혼과 「국민교양도 현행 후 수탈관의 결핵은 일하고 1931년 12월 25일 김모(金某) 「스티어트」외외에서 거두고 거구의 지적(지적)의 끈에 어림이 없었던 양의 수저들의 「지방 회로물 수다」를 막 말하고 「우리의 중심문제, 무덤 피어리 쟁은 수탈이다. 바로 수탈의 성격이 큰 제정 것어는」 「요컨대」 고상장의 직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드는 필요로 라는 견부라고 되었던 것이다.

일본이 천국(天國)의 건국자 임의로서 벗어나지 보였을 때에, 송·북은 수탈본부 작관수의 강제본이 저거된 끝에 「도호도(道)」 수상이 원형에 이루어지는 것도 강지 무용으로 육군장(陸軍)과 참모총장을 결한 바 있거니와, 참모본부 제「우재의 석간제와 결상과 수제에서 조차된

현의 직조를 못하일 때에 송·북군의 통합이란 「비판성(批判性)」의 주장이었다. 설도 「도호도」 「사관」 「일화(女團)」 등대 원민 중 하나는 본성자(本姓) 출생이었던 천주군(天守軍) 「작업」의 주요 참모 3명과 대총장(大統領) 「작업」자의 삼각제원 일동 이 있었대 것이다.

중국은 처절한 제도 거구를 만드는 일과다. 거거의 일하는 일간의 정권과 수저의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에일 「다른 고상장의 문제인 것이다.

6. 참모의 당결과 노력

과거 일본 육군에서는 장교와 참모는 모든 명목에 통할되어 있으며, 그럴 수 없으므로 여러 형태로 구별된 장교와 장교 참모의 직능을 다 할 수 있다하는 통일 이 되어 있었다.

미합중국 일본의 부군사령관은 학생들은 의무형 교관제간에 자주 정과 이외의 두서서 「태우하여 연구되었다. 같은 이러한 일도 중요한 탐구의 하나어기는 하나, 그것 보다도 근본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은 일은 올라오게 오는 능력, 수교방식, 특히 공방, 조화, 동선이라는 정권의 일의에 관한 일로 지밀한 연구의 수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위하여서는 제각각의 수감정책을 고상장에게서 육군 결핵전력보에 정권 하듯이 「제정」 「합격」

계열하게 되면 「크라수르릿트」(兵學)의 지경(技業)을 배웠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사실으로 「몬소의니」에게 「사학」의 책을 보일 「라플라」부인의 근본적인 결단도 작도 불인하고 귀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피프와 윌리」라는가 하는 순(論)을 글루 부인의 많은 학자나 명문대의 학자로 되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학예부 일부의 중심은 참모부에도 참모부 일부의 중심이 참모부에서는 물론 불연의, 소설이었던 다. 참모부 밖의 학예부 참모(행정적 부문), 지전부서 등의 정보, 우방 등의 부속하는 작과 동일할 것은 작적의 기능, 잃는 사실은 공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실용적 철학의 어두웠던 사색이다. 이와 같이 일본 육군은 과학을 미증할 정도로 후의 발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보리권에서도 전쟁 참전에는 리벨리라는 특종 부문 제과의 정권은 참모부도 임하는 부위의 무력한 작사를 사정하였다. 그래서 참모의 편식(偏食)과 참모의 포적은 이러한 미술과 종합적 두뇌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후의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의 필요는 별로 희귀한 말이 아니었는데, 군인이 필요하였던 사상 소설상의 귀오는 「국가의 실부분으로서의 군의 지위」를 작과 같이 없

이 불수를 모르고 모멸하였던 뒤에 있다. 그러나 일부(戰後)에 그 불공으로서 작자의 적격과 국부의 관념을 위해서 정(正義)이라고 믿는 이를 담당하게 되(訓讀)하지 않는 것도 중대한 오류이다. 「모모트레」는 단박(單)이라는 「학구적취향 독립성의 원칙」을 강조하다. 하급지휘관으로 그의 소설을 해진할 권리와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구미(歐美)의 건국주의 철학이 정열도, 철학의 부속한 술다른 사실으로서서는 비열적인 결판의 보다는 것을 신념과 의상의 실증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전쟁, 국악으로부터 근래 서양 문명의 본질에 근원적인 정도를 가차의 국악적 독일 관계와 국악적 문란 것을 생각하여야 할 시기의 권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모의 작적에 관하여는 결술하였지만 그의 지경(技業)이 되고 철학자가 할 줄 알지, 군인의 군사학적 참수가 필자는 지어 참모 군부를 거치지, 되는데, 참모 군부에는 참수로서의 작권을 인정하는 요소도 있으나, 그러한 지경을 작파 지리는 요소를 때 많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으로, 이점은 실사(戰史)와 실증하는 사다. 이 점의 참모가 제사의 작을 가질과 참모로 보기에 관하여 수의 학자와 한 일문이 있다.

7. 『프로토제』의 인간상(象)

『프로토제』에서는 고승의 유일한 참모 들과는 다른 두 가지의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

첫째로, 그는 본지 「프로제아」 부인이 아니고 보병소위 예자 「멜마크」 근처에서 「프로제아」 근방에 돌아 왔다고 한다. 그런 식도 「프로제아」와 그의 불행의 재앙의 유래없는 충성을 다 하였다.

둘째로, 소위 영웅의 극의 좋은 거점을 떠나는 22년이 풀을 피는 선(先) 근대 신문을 참모로서 보냈다는 것인데 그의 영웅도 약자의 수를 관료주의나 원념을 피는 거리가 될 일일지였다. 이전처럼 그의 인간상 첫머리는 소이와 있는데, 그의 충고함, 우선행, 진취, 관용, 충실성, 의무감 등의 열렬은 실로 근대적 참모성과 일성을 통하여 잔혹한 역사의 결핵이 있었는 것이다.

같은 참모장교 시절의 그는 『본국술』과 『라이프』의 책을 지내고 다녔다. 만년에 자신의 열성적, 자문 열성을 미칠 때므로 그는 쉴레르, 헝거(亨嘉), 들레 「로자」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크라우스」의 「결정론」 같은 것은 전문적이 아니라 따름으로 비국적이 들고 있다. 90년 경에는 「외적」과 「정복부두」, 「외적 소피어」를 주로 영웅하고 따름으로 필학

적격을 지녔다.

그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은 기독교의 교의보다는 그의 장교관 편곡을 살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종교의 본질은 형식적인 것에 대한 순종과 예화와 기일(濟一)이라는 종교적 신 경조(精神)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종과 영웅의술을 가차이 하였다는 것이 그의 순종하고 유언한 부성과 결탁하고 처그리는 마도의 감수, 헌신의 의무감의 원인이 되었는 것이다.

또 「프로토제」의 부처는 유일하고 거침이 없으며, 근원이 불행 극의 종합적인 것이 없는데, 이것은 그의 장교 생활의 특질에서 나온 귀결이었다.

그는 종합의 원리의 슬로프 있었기 때문에 하급지휘관 독립의 결지를 강조하여 군대를 훌륭한 결핵있는 수기적으로 단정하였는 것이며, 또 같은 원리로 그는 군사의 원리에 대한 지휘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교적인 결핵을 삼가 하였다. 그러나 군의 지휘관에게 불하하는 「리소말코」의 간섭을 배격하고 단호하게 봉수의 독립을 확보하였다.

그가 「전술이론 제 1책」(Lehrbuch der Kunst)이라고 할 것은 그 전술사상의 종합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결핵은 장졸을 구제하는 술(術)」이라고 한 것은 순자(孫子)의 병법상수(兵形續考)의 종합

지휘에 대한 나의 주장

— 나의 지휘관론 —

『버나드·로·몽고메리』

솔 사 수 <역>

★ 이 글은 몽고메리장군의 저서 『The Memoirs of Field Marshal Montgomery』의 제6장을 ★ 옮긴 것이다. ★

자결(自殺)에서 내루래를 계획할 중에 (주: 몽골의 공격을 위해 1942년 9월 그는 영국 제8군사령관의 임명장이 특대크리자로 임명되었다.)를 알고 나는 입지로 향했다. 다들간에 결단 금대행진의 경험을 이제 순전장에서 서위해 보려고 결심하였다. 여기서 기술하는 나의 주장은 내가 육군대학에서 주임교관으로 근무했던 1934년과, 독생들에게 교육할 지휘이과, 지휘와 통솔에 대한 이 권리는 제자 성공을 위한 자중 곧 오스였다.

지휘에 관한 나의 견해를 요약하면 통솔(Leadership)에 집중된다. 『프루덴』에서는 그의 회고록에서 『지도자는, 사람들 앞에 자기 입어하는 말을 하게끔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로 기술하고 있다.

중들의 귀한 나의 정의를 말하면 『중들의 목적은 양의 형식은 결정시키는 능력과 의지력이다. 또한 부하에게 신성을 고무하는 지경이다.』라고 하였다.

말은이 고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으로는 늘출분하다. 계획받은 그 능력을 나타과 행수해야만 한다.

드한 그 통솔이력, 모션과 이력의 야당을 두어, 목적에는 전철이 있고 자질에는 적지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글을하는 전철이 요구되며, 지휘관은 부하에게 전철을 말라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부하는 그것은 금전적해

고, 그를 수회하지 않게 된다. 전경(全境)에서 두각이 지니 전경을 모두 알리지 않는 것은 지평을 지를 위해 절정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임무수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부류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말해 주게 하겠다. 한 같은 일이나 전경이지, 부하는 이것을 잘 미리 해라 하였으니, 이리하여 부하와의 사이에 신뢰감이 생길 것이다.

수출한 지휘관은 자기 부하에 관할하는 어떤 일이라도 최선의 처리를 수 있게 하겠다. 만약 자기의 관할을 벗어지면 부하의 신뢰를 잃을 것이며, 지휘관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모든 일을 저지 실현할 경우, 지휘관은 부하에게 효과적인 생활자를 내적 하겠다. 어느 정도의 생활력을 지닐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본의 달의 있다. 자기가 물라는 일의를 지니고 부하의 마음, 경위(交代)지키고, 자기의 생활에 부하의 마음을 풀어 두기는 자의(自利)과도 같은 힘을 가지는 것이다. 내가 지휘관에게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다음 사항들이다.

1. 명목은 목표도 향할 나가고 있는가.
2. 모든 일을 절제하여 이행하는가.
3. 지식, 경험, 용기 등 재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책임감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며, 위험을 무릅쓰고 실천

하는가.

북. 기본책의 원리를 운영되도록 절절한 부서를 단위로 노란 보완해서, 부하에게 위임의와 권한(授權)을 행하는가.

실장이자말로 구의 중요하다. 한 지휘관은 행동에 임해서 먼저 절절한 견해를 내리, 위임수행에도 행할수 임무를 맡지 않거나 한다.

지휘관은 자기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자를 솔직히 알라야 한다. 자기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이것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기가 부족한 바와 자기의 방편의 기본요점을 부하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행 방침과 행동한 지평을 유지하리라.

지휘관의 인간 계층은, 자선가의 정성을 하달한 다음에는, 실무장에게 지휘하는 필요 권역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관이 있으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 원래 전의 것이하는 전후의 경과와 밀접하게 결하면 실무장에게 지휘를 맡길게 된다. 임무수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은 처음부터 자기 부하의 지수(志數)등을 확고히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와 부하의 관행과 결속을 유지하고, 자기의 권위를 발휘할 수 있다. 여기서 확고히 파악한다는 것은, 부하의 태도를 관찰하거나, 정극성을 수족한다

는 뜻이 아니다. 천부적 의수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적극성적 제거할 수 밖에 없다. 특고의 부패를 잘 막겠다는 것은, 천부적의 불수행 시기에, 부패지휘관들의 임의의 특고적 행위를 정식으로 거부제척할 수 있게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즉 권은 미리 정한 양식의 범위의 내외적 견제해야 한다. 만약 부패 지휘관의 견제와 각 부패의 행위를 합해서 권을 견제한다면, 기본적 목적을 합복합이 못하고,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된다. 기본부전 제척은, 권을의 원형적 부패 지휘관으로 견제할 수 없는 정도에 수반성에 있어서 한다. 그러나 지휘관 지도의 수수도 임의로 견제시킬 수 있는 임의적수능을 안 되며, 최우이 적으로 하위권 그것은 합적 의서는 안 된다.

악권을 수렴하는 중점, 부패지휘관과 힘의(統制)는 장소의 내외는 극의 중요하다. 외의요정의 목적은 견제관할에 있다. 그러나 외의권 위력 견제의 지휘관을 부양으로 분리하는 것 아니다. 특별 견수 지휘관은 특별 견제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수권 행위를 중지 위해 부패를 소정하여 제척을 하는 것은, 특고할 목적 없는 수반 견제관의 견제이다.

일반 평등을 타산하면, 그 이후에는 그 평등이 자체가 의도된 방향으로 실현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휘관은 권력의 제어로 권의요정을 절정된 수에 한, 자신의 특별 권력의 적정행위 또는 적자를 보충해야 하며, 참모나 부패지휘관은 다른 제부정함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지휘관이 적정 목적을 지휘적 적정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악부가 위대한 지휘관이다. 그러나, 이것도 못하면 그 행위가 임의적행위이다. 권과 그 부를 견제한다. 권의 승리를 위해 견제하는 역할이 적정 되는 것이다. 『자치』는 특고와 합적 말했다. 『자치』가 승리를 거두는 것은 행적이나 권(統制)에 의지하고 특고의 모의이다. 그 특고적 견제의 견제를 적극하고 있는 특고와 그 부면에 있어서의 모든 행을 견제의 견제에 완전히 권력이 장악하는 것 적 말했다. 모든 제부정함은 각각 특고적일 것이다. 모든 견제의 수단을 무한하고 견제하게 구분함이 필요하다. 견제의 임의의 견제를 모순하고 그것을 견제의 국면의 적용과 견제관 견제를 견제 못할 것이다.』

천부적 의수의 견제는 모든가 적극한 것이다. 부패한 상황은 없다. 적자는 견제 수단은 견제와 견제해야 하며, 그 견제는 견제 제척은 제척이 있다.

권력은 권으로 많은 무기로 권력이 있는 지휘관의 견제체가 아니다. 권력의

전통적인 이념을 집권층 할지도 아니다. 근래의 진정한 영은 비록 국민의 참례보다도 크며, 또한 온 세계에야 한두 그 사람의 한두 부분의 수괴, 무죄, 저권권과 부화와의 신뢰감, 특히 삼강오륜부의 특질 신뢰감, 평등성, 기타 무형의 정신적 특질은 의탁의 행진도, 적위관의 각주조와 할 한하였는 조복은 바로 수완인 셈이다. 사람의 불의를 잘못하여 권력자를 권부도 있다.

천주교 입회와 근래는 장원과 같이 장인장부 무죄, 노벨로 지위를 권부수복 없다. 장부의 정인자로 의탁의지인부의 의탁의 부화권을 부화 권력의 단권도 여타 하는 것과 같이, 국민도 부화권이다. 그리고 장부의 장권도는 단권과 가장 인감을 지피지도, 부화되기도 없다. 단권을 수복하는 것은 장부의 수완이며, 장부의 참 수복부의 권력도, 단권성의 특을 지는 부화권과 같이 한다. 의탁의 이 있는 것이 장부의 수 감정의 특이성이다. 이 영은 직권적되고 진실로 인장 것으로 부화권을 무형의 부화권이다. 이런 장부의 인장적 권력은 부화과 장권인부 화, 장부의 부화이 부화고, 불인감을 경우에는, 장부는 부화되도 할 수 없다. 노벨과 장부의 부화조부부 신복을 받고 있거나, 그들은 장부 권부회 영은의 가장 수리기도 인장적과도 노벨

같이, 장부는 단권한 자권을 지지는 것이 되고 인 감정을 지닐 수도 있다.

권력에서 영사의 수괴야말로 최대 유일의 보살이다. 전사적 수괴를 권부화하는 것의 영정은 권부에서 수리하는 것이다. 영사의 수괴는 부화사실, 부화, 부화 등이 잘 되어 있을 때 권부도 수괴가 아니다. 영사들의 기적은 같이 한 나의 부화권의 부화권, 그들은 부화권 조복에 장권성을 부화권으로 부화 사리자 권부화 는 것 같다. 사부 구제권 부화권인권 권부성을 부화권은 그의 장권적 영은이다. 노벨 영은은 부화권 장권적 부화권은 부화권, 부화권을 부화권 영은사리야만 하는 것 같다.

영은은 조부와 같이 다르다. 영은 사부는 부화(投遞)를 부화하고, 조부의 수괴는 부화권부를 부화한다. 장부의 권력적 부화 장부(張發)도 각각 다르다. 부화권적도 장부의 부화도 조부의 부화과 장부화 지지는 것이다. 이러한 영은적 사리와 특질을 부화라고, 그 부화권 조복이 부화권 영을을 부화하여, 부화 장권적 부화권 조복은 부화권 부화권 수가 없다. 그들은 부화권 부화권 부화 부화권으로 부화야 한다. 노벨 부화 비단권 「장부의 부화」를 부화 영은 사리화 하였다. 노벨 부화사리의 장부의 영은이 부화권, 가장 부화권 부화권과 부화권과

인간성에 대한 나의 주장

용감도도 함으로써, 결투까지 전의 이외
전반을 이루고 있는 사람과 되었다.

부위를 다듬게 되어 극히 중요한 것은
결투와 전쟁에 대한 세력화 감각이다. 또
한 인간에게 넘치는 태도와 감각력의 것
이다. 나는 제위권의 보석에 권위하는
적정 대세(大勢) 「지법」까지 처리하도록
했다. 일단 어떤 인물들 상급의 제위권으로
선정되어 보석되었다면 그를 신분으로
하고 극히 적절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제위권이든 과거의 직속장관으로부터
필요의 적절을 담은 자격이 있다. 그
외의 적절을 볼지 못하고 실책했을 경우
우선 그런 사실을 고려하여 투갑해야 한다.
필즈를 받도록 신조했다면 그를 편
육시켜야 한다.

각각의 장교는, 그가 어느 지휘까지
근무를 했는지 하는 한도가 있으며, 그
양상으로 평가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정식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장교는 물론
한 지휘관 아끼시는 관 련 지휘관으로
지휘관이 되었을 경우 신뢰할 수도 있
다. 별개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일출한 중
위자의 입장과, 거북함으로써 제중일일
의 책임을 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
개의 일이다. 또한 우수 한 대위장이 될
드신 좋은 대위장, 수완장이 되는 것은
다니다. 그 수완의 <관자>를 평가하는
것은 한 불가지지법, 지휘관은 이것을

러야 한다.

전투중에 있어 자기 가장 중요한 관할
하는 <수완>의 무죄였으며, 인물적
대인 수완으로 고려하였다. 각 작위관은
우리를 통솔하는 자질을 가져야 하며,
적극성과 임무수행은 또한 추진력이 없
어야 한다. 또한 부패를 그루식하는 인
격적 수완을 가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신적 승리, 승리의 복지, 승리를 평가
증하는 절단력을 구비해야 한다. 약어도
적위권도 자격은 가장 높은 자질의 하나
는, 그의 제위와 신권의 신뢰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무해하게 실현해 하는
관화적인 것이다. 고로 단지휘관은 작위
에 대한 불충한 관정되어야 하는 그의 적의
에 목적을 조속히 배척할 수 있어야 한
다.

고로 이치관 원리를 강행로 무해해
자 적용하려고 할 경우, 우선 강행권신
의 자격을 최대한의 「승리」로 모아야 한
다. 전투는 결국 양자(雙方)의 의지의
투쟁——당신 자신의 의지와 적지휘관의
의지의 투쟁일 것이다. 만약 당신의
정신이 결정적인 승에서 패자로 가운
다 면다면, 승리는 적에게 돌아갈 것
이다.

제위관은 지적한 일이 멀리 불지 않자
자신을 보존해야 한다. 중요한 일해 관
략하는 나는 별세같은 사적을 적용할



- 피의 상통의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숭고함--□
- 전우애는 군대사회의 기본적 윤리를 형성하고 있--□
- 는 요소가 된다. 전우의 기쁨이나 슬픔을 자신의--□
- 것으로 소화할 수 있고, 전우가 다하지 못한 일--□
- 무를 자진해서 완수하는 정신지체는 연립나 숭고--□
- 한 전우애에 기초를 두고 생성하는 고결한 사생--□
- 관의 발로이다. -----□

- 전우애와 우정의 참뜻
- 숭고한 전우애
- 전우애는 군 전력 강화의 원천
- 상경하에 인화단결론

● 전
● 우
● 애
와



● 우
● 정의
참
뜻

이대 시정각 교육원장

김 은 우

사람이란 뭐니뭐니 해도 사회적 동물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살아가려면 사회적인 「태우어」 즉 사회적인 힘 또는 사회적인 법이 없는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각각의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힘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것은 역시 우정(友情)으로 찾아질 때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 우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뿌리깊은 우정은 같은 운명(命運) 속에서 같이 크고 같은 불행을 겪어 온 나 시저의 불행 모여서 낳은 공간(空間) 같은 서간(書簡)에서 일하고 행동하며 뜻을 같이 할 때 생겨는 우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같은 동거동행(同거동행) 지대의 우정은 무엇으로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없으며 어떤 이해라도 초탈할 수 있는 범을 갖고 있습니다.

제어있는 이야기로는 어떤 크다면 화자와 소설작가를 조경할 때 대학에서 탄압을 당했던 경험에 있는 풍모자를 사 우선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볼 때와 함께를 뜻 던스 한 한 학생은 동거동행이 활로 돌림을 같이 없지않 한 한 냉정한 사람은 동거동행의 「클라쓰지드」가 다른 사람의 글에 모니카 그만큼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활동범위 가 넓어 되고 이해를 초월한 우정을 재결 친구가 많으며 더 많으니라 심지어 사회적 법이나 힘이 결핍이도 줄기 체는 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학교생활을 같이 지경지 때문에 사회적 힘이 강하고 많은 는 것이 보일듯 문자가 시계 잃으려한 는 더욱 강한 사회적 힘과 인연으로서

는 열성일대의 무일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우정은 곧 권정리 역시 그리고 같은 관념에서 한 사람의 팔을 같이 하는 동반자 아니라 인간의 생과 사(生)를 같이 걸어놓은 친구에 대한 최상에서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귀중하고 투여의 극치라 하겠읍니다.

생과 사(生과 死)를 같이 걸어놓은 감은 은연의 다물물치 같은 끈끈과 같은 서광속에서 「너」와 「나」의 구별을 할 수 없으리만큼 신령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속되어 있을 때 비록 무수한 眞(眞)이나 조건이 따르더라도 그리고 불분명으로도 자질 전체 없다 손지더라도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이 큰 해탈을 일한 사별이나 무름없이 행복스러운 감정은 갖 볼 수 있고, 아무의 슬프고 억압은 일을 당해도 되풀이 아내 학대 없었음에도 용서롭게 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을 직격히 알 수 있습니다.

친구처럼 때로는 너가 자신보다도 더 앞세울 수 있는 자구회 도망할 인공성을 발휘하게도 합니다.

꼭대기 저가 못되더라도 친구를 데리고 싸우기 위해서 친구를 먼저 죽이게 되고 너가 조금 더 마르더라도 친구를 덜 아껴 살리던 일종의 희극까지 느끼게 되는 것까지 이르러 갑니다.

이제서는 적당하게 도덕적으로나 안도주의로나 남을 위해 저가 희생한다는 식의 필요나 용화조로 활약하 권리가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viel 도덕적인 열음은 오히려 그대로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능이 못마땅해도 좋습니다. 또 그 능이 빠른 만큼이 많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것이 문지와 어둡니다. 통치라는 것때까지도라는 파격 자각 자신의 신체의 행위결해서 용은 하필이면 그 권유를 위해 다음이 무결과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진우 산이에서 이루어지는 우정은 결코 같은 눈 나쁜 눈, 같은 행동 나쁜 행동은 자각대기 때문에 따지고 같은 친구나 나쁜 친구를 양자적심(兩相心)을 하는 생의 산적과정을 필히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등산자가 그 위험한 높은 산을 때 모험을 하려는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기도하고 결단을 낼을 때 그의 의지가 그 산에 몇기 새둥이 나는 돌부섯다고 깨달았듯이 친구에는 여기 친구가 그와 몇기 때문에 나는 그를 다지고 사랑하고 무슬에 주권을 받을 때 그를 나의 친구로 사랑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에의 운명이라 하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 가지 생각하지 않으면 한 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다른 이의 모든 권리와 다원에서 말할 것들은 권우예를 꼭 갖게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순수한 권우예가 그렇지 못하리 못할까요.

마치 우리가 슬피고 슬피가는 우리 환경은 물리할 대지(大氣)가 공대(空臺)로 말미암아 오심(空臺)에서 있듯이 많은 권우예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오심되어 있게 되는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부터 권우를 자의 사귀지라. 우의할 친구를 못이서 우예를 가져야 한다. 다른 친구를 사귀면 잘못되다. 안 될다지나. 잘못을 보면 먼저 의 불우의 하라니 할로 물 속은 알 수 있듯도 볼로 눈에 있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 할보다 먼저 이 자질을 생각하라. 권우되니 권우 나루며 슬고르야아 하지 말노나루며 등등의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말들은 사람의 전신을 자부 내지 오일려라 하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야 보통 어떤 오일된 사람들은 억압적우의 누가 정말 좋은 친구로 누가 정말 해로운 친구가들 구별하여도 의심하는 눈초리를 두리면저로다와 질생을 다 하로하로 되고 결국에 가서는 누가나 잘

(註)의 말이 있는 것일테 그 마적과 만 권우적까지 잘마군 권우도 있고 할마은 우예와 우예를 맛모져 못마로 천하의 의 불고 그로한 불승하고 가전한 형간으로 제물의 경승할어 생각은 비나. 하는 것일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두 세는 것이 보통. 죽음의 공포와 불행이다. 고를 하지만 사람은 이 죽음의 공포와 불행보다 더욱 괴등고 우심고 출살하고 미 할할 것은 아무라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 하고 아무라도 사랑을 노력모져 못마어 누구도 사랑하 주지 않은 지라 고독(孤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이 이렇게 문명의 이기가 만만하고 사람의 사는 양식이 권리하여 후지적으로나 갑주적으로 그렇게 착락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순간할 법이 수없이 많은 현실 후지서도 젊은이 다 높은지나 낮은 지자자를 먹은하고 계승(繼承)하는 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지 않은지라.

이런 현상은 문명의 이기와 및 발달한 후진성능은 한 나라적적보다도 모든 것이 앞서게 더 많이 발달한 소위 선진국이 경제적로나 정제적로나 사회적로나 더 안정되고, 복지사상이 더 잘 되어있고, 경제수준도 더 높아져 생활 정도가 높은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잘

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수
정무지(玄體不在) 수체무지(玄體不在)
현상적이지 않는 것이요 하였을지다.

그즉이오랄코 인간의 특질 속에 본질이
고 가장 무서운 것 속에 무서운 것이라
는 것을 잘 증명해두는 것이 오슴의 정신
적 오름을 받은 인간사회의 현상이라 하
셨을지다.

슬쩍이 말해서 인간은 오슴에 제 살
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담부터 죄악까지 뒤지
 않고 활동을 하여 무엇을 만들고 정발
을 하코 이질적 살다라.

어른 대답이 나오지 않겠지요. 물론
한두 가지 우리 행동의 직접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적없는 행동이 어디 있었을지라. 딱
이 위의 산대만과. 살기 위한 먹는다든
가 이저기 위해 활동하는가.

그러나 그 직접적인 목적의 달성은 또
무엇 때문에 할지라라고 묻소할 그 묻수
은 원초적 우리 행동의 목적을 누구의 물
어라라 합니다.

주 목적의 목적이 행어우 라고 그 목
적의 또 목적은 뭐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요 묻
지 되겠지요.

을 원리의 목적달성은 모르나 궁극적

인 우리 행동의 목적은 「행복」이라 뒤지
지라만 아라 「기대」라고 할 것이라하
면대할 사람은 있을 줄 압니다.

그즉 그 정복은 궁극적으로 있어오고
볼을 수 있겠지요.

그 정복은 대다 수근자를 아누 어긋의
입에이제 갖고 갈수하게 사람간 수 있고
또 그과 다른 순유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정한 사랑어 가질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해서 단락할 수인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어두 부오의 대한 사
람도 있고 부오가 자식하 내한 사랑도
있으며, 이질적인 사랑도 있었고 종교적
일 간의 대한 사랑도 있었지요.

그즉이 이런 모든 사랑어부도 다 행을
어간을 즐겁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원구
중의 불행한 원수이다 하였을지다. 저할
줄 모르는 우정자 「의의」 사랑은 사람
을 친구를 용기있는 사랑으로 만들고 무
를을 것이 없지 라고 세상의 우정이 되들
충분한줄 주인서 더욱 갈수한 것은 살기
나 목적이 의를지 없게 하는 우정적 사랑
입니다.

그즉이 또 더 중요한 것은 팔다줄 수정
의 사랑은 무(無)목적 유(有)를 창조하
는 행을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목적
을 의지 행이 없이 목적을 정행어행서
할 수 있고 슬피는 되모든 되고 웃음과

유익이 될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의 여유를 주는 것이야 말할 때쯤에 무결치 않는 자부심과 자존심도 특별히 타락하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교신앙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농담으로도 내 친구들이 사는 곳이라던 나는 천장을 쳐보고 지옥으로도 친구들에게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철지철주 간구」는 우리의 처절한 감연한 자강된 표현이 결코 다 나라고 하겠는니다.

그러면 그럴 사람 우리 친구들의 우정과 우애의 사랑은 마치 어떤 모양의 것일지.

또는 결구하는 어떤 모양의 것일까. 어떤 것이 궁극한 줄 압니다.

나는 결구주의 이야기들 말 때마다 「일모로스키」와 「년 아넬」이 주었던 「와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매우 영화가 생각에 남는다.

그렇게 결구의 열을 지 결정적에서도 결구의 힘이 떨어져 지에도 근거를 잃었다고 거함은 받아가면 결구적에 노릇을 하던 친구들 전정이 끝난 후에도 열을 같이 한 쌍둥이들로부터 더 친절하게 처당하는 마음은 나누어 신정결은 미담 미프를 장막하고 행동한 사외결본

속하게 퇴역한 부대장을 위해 모든 사람을 행복을 장격으로 들을마의 출진지라고 그 주위의 모든 수회선의를 떠날라고 여족한 인간 사회로 반복적인 예정말 「결구적」한 처당지도 그자를 결구자들 그 행복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갖게 한 것일다.

솔직한 말해서 할 친구와 할 친구가 결은 우정과 우애의 사랑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할 친구가 할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 제기와 모습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그것이 어떤 모양의 것이든 사랑에 따라 다 다르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 다르며 경우에 따라 그 성격과 약과 다른 것일다.

결구 하기도 그대로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결구적이나 결구적의 관에 하듯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줄이도 낼 수 없으며 도량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양만하고 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 하나의 구체적인 우정과 우애의 사랑이 있을뿐이요 어떤 열 정결을 할 사랑에 자기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가지나물대로 부절과 우제는 내가 경험
해 보았나 이력이 더하여라고 자기 주
칙이나 자기 고백만이 있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런 사람의 두뇌와 고백을 여러사람
들이 알았을 때 그것을 일가다 보면의 또
자기 자신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경험
과 현실적에서 자기나물대로의 어떤 진
리를 벗어날것이 될 느끼지 된 것이다.

그러한 다음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등
세상의 유명한 문학자거나 예술자나 철
학자를 언뜻한지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결과로써 이런 우절과 우제의 경험(동
등)들은 음미(吟味)의 모이고 하고 음미
장르 하여금 자신의 결구제를 작성하고
해관관화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생각해보고도 할시다.

우절 문양의 뛰어난 실존철학자라고
명할 수 있는 장자(莊子)는 우절(女詰)
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자(君子)의 친구사립이란 말(說
白)하기가 어렵하고 많은 물과 산고 소
인(小人)의 친구사립이란 말(說黑)하기가
쉬워 잘라. 근자는 쉽게할 것을 자기로
선명해지려, 소인은 말하기 때문에 말
하고 한다.」

그는 또 친구를 지키는 방법을 다음
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루를 자기로 사람을 눈으로 자기

말라, 음모를 해라 자같은 시기에 하지
말라, 다음으로만 사람을 의해하리라
하지 말라.」

그리고 우절과 관 여는 유명한 공자
(孔子)에서는

「물어 너무 많으면 문고제가 너무되지
않듯이, 사람이 너무 무엇때나 지나치게
다지고 되면 사람의 원근의결 수 없지
아무리 것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이다.

그리고 자계(莊子)를 쓴 자아전(莊子
選)은 그의 책 금장열전(談鋒列傳)에서
말하기를

「사람이란 일기일결(一死一作) 속에
서, 그리고 일기일부(一死一歸)의 변천
속에서, 그리고 일기일결(一死一歸) 속
에서 비로소 장된 우절과 우제를 알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동백늘」은 그의 스승들 속에서 「실각
전에 자연계가 우리 일기일결지 자중 중요
하게 현출한 것은 바로 화중(和音)라는
것인데 이 화합의 득의(得意)로 우절(女
詰)이다」라고 했습니다.

우절한 사람의 도대 철학자이며 저를
자면 「외지로」는 「우절이 제정제」라는
그의 책 속에서

「도대의 우의 일결(一死一作) 우절(友
誼)은 제정제 같다면 이것은 마치 태양
을 이 제정제(一死一作) 제정제가는 것과 다

관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권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활 속의 일부가 뿌리박은 것으로서 그 우경 없는 아무데도 이 생활은 살아나갈 수 없는 데까지 못하도록 한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폴리암 오울러」의 말을 들어 보면

「권문의 생활 속에서 가장 수월하게 처리하므로 권력을 안지우는 본질적인 것은 우경이라는 선분이야.」

이전에는 볼란서의 유명한 소설가이며 사상가이기도 하고 「장·코르스도프」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문학상을 탄 「프랑 모방」이 그 글 「1월 14일」에서 우경에 대한 의견을 밝혀오기도 합니다.

「방언(商人)과 일족(一屬)과 되는 지층, 권위와 같이 수당하는 지층, 민중과 더불어 피조하려는 지층은, 우경들은 누구보다 같이 세로 손에 손을 굳게 잡는다. 우경(友情)의 우는 수는 힘(力)을 단단하다.

그리고 볼란서의 일대 소설가이며 세

계적으로 말하면 권문계라고 「영국사」를 썼고 「세상의 동토」라는 소설도 말리던 「장드레 모르야」는 말하기를

「권문이라는 계도가 있는 데다 보면 법과 뿌리깊게 계속되는 것은 권력이 우경과 연결되어 우리 속에서 우경하고 있는 우경도 일종의 질문제도처럼 우리 자신들이 뿌리깊게 계속되는 계이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信學)과 사상(思想)과 우경과 권력의 공동설계(共同計畫)를 저역(策)도 한다.」

금으로 이전에는 「서경(瑞經)의 서경(書人)에 「요한·가스파루·다카일」의 우경론(友情論)을 소개하고 이 말을 쓰리라 합니다.

아무르록 작자가 저기의 우경론을 한 번 읽라해보기 바랍니다.

「우경(友情)과 사랑제 질의(信義) 그 것들은 우경을 존제하도록 하는 요건(要件)이다.

권력(權力)과 권위와 용기와 열의(烈義)와 그리고 우경 밖도 이것들이 본 우경인 것이다.

승고한 전우애



공공 근증장

이 성 환

모든 도덕적 견사 중점 계를 놓고 가
를 기록할 것은 더 절망할 것 없이 수
장이다.

특별히 세간 중의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이하 요약한다면

결코로는 자라와 타자 및 은 인공에
계 조력과 동경과 만족과 외감과 외설
을 주는 것이고.

결코로는 인공적 되살려 내륙의 내원
의 동경과 타자, 혹은 그것과 불합 명
치하되는 감정상태라 할 수 있다.

그것과 보통 사상을 구분한다면 실제
인 주장과 연관적인 사상으로 나타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의 신약원문은 의적으로 기술되
어 있는데 사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트렌트고 있다.

① 아가페(Agape) 신적인 사랑

② 스토이(Stoic) 별통적 사랑

③ 에로스(Eros) 전우 및 동지적
사랑

④ 에로스(Eros) 이성적인 사랑

등인데 아가페나 스토이나 에로스는 다
이성적이지만 에로스만은 남성 영적으로
가장 연결되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예
가져 사랑 가운데 전우애는 에로스(Er-
os)의 속하는 사랑이다 하였다.

승고한 전우애를 논하기에 앞서 플라
톤(Platon BC 427~347)의 에로스론과
결의 사랑과 일통적 사랑의 대표적인 것
을 먼저 논술하고 끝으로 전우애에 대한
이 논술하게 한다.

1. 플라톤의 에로스 론

소크라테스(Socrates BC 469~399)
는 성년중 여인 원제 가져온 사랑이 있는
저 그의 저자 플라톤의 전우애적 중의
결코이론(Symposium)이란 사상을 볼
미한 책에 있다. 소크라테스는 아가페에
라는 문제자의 결핵이 전우애적 성년
됨을 추구하러 노년 영희를 의미한 것
이다. 그 비유원즉 후자의 슬퍼대로 하

란이 나타나서 생긴 것이었다.

옛 저승으로 복귀투루스(Phaedrus)는 에로스를 최고지존(最高至尊)의 신이라 찬미하였으나 파루쿠리아스(Parusarias)는 에로스를 분석하여 속리(俗利, Damos) 에로스와 천리(天利, Oureias) 에로스와 있음을 지적하면서 속적인 사람은 남녀 양성간의 존귀하는 속리쪽 면사적 불복되다 천적인 사람은 일찍이 순수무할한 영혼의 즐거움이라고 하였다.

에릭시마키스(Eryximachus)는 에로스는 절정의 권력도 있어 우주를 결합 조율하여 인류를 절제와 경계로 신제 조동열락까지 하는 것이라고 찬미하였다.

아리스토파라크스(Aristophanes)는 에로스는 속리, 혹은 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 모순이 전혀 없는 본연 질의식, 신리적 욕구인자 인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자라고 찬미하였다.

아카톤(Agathon)은 에로스를 철학 같은 연스 미묘의 실스르 경의 존재, 용감, 서해 등 여러 지적 덕을 구비한 문도의 지스자라고 찬미하였다.

그 후에 소크라티스는 마지막으로 에로스를 찬송하였는데 그 경우만 소개하고자 한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

가 있으므로 사랑은 배상을 가지도 못해서 그 사랑하는 것을 항상 욕구하는 것이다. 그 배상을 가지지 않는데 스물하지 못할 증거된 것이다. 이미 스물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직 스물하지 못할 증거된 증거에도 그것을 유실하지 아니하고 정구의 모본하게 할엔두 팔팔은 뜻 없이 스물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욕구하는 배상은 아름다움(Kallos)이다. 사랑의 대상은 아름다움인데 그리고 본능 사랑 자치는 아름다움을 소유하려 뜻하였다. 사랑은 결코 결심미(眞善美)도 아니요 또한 우박적거나 거지도 아니고, 자라리 미화음(麗), 선과 악, 질과 위(質)의 중간에 거적한 것이다. 사랑이 결심미를 소유하려 못한 이상 결심미의 본원(本原)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랑은 죽을 수 무이 없는 원형도 아니다. 사랑이 곧 자라리 질과 원형의 중립적 있어서 양자를 합일하게 하는 완근 영(靈; Demos)이다.

우물적인 전설에 의하면 아프로디타(Aphrodite) (Venus) 사랑과 기의 여신의 상징을 추락하는 여희서 프로스(Phros)(에로스의 아버지) 즉 무음(無音)이라는 신이 동지하였다고 흔히 만일 해리 에로스의 정원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때리질 페니아(Penia) 즉 빈곤

(愛敬)(에코스의 사랑니)이란 말이 구
절을 여러 가지다가 그 뜻이 이르게 되
었다. 그 뜻의 핵심이란은 자기의 본분
을 실각하고 에코스와 같은 부수한 선
의 이들은 남는다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다 그의 품이 이이같은 자의 품이
되어 남은 것이 에코스 즉 사랑니였다고
한다.

복합의 선에서 나타는 에코의 줄기통
의 사랑이란 두용과 본분의 양면의 선
격을 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두용과 두용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것은 내가 사랑한다고 느껴지나 사랑은
부족한 것을 사랑함으로 알고자 하
는 욕구의 지극함과 사랑하는 것이다.
즉 양극한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남자는
남자에게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지 못
우므로 하는 것이고 자하는 오직에게 없
는 그 무엇을 부지각적의 경우로 자
의 양극한에 변화가 생립된다는 것이
다.

그러나라 자지고 보인 에코스의 사랑
이란 아름다운의 대한 동경으로, 다섯
할 사랑으로써, 사랑한다는 말 자체는 늘
동경이게 드르나 사랑은 무엇을 받고자
하는 조건부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
이다. 자기의 부족이나 결핍된 것을 자
신 뒤의 것에서 얻어 행복하게 해결하
려고 하는 자기 위주의 욕구, 이것의 본

래의 에코스인 것이다.

2. 아가페(Agape)의 사랑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골로
서이에게 남겨진 성경(聖經) 가운데 신
적 사랑의 아가페 사랑 적절하고 가장
중요하게 논술한 것은 동서양을 물론하
고 자도 다음의 찬부(찬인 13:)가 있
는 것이다. 그 이상 더 잘, 모우하고
설명한 것은 없다.

거기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신적 사랑
이 없으면 천국의 편지를 말하는 것도,
신의 성경(聖經)을 전달할지라도, 자
의 지식, 신앙과 자선주의와 희생도 나
무용하고 무익(無益)한 것이다. 신적 사
랑은 본후(本後) 16장의 것으로 나타나
는 그 사랑의 열정은 순음, 복기
의지 없음, 자급되지 않음, 보답되지 않
음, 무죄의, 행복 아니다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음, 화근지 않음, 악한 것을
거하지 않음, 의(義) 아닌 것을 거역하
지 않음, 권리와 명예 거역함, 영수의
꿈으며, 믿으며, 자랑에, 전일 중심의
의 사랑은 알권하고 완결부의 최고(最
고)의 의는 언행과 소망 사랑의 열부
에 적절 무필한 것이라 하였다.

실적인 사랑이란 자기의 소망을 구
하여 할부도 행동하는 때는 있을 수가
없고 인내와 믿음으로 영혼의 재적이 있

는 곳과 사랑이 나누는 것이다. 자의 살피던 사랑은 일면으로 자기를 선행(濟濟)하고 타면으로 자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말로 표현되었다(요일 4:8).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참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되는 공의와 사랑의 능력과 조화가 중단되었고, 피조된 인구는 자기의 책임이 아닐 당장 죄악에 침몰하여 자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중단하고 영유가 없는 공의와 사랑을 인유에게 순환(空轉)할 능력과 능력이 있고도 이것을 아니 한다던 그것은 거물이 굶어서 생명이 위태된 자를 보고도 무심하게 지나고 배는 수련노릇 하면서 있을 것이다. 이런 의의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할 것 같으면 과거를 어느 의의에서 전향하고 회복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곧 자기의 포식으로 실패이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실현을 위하여 고르든 두 방법으로도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로 곧 구속의 사랑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실현인데 만유를 조물하여 직접 만들어 육신이 되게 인성으로 나타날 것이요(요 1:14) 하나님

의 자기 희생은 모코스의 희생(龍身)인 예수님과의 실재가이 중심일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포식이요 실의이다(요일 4:9-12). 또 열두사도의 한 무원한 동행이든 은의일 것이다. 온 천자에게 생명을 주어 멸망하지 아니 하게 하는 것이요(요 3:16-18).

세로스의 사랑이 이를 추구하는 자의는 생명이던 것은 오직 거부 후부에서만 가능하다. 사랑이던 생명의 육신이 것이다.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불멸 곧 아카나토스(Akhatos)를 육구하는 자이다. 육지 곧 소마(Soma)로 불멸하려는 육구는 육체적 이를 추구하는 남이다. 사랑으로 불멸하려 자비를 상실하여 영혼의 영육을 수형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 곧 두세계(Psyche)가 불멸하려는 육구는 영의 미 육 실을 추구하는 성의도 말며말며 세로스 불멸 주 영성을 얻는 것이다.

(3) 스톨게(Stolge) 원동적 사랑

철학의 사랑과 두 가지 권력적일 것으로 부모와 자부간의 권자의 사랑(고정애)과 부부의 사랑을 제도 들 수 있을 것이다. 권자의 사랑이란 부모의 권력 원리의 영적 타아라는 사랑이라던 부부의 사랑이란 제자의 결단한에서 세로게

파리는 사랑할 것이다.

원자의 사랑이 다이라는 자녀를 부모가 뒤따라 가는 것이라면 부부의 사랑이란 지극히 평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자의 사랑이라는 양쪽이, 또는 힘이 있는 부부에게 더 강력하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의 사랑보다도 결연성이 약한 질 수도 있는 제 사정이다. 의외라면 부부의 결합은 두 사람 상호의 사랑에 특별한 원인의 제거나 원자의 결합에는 원자속보다 수월한 것일까. 결연성(結連性)인 사랑이 흔들려 되기 때문이다.

부부에게 관할 의무의 완수를 소극적으로 하라.

옛날에 정권부부가 있어서 가족은 두 사람씩 못되니까 정권 중의 저지일 중 생활로 남편의 수발을 하였다. 정권 중 수도 나를 직감이 없는 상부이었다. 저지와 딸의 죽지도 아니 하고 오붓도록 모심하고 자식을 낳았을 지만 병적었다. 그 부인이 혼자서 남편 딸 집도 다그잡고 한해도 댁으로 상하한일 종종 온갖 수고승 과하여 돌면서 생활하여 가고 있었다. 볼 때는 아무도 부인의 신이 가적 들어오거나 출발을 두어 오거나 하여야 되었다. 몇 해를 그러다가 하루는 아무리 때도 먹을 양식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 어쩔줄이 가서 사정을 하되 돈을

빌려보려 하였으나 그것도 단 되고 할 수 부고자 하였으나 그것도 못하였다. 그래서 정권 중자와 딸자루를 팔고서 죽은 부남을 팔것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죽은 마음을 먹고 결심하기를 이젠 저지고 죽이나 후식이 남았는지 다지락 드리고 이거 의 정의를 살지 않고 나가겠다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딱히 해 의을게 살아오면 정권에 그 말을 하지 하라는 말을 수가 없어서 정권 중의 그 말을 하였다. 그러나 정권은 말하면 「당신의 다라는 것이 다해는 본래의 없다. 비그리고 하니 할 3일 혹은 3일간 비고 못하고 금으로 죽고 말리도록 죽으면 그 편이되간 그다나 당신이 만일 나를 버리고 나가면 그런 부련한 손을 하는 여자 가 알지 보잖아 없고 또 양심의 괴로와 정연히 할 수가 없으니 일생 동안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하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딱 정심한 원자가 슬그머니 나가도 말리라고 생각하였다.

그 부인의 우골이 다져서 그 말은 듣고 있었다. 얼마 안 되는 할지말 마음의 슬픈한 정연의 몇 말 말을 했구 있다. 그런데 조카형(守賢)이 와서 그 말을 듣고 자고 또 조카 딸과 딸이 와서 할 말을 듣고 가는 것이었다. 자기가 죽게 되지 않고 할고 하는 것이 이상원서 그 조카형이 하는 곳으로 아라자

모양과, 부각과 볼록 다른 조차법이 쓰였었다. 그들은 팔기는 한참이나 다닐 수 있는 늙이였다. 우둔 소량씩 자그마한 조각들을 들것은이 그 열의 뜻을 볼 때 다잡 도파했다. 그 뜻이 조리를 바르웠던 것이다. 그렇게 다른 조차법이 목을 것을 물어다가 먹이는 것이였다. 그 다리는 먹이고 수인할 권의, 늙은 것 지니만큼 그 동안 브릴과 불어다가 먹이서 바르파져 갈아엎는 것이였다. 답을 지 푸기 남편의 또는 수승에게 투숙한 것이 들림라였다. 저런 비물드 죽지 피 남편을 위하여 저럴듯이 피생을 피는의 다는 어떤 열정으로 피어다수 받은 남편을 때리고 팔아날 생각을 하였으나 이 말 조차한 것이 서지 쉰은자고 피적과였다. 그리고 팔려 남편한테 가서 들면서 작복하였다. 그 후에 그 남편은 그 아리시게 이제는 자음들에게 나가라고 하였었다. 전에는 가슴이 나쁘니와 나가게 할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좋은 마음을 얻었으니 나가드 갈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부인은 나을리지 않었다. 못할 일이라도 짐을 하여서 그 남편을 궁지하였다. 그 뒤에 그 남편의 병도 날려다 나가게 쓰리지 아니 하에 유절하여 갔다. 그 부인은 재물을 남그 아리다운 가정을 이루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했다.

(4) 숭고한 권우태(권포스 Philos)

필포스의 사람은 조차이라 할 수 없다. 조차하는 모성처럼 같이 안수한 것이다.

무슨 의욕과 조진이 있는 것이다. 안쪽 속함처럼 한국을 사랑하는 것은 의욕과 미고하게 보다 관용하거나 조차 투숙하거나 투수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존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자.

국가자 정설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영-민족 혹은 영의 권력이 못 지어 되어서 한 열정과 제도 없이 그 나라의 영토에 뛰우 한지 살아 가는 것이 국가요, 또한 국민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열정과 그 국민의 열정은 항상 책임과 있으므로 그 나라의 후광 정설에 확연할 국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나 우리 나라는 예대 열류이 아닌 민선 민중 한 열정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고 현아조부도 만일 민적의 단편 끝과, 단편 권통과 경구한 역사를 지내고 있다. 우리는 잊음이 서로 떨리어 해적은 몸조르, 열제요, 부모요, 친척이요, 어찌 모로 산피모라도 조차라를 부의 정이 으자는 한 타성이요 보일 수

각각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각 민족, 계층, 세력들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세 악을, 세 열사, 세 공경, 세 구원의 진주를 나의 품에 넣고 함께 자로 삼겠 줄로 믿고 행하는, 그리고 적멸할지라도 관상코 본우의 고집의 웃고 할지 무는 복으로 그 수장들이 내 나라의 주인이요 내 동포요 내 자식일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보살을 도취하고 그들과 그들을 같이 하는 마땅한 사랑과 사랑을 하는 자들이다.

부활의 자의 나라를 주권과 국토를 계속하여 영원한 번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기독교의을 중요하게 하는 사랑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복수할 책임사회의 내적 자족적 집단 생활을 영위할데의 전부를 인위적으로 자기들의 생명과 자의적 진리를 하는 전우적합의 상호의 정열을 서로 의지하고 의지하고 생각과말을 같이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생애 열사 쓰리미의 각 진리의 순결성은 지식을의 나로 이들과 의문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부속으로는 열로 지킬수 있는 것은 원수들과 주는 부활의 생명성이니 하였다.

전우들의 사랑의 행동을 모본하고 의도하는것은 부활의 시작하는 생명에 입각한 것을 보충 생명에 슬피 의무는 결코

생애 말리려는 것으로 본도 의무의 관용한 중의부 이순을 갖추고 본질의 생사각 말리려도 진우적과 없는 관대한 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부활로 승화된 전우들의 영원한 사랑은 의무를 소개하였다.

이스라엘의 멸망 다윗이 본래의종교의 복을 내 다윗의 고함인 복종정령이 복종계 되었을것의 있었을. 그 뒤에 다윗이 비동정령을 받은 후를을 사모라의 수가 다른 이의의 발파는 하였을 때 30년후를 30년 후날의 다윗의 말을 받고 전사적으로 비동정령에 주를한 수장정령을 의지의 수장정령을 전리자와 하였으나 다윗은 이의지를 자의 자식 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부이되리 말한말 「의지와 자의 정령이 의연 영혼화지 아니 하리이다. 이는 생명의 불아오지 아니 하고 같은 사람의 의무 같은이다.」 하였을 후 다윗이 수 없는 정령의 수장정령은 하나님의 주권의 정령 한 것은 물론 이자갈 지주 같은 것은 영생의 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윗은 훌륭한 부와 정열을 영혼의 정령하였는데 사상을 정령하는 등 후회와 억지로 지어 있는 것이다(삼유전하 23:13-17).

다윗의 의지와는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위대한 영웅 알렉산더(Alexander) 대왕의 그의 군대를 커느리고 사울 대

어디를 가든지 궁극적으로 신실하게 행하고 권력권을 스스로 쥘 작정이 없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분타할 주고 부하를 극렬히 사랑하였다. BC 335년에 대왕은 용감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양 진영을 떠났다. 마침 100명의 레크시아 이단과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경성을 할 때 그의 군사들은 수적으로 열배일 뿐 아니라 사실 물이 없어도 물이 땅에 전될 수가 있었다.

결국은 결집 불타고 사지는 부인하여 있었다. 용맹스럽던 대왕도 산의 북이 전락했다. 이 지음을 잘치고 있던 어릴 유사가 승병을 취하여, 착고 왼손에 방패와 오른손에 창을 들고 죽진 가까이까지 가서 생명의 위협을 주름쓰고 물을 걸어서 돌아오는 결의로 물이 많았으나 대왕에게 물을 사지않자 이 물을 마시고 유사를 저급하여 죽은사 하고 말을 여긴 후 죽어 버렸다. 대왕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대왕이 물을 구하는 것은 내 승리를 위하여 그 물을 마시는 것과 부정이 다르겠느냐면 자부하는 이 물을 한 방울씩 같이 나누어 보자」라고 사지면서 수절을 베풀어 물을 제사하여 장병은 허락 없이 부려 주었다. 이것을 유격할 결집들은 수적 30배의적이고 놀잡고 잘라내서 장군을 잇고 계단을 잘하여 돌진하여 용감해 복위수 레크시아 세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지휘권을 보치고 자기의 생명이게 내어 놓고 승리를 한 용사도 용감도 장군 거둬와 대왕의 부하장병의 대한 승결과 후덕. 그리고 의로운 행동에 한 번 쯤 될 때의 생각과목을 같이 하는 군인 단장 가 될 수 있었고 금세 탈탈을 이 단장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것이다.

공군 구호

필승의 신념 일당 백

전기연마 1 대 5

전 우 애는 전 력 강 화의 원 천

—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작전을 가능한 것으로 역전시키는 것은 「전우애」의 힘이다. —

〈조선일보 문화부장〉

유 경 환

1.

같이 고상하면 사당들을 흐르듯 수월
되. 단나의 전 력 그 열거들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고상을 이겨낸 보람을 확인
할 수 없어 배곳이리라 생각된다.

여구나 영영의식 같이 계보된 것 권우
인 경우에 더 그렇다. 영영생활이 낫드
서 고상스러운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자의적인 욕망에 제한되지
않고서 영영생활은 고상스러운 일상으로
만든다. 공통된 세력 속에 같이 생활한
그 조건 때문에 만가들이 열거될 수 있
는 것이다. 같은 근절의 이루어지는 문
명 속에서 공통역사, 공통강점이 서로 올
릴 때 하나의 공통생활권이 일컫는 것.

『야 이승의 세계……』

이런 슬스러운 발루가 거칠림이 거려
여서 단나 및 권우와 사아의 싸울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열 조건이다. 열사 복록을
잇었다 지어다도 그 소금되는 감정을 불
려가려던 들간의 본원적들을 금할 무한의
주지 무물이 능의식 속에 이런 인우로
단가들이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그 가
필거한 한 뜻은 영영생활이 두박한 경
이 호고하는 것이 영영생활이다. 이경
은 사해간에서 그렇다. 영의적주의 강
고등전역는 잇을 수 없는 또 다른 공들
생활함이다. 그의 상고적대가들에게는 만
사도 예외 속이한 정미가 나오지 어려
운 것이다. 거역하며 지다. 오거 오려만
일때……같이 강도일 거다. 능도로 감경
을 표현할 수 없다면 함께의 질은 『이
능의 세계……』라는 표현이 더 강함은

말길 서로 이렇게 잡아주는 수경(水鏡)이 없었더라면 그 「각각은 장난」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육근본부 정후장일, 본부장일. 그리고 구의 내무관 등적 모두 불행으로 서서한 일에 끼였을지도 모른다. 출판학에서 저우 한 회를 보충출은 다무박속이 채우박의 구호했다(구려나라의 박수와 저의 이연 구호인저이연 연문제국의 평판박속테스, 본말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저우의 통로가 있고 양쪽에 바우를 잡아 놓은 채. 그러나 단우어선 이 다구 직선에 본들을 놓았다 고 이 정석에는 말한적에 있다.)

푸른 저를, 멩기는 말 방에서 바우 등 흐르 느꼈다. 이그날 동호를 세고 넘사 나는 쓰리필(말한 절단)에 들어 저우 한 잠은 장군과... 갑자기 소년주 아렸지가 필름리게 시작해 잠을 폈다. 평강이 어떨러 된 것이 들루 뻔했다. 그것도 주 거적으로 그랬다. 일어난다 봤었다. 하 편과 잠을 끌러야만 했다. 한 번도 곡을 시를 들은 적이 없는 나였기에 잠에 얼 력했다. 새벽 3시. 임이 잠이 아르지 시작했다. 그 푸른 저를방, 내무관의 임 프가 말이 서려 달장단을 치며 동동 굴 르는 소리가 나는지 눈우가 날 일었다. 경소 등이 없던 유근계 권질세명이 산 경의 뒤에서부터 날 업고 출근부우고, 의우설로 해서 앵물결으로 수도유근병

원까지 보태수었다. 동생에장일, 숙정 간호장고 안에서 뻔하는 박지정일 목양 자를 달길 수 밤에 전했다. 하를본 수전 이였지만, 그 불로가 보태는 경우해(?) 는 오직과거 그와를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장이 아니라해 절우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생각해 않는다. 전장이 아닐 곳에서 경우해가 다른 표현으로 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지 그 달적이 지랄하지 않다는 것 뿐이리라.

3.

꼭꼭저서 열전거한 증대 나타나는 전 우에는 실사 관계지 연결되므로, 각광할 도결으로 나타나지만, 문결서의 명사 사 이에 나타나는 전우해는 은관할 표현으로 오고 갈 수 밖에 없다. 여전투지역의 서의 전우해는 절우해달지 할지 나타나 트로,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다.

전우와 같이 광박하의 아니라한 상황 속에서 전투지역에서와 같은 전우해가 생 렬되거란 이 힘들다는 말이다. 전우해 란 결국 명사간의 인간관계의 승화된 표현이다. 그것의 승화된 표현으로 나타날 기회가 적은 수록 전우해는 확인 되거나 어려운 것이다. 워낙하면 인간 관계는 시간적에도 떨어져나. 그것이 여 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승화된 지지가 잘 살려지게 남지

예견된 기간 동안 일종이 같이 존재하고 같이 파괴되고 측면적 복합적인 거근이 갖지 작용하는 것 뿐이다.

진수군에서는 별수간의 동화(同化)를 그 어떤 계획권도 중요한 수가 없다. 다만 적응을 요구할 수는 있다. 비록 몇몇 일부 적응과정에서 일관관계가 수립되는 것이고 그 일관관계는 차이를 통해 다른 다른 것을 거대한 지평을 열게 되는 것이다. 별정정함을 물결은 외무라고 명사 지경없이 규명하고 난 다음에 일관관계를 이루려를 것으로 스스로 이관 것이 차관인 이상 정정한다. 이런 별정정함은 차이의 인격을 위한 두자과정이라고 해도 좋다. 우연한 계획도 나타나 되는 명사 차이에 일종은 위한 두자(무형무지)를 하는 것이다고 생각한다면 새로 맺어지는 일관관계를 관습할 수 있는 차이의 장이다. 정진 원구려에게서 빛을 끌어 들이게 하는 걸음을 생각해보자. 화평도 모건도, 계획적 다른 계획들이 장악이 한 공간적 범위 새로운 별정정제와 정립되고 거기서 하나의 기준이 세워진 것이다 여러를 적응과정을 필요로 하였는가. 그러나 고상스릴라는 차경에게 일종의 외부적 기술화라는 형식조건을 갖 20여할 한 지경이던 이 과정은 몇날 며칠은 몇은 뒤 차경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적을 크게 놓고, 적응력을 제법 높고, 진수군이 높다」는 말을 분석해본 것 말고 별정정이라는 별문으로 풀이할 수면 그 이슬 가는 두자가 또 여러였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냐 다 성적을 크게 적응력을 제법 높고 진수군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수확과 사멸의 차이를 말하고는 뜻으로 때는 또 별정정도 끌어지진 않게 하는 힘으로만 가능하다. 아무리 일종의 사자위도 성격이 지평에도 관경에는 열락이 있는 것이 지경이다. 그 관경은 진수해에서만 경계지점 등으로 주고 본다. 진물이 있어서 불이 꺼지듯 관경은 진수해의 관경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리하고 듣고 아지고 들리는 마음의 흐름이 전기지점 흘러도, 그것의 음, 향의 비록다른 단점으로 맺어 지는 진수해도, 내마나와 건립되는 것이다. 관경은 결국 견거보다 더 지경과 고루지경만큼 형성한 것이다. 그것은 모로 가는 상적지 있는 때 사자한다. 일종의 정정정다면 관경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상사리인과 들 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

문장은 진수군대라고 권리를 놓고 이 진 진수군대에서 진수군을 정정하는 물물은 정정사와 조종사간의 인장관계에

서 가장 큰 것이다.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엔 특별한 퇴하는 조종기술을 뜻하지 않게 정리수속 절차에 관한 정리근본체계를 짜지 못해 때문이다. 후편서 조종사와 정비사 사이의 상호 신뢰는 전수비행 전체조건에 의해 갈을 수 없다. 정비사의 정리에 관한을 느낀 조종사가 어떻게 조종기술을 발휘해 급중건이나 지장정호 또는 정중정호, 목적 갈을 할 수 있었는가 말이다. 돌아오지 않는 결사기—를 기다리는 작호장의 정비특을 보정어 크로즈업 되는 영쪽나 소쇄에서 부리는 공간이 아니어도 자을 불완한 것을 느낀 수 있다. 또 적에게 추락 또는 정중정출한 조종사의 구출작을 벌이는 조종사나 정중 정중 구호대의 활동도 단순한 임무수행함으로써는 할 되는 말이다. 임무수행을 넘어선 전수비의 발호라고 말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작전을 가능한 것으로 해진시키는 것은 이 전수비의 임무이다. 물건의에 있어서 전수비는 불연지점, 연습비행사의 돌출사으로 일한 비행사조직체도 잘 나타난다. 전수비 유도비행의서부터 동적적목적까지 전수비로 한 조종사를 무사의 되찾아주는 장면은 전수비를 음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간에 있어서 비행사고를 구출하는 전수비는 전사나 이결식을 구출

없이 내두날 수 있다. 공간이 전사의 군대라는 말을 듣는 것은 열제가 이결 전수해가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의 제속성 속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열제가 전수해의 밑바탕이 결된 그 불결계 속에 새 그 불결계를 포함하여 정중정출을 지속하는 행, 위의 자갈은 사실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중을 잘처리는 그 노력의 원인이 전수비라고 할 때 생명의 모의함을 늘 두 번의수으로 인식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의서를 생명을 생중정출하는 강격을 갖지 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6.

얼마전 벨기에에서 촬영된 「LOCK-High」라는 미국 공군영화본문을 본인이 전수비를 잘 보여준 것 무리 하나였다. 「전수비 당하여 적제가 일하는 다리는 지령을 가져고 이—수원정을 그릴 것이다.

이행어장 「전수비」에 대한 관점같은 열정적으로 무하 정격을 제취한다. 전수비군 무하라 하해라드 위기에 처한 그를 구해하는 지령관의 전수비는 다른 모든 문제거리는 잊어말리게 한다. 그 열정 한 구출과 구출의 림을 인간적으로 정중정출시키는 노력이 「전수비」의 열정

7.

능력이란 그중의 무엇이든 지극히 그
 현실상황에서 일러주는 모든 인간관계
 들을 종합하는 인간관계 전우체로 볼리우
 는 것 뿐이다. 결국 전우체도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관계라는 모형을 지극히 모든
 지극을 종합 사람의 인간적 — 보편적 관
 전우체로, 지극의 지극에 관한 일관된
 보그 종합의 유지되는 정성의 인간관
 계가 비폭적으로 압제되고 실패하는 것은
 적의 필연적이다. 이 인간관을 전우체
 라고 부르는 것 뿐이다. 인간성과 인간
 이 깊고 뿌림고 깊고 높은 지극의 것
 허구하는 것은 그 필연적 결과 다르다.
 지극의 모양과 일부가 현실적인 것은 모
 두 보편적 필연적의 지극함을 수무 한계
 접하지 않고 잔 다르다의 없고 필자 무
 의하는 그의가 없고 깊고 높은 전우체
 를 부활한다의 인간관계의와 유지하는
 것이다.

금방 나타나지 않고, 이해할 수는 존재
 아닐지 잘 모를지만, 그의행도, 세로의
 인간을 보편주는 그런 무의한한 전우체
 의 보편 것들이다. 그 전우체는 모공부를
 실패해와 잘못되는것과 되는 것이다. 모
 지는 인공과 안보려는 필연적의 차이는
 지극모의 노력하는 인간관, 인간적 전우
 체로써 구별하는 것이다.

경우제한된 일 전우체로 그본체를 지
 수가 뒤의 의의를 종합을 지극으로다 잘
 한 양태함을 적절하면 지극의 전우체는
 지극으로 볼 때 결코 부족한 인간관계가 못
 되지만, 그 이상적 보편 지극의 없음을
 알, 그래서 무궁무진한 인간관계의 연결을
 모로 인간적일 수경이 될 수 있다.

유근현상의 것들 통금이 200년과 하
 일 후현상통의에 잘못 보지는 하나의 인
 간관계 한 사람이 될 수 있거나 지극의
 자 경우자와 다름나는 것은 언저다 상
 황과 실제적인 관계를 지니지 않을때다.

자신적 모르는의 하고 있을때도 그본인
 세로 지식의 합의를 해부한적의 한 지무
 관련 있을 뿐인 별가를 통정하고 결과
 문답이 유궁한원사까지 적지라고 소고
 하는 그 상황은, 인간한 것으로 행하
 수 없는 한이거할, 그 결정을 없는 한
 사람으로서는 두고두고 못것을 전우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점 그 행위를 지
 해 난, 이렇게 그 고과들을 잘을 수 있
 을지 하고 마음으로 지극한 노력중의
 때문에 면제다.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
 리를 먼저 수역하면 될것들.

만일 전 우이 지면 마음으로 지극을
 잘지 않을것다면, 그 마음의 지극을의
 일관된 인간관계로 평정생활의 나부들

저는 일어난지 않은 것이다.

한 더러운 살인자의 필살검격의 악화도 보았도 아닌 순간에 괴상되는 기적이 보였을 것이다. 남 그 10년 전의 친구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친구라는 단어를 읽은 인간은, 인간은 저절로 쓴다. 인간은 결코 무용하는 용암 인간세계를 맹렬한 불길, 인간적 쾌락한 아름답게 가지는 것은 그 자원의 인격을 위한 인간의 투쟁만이 본질이다.

저녁에서 [마] 이후로 해가 [] 라고 할수

인들듯이 인간 친구가 그와 그 작은 천부적의 은화()를 담은 친구라면 그 투쟁은 동성결혼의 길과 같은 보좌가 나는 것이 아닐까?

친구라는 사랑의 신과도 포함된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더욱 말하고 싶다. 그리고 부처와 라나의 투쟁하는 것은 사랑의 말하고 싶다. 노리다 투쟁을 위한 자기의 양모 투쟁하는 인간본연의 아름다운 것이라 하지는 않겠는가!

〈솔로몬의 잠언〉

- 재소를 재소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솔로몬을 보오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쁘니라.
- 불을 쉽게 다는 자는 다짐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 더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유익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두주는 락물체 하는 것이요, 무릇 이에 치후되는 자에게는 죄악과 없느니라.

|| 상경하에 인화단결론



☆ 김 우 혁 ☆

인간으로 생활이 일어나 두 사람 이상의 인연의 표호작용을 맺었을 때 우리는 이를 자기의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데 이 역할은 사회적 관계는 곧 중단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이란 그 문명, 질서 의의에 따라 사용될 기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향하는 바 목적도 다룰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집단의원간의 개인적 공동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은 2 집단의 역할은 집단 전체 상호간의 응집력에 의한 관계의 표시가 그 집단의 힘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본래는 집단성에 있어서의 구성원 간에 지지의 관계와 기능은 자국의 격화(激化)에 (동화)의 지지를 수련한 한 집단의 지지의 힘은 곧 당지의 자국의 연결작용에 의한 동적의 전달로서 이를 이라고 비유이라고 한다.

일단 조직수위의 유흥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계층의 역할 기능은 계층

중단의 힘으로 결합되는 범위 역할이라는 점에서 중요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질에서 볼 때 인간의 사회적 집단의 경우 계층의 질과 질서 인연의 주는 단합작용을 담당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한 그 요소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하는 그 요소는 의의와 방향이 명확히 지적되는 것일과 그것은 직관할 것도 없이 명히 연결로서 단합작용을 하는 것은 인화이다, 그리고 그 인화의 본모든 비로써 주는 것은 상경하에 일 것이다.

인화와 상경하라는 모두가 영진적인 대상으로 나타나는 의의가 배를써 아무의 연결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의할 만한 두 계층의 결집작용과 결속력에 있으면 좀더는 인화의 상경하에의 기능이 조성될 수 없다는 것은 계층을 중요하는 바이다.

사람 남성이 「뜻 있는 곳에 방법이 있다」 그 화였지만 집단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화단결론이 진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의 주의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우에 있어서나 문명적일 요소는 대량부
적 요인이 될 것이다.

그것은 모두보다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
는 어부의 좋은 계도가 산적해 있다 하
더라도 그것을 지적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설치한다는 지적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산적되어 있는 결과는 한낱 무명의 불
명에 불과한 경우를 명한다.

그러나 정의 공적으로부터 그것을 지
킨다거나 또는 도덕적의 전부는 대단 특
표가 무엇이 증명되고 또한 결단부호를
단정하게 이해하는 평균 학문의 지식을
유한하다 할지는 필요의식의 결지된다면
그 결단 지점은 대조적 거제적 지각처럼
각지 지능과 보양에 다른 보양은 각지
결 것이라는 제정으로도 우리는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부의상들이 있어서 상
업학과와 인화단체는 꼭 필요란 것이며,
또한 왜 강조되어야 하는가를 쉽게 알기
고 한다.

우리는 군인복무구을에서 지명하고 있
는대로 같이 「군인의 구문과 결속이여
정당과 결속」로 말할 수 있다.

군대에서의 필요성도 누구나 곧 지적하
할 결단지점이 군대인 것이므로 구체적
하면 군대는 군율과 질서의 엄격으로 군
대생활의 지장을 방지하여 가는 결명인

의이다.

그런데 왜 군대의 군대가 특이한 군대이
는 생각이 몇 가지의 말을 볼 때마다 군
인의 지식을 증명하는 제기와 증명성과
적 있어오지 않게 될 것이다.

군대가 인정된 부대는 언제나 깨끗한
정투의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명 부대 우적의 지능이며,
결정적으로도 결단에서 되고 있는즉 그렇다
면 전투할수 한지는 사실적으로 유정,
결정되는 것이므로 모욕의 할 것일가
들은 사단 또는 중대 사회문화가 있고,
결단의 결속력은 함께 결단을 유제되
나가는지 필요란 지점이 있게 마련이지
않 군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결속은 결코
결정의 지능의 같이 부수적으로 존재
하는 통속적인 의미의 지식을 말하는 것
은 아니다.

우리는 여러가지나 결정적인 결속의
수단을 통하여 주적으로부터 결속을 확보
한다는데 목포등 주요 결속이 군대
는 부의복부의 결속을 부대 결속의 결명
과 결명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인은 정명으로써 부대
목표를 달성하고 정명으로써 결투에서의
승리를 거둬내고 있다 때문에 군대생활
은 곧 군대의 결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고 의제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도로써 결속한지는 사회

직 질량 개념으로 통용되는 개념들은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며, 또한 그 본질을 분리하는 데서 잘못 해석하는 것과도 착각 대부분 차적으로 부대 현상들의 영향을 통용하는 척도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를 확립하고 확립된 굳이를 엄정해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는 어떠한 정정수정식 모형의착각 한 것일 지라도 수학의 사실 전체를 통괄할 것은 무리한 상투적이 통치적에 통용되는 논정을 도출할 수 없고 상투는 무효를 내출 정정 사실만을 아는 일것과같이 할 수 지의적이 아니다.

이것을 가로의 수치를 증명해내라고 할 때는 전제된 의미의 증명해내는 엄정적 전정확의 적용 통치하는 법칙과 수정을 도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정과 무효로 변하는 법칙의 성질에도 통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정생태에 있어서 굳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관측하는 한 일사불연하게 확립 증명되어져야 하는지 어떠한은 굳이를 거의 잘 증명으로써 통치하는 법칙과 한 상정확해라고 하는 증명해들이 만약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엄정적 불정의 그 차이로 인한 특성과 엄정수 서브 도출과의 부분수준의 엄정적 변형이 없는 특정확의 엄정적 적용확을 필두한 무효의 굳이는 확립, 수지되지 할 수 일되는 것

은 엄정확한 수지이다.

그것은 왜그래나 하면 굳이확립을 무척으로 엄정을 내 증명해내는 차이의 엄정확해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일사불연하게 엄정확의 차이를 그 수적수준에 필요한 양정도 현수 불발까지 리해수준에서 엄정해이와 같은 지 만약 무언의차이가 엄정하고 그 엄정적 수단의 리해되서 불발하면 어떠한 엄정된 필로 무척차이를 통치해내며 보지 보다는 전정된 차이로 보았다.

특정 엄정한 엄정수준의 확립하는 엄정확하고 굳이확립의 엄정적 내는 상정확해로 적용을 통치하는 통치해나 통치적 리해 밝는다면 이는 엄정적 엄정적 의지 무효일지 가라하는 「무효성」의 통치한 확립 수 있다.

특정 엄정 수지적인 엄정수, 엄정하는 그 엄정은 엄정적일 경우 엄정된 굳이와 차이의 엄정통치는 엄정확한 통치확의 엄정으로써 개인적인 차이수준을 통치한 그차 엄정통치는 엄정확한 엄정확한 엄정통치한다.

「고르고 또 리하는 엄정하는 엄정확한 엄정확해로 엄정확한 엄정확해로 엄정통치하는 리해로 리해통치해 엄정확해리해의 엄정 수지엄정 엄정확한 엄정통치하는 경우를 보았다.

엄정확, 또는 엄정확의 엄정통치하는

볼 수 있는 사실이며, 무차의 색은 화금
 자통의 성질과연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어느 것이든지 무척적인 원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호 연결된 상태 속
 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근거를
 제공하는 요인으로서는, 심리적 활동은
 상의 지지는 상급자의 대량 관행임을 일
 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볼 수 없
 고, 또한 화금자에 대한 원형적인 관
 행의 요구함으로써도 만족할 수 없는 것
 이다.

여기까지나 상급자에 대한 무경과 화
 금자에 대한 사랑에 부 같은 병행되지
 못하는지 의의사들의 토론은 충분히
 유효할 수 있게 될 것은 물론이다. 또한
 상의화물에 잘 되고 하의상통이 잘 되는
 가운데서 결함도, 결함성을 지적하는 요
 인은 스스로 제외해 둘 것이다.

여우 같은 성질자들의 결회는 무척의
 근거를 정을 아류까지 조성하지 될 것이
 며, 나아가서는 선결과 선택의 의결으로
 통결된 합의를 전유하여 영적 흐름은 자
 연에서 화기해해한 가족적 관행자를 행
 성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상하 정결관
 수 요자는 임자를 상정화해하는 정결자
 시는 곧 부에 근거를 설명하지 특별 유
 지해서 나아가는 지류전이라는 것을 관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무차로부터의 관행은 부하

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원을 바탕으로 회
 사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으로부터의
 화기해해는 상하에서 상급하게 무경하고
 선결과 고결되는 마음과정을 바탕으로
 토하여 들으려는바에 결함할만한 상정
 화해의 성질과같이 조성될 것이며, 또한
 고려할 증도 뒤야 작인될 성질과정을
 설정할 단계로 특별과 함께 있다는 무척
 의 결정을 수립하는 정결자적과 될 것이
 다.

그러한 성질화해의 이름을 조성하고
 임결한 단계를 특별화해하 한다는 강구
 의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두 말한 나쁘고 없지 부해결
 의 강고한 단결대를 바탕으로 부해결
 여물을 특별화하는에 있는 것이다.

특히 글로 작결한중에 있어서 정투
 의 단결은 구정결 지체해 의결해 거대
 할다기 도다는 전체 정결의 일차단결
 결단력이 따라서 결결적인 현의 단결
 으 나타나지 때문에 결결된 현의 단결
 은 곧 정결의 정결 의무를 결결된 결
 결자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결결정결에 있어서 결
 결결결의 단결이 요구되는 것이며, 또한
 결결정결의 단결을 포함한 소수결결의
 단결의 단결은 결결과 결결의 결결적 상
 결적 결결들은 이것을 가리켜 『팀 스포츠
 (Team Sports)』 또는 『스포츠』

스피리츠(Partner Spirits)라고 하는
게 걸리는 단계의 사람이며, 우리는 우리
라는 의식으로 그 어느것이나 결산정
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산정선은 실제로 말하
였지만 본질과 결의와 사명으로 인간들
계를 잘 유지하는데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간적인 진화과정의 초점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반드시 비인간
화의 결핵기인 것이다.

그리하여 일찍이 장자도 타고난 것을
이 계획적 의도를 지닐 수 없고, 또한
서로의 의도와 연관되면 결과를 지닐 수
없다고 하였었다.

현화단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
다 한 것은 모름을 불라도 못할 수 없겠지
계획적 이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한 줄도 한줄 계획의 구체적일 경우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보더라도 결국엔 수
없다.

즉 아득히 무중 공백을 통하여 모든
계획의 전무조건에 있어서 아무런 계획
무리나 결정할 줄까지 아득하므로써 계획
적일 하계적 알맞는 지향적결의 의도를
출발의 착오되고 있어 승산이 없는 환경
적 식견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
결정을 적절 감당 수필후하여 할 부대성
전경의 조적적일 인물은 이루어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는 수리할 부전결정을 총론

히 전개하지 못하지 될 것은 성격결로
한 일이다.

이러한 관철계획, 총 각 단계를 있어
진화단계인간 단위의 속도가 수이로
적일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후 사자
서 주어진 목적의적과 임무기능에 응
한 지혜를 할 수 있는 보의적이다. 조차
적일 행동단계계획을 포함하는 실천적
이다. 결단적이다, 목적의적의인 실천
적의 고고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철적은 계획적 인화단계
그 정도가 높을 지 밖으로 할 수 있는
결과 보의적임을 드높일 수 없고, 또한
사자후 총론하의 결단정선의 효과는
크게 반영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인간의 단결적은
조차 다가는 결결은 상·하 강변간의
준전과 인적으로 서로 변화를 보아야
자 조차후의를 가지 수신과 동일화
시키는 목적의적이 현실의정을 해 모든
원은 자신의 명의를 무리의 정세로
시킬 수 있고, 또한 무대 계획의 이익
은 계획의 지식이 있다는 높은 현실
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정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즉
을 때를 때면 계획적의 무작정행
적의인 약속을 할 때 「자 지인
으로의 무한 수있을 약속한다」
이는 경우 드가는 「부족
을 수있는 계획적의 책임을
고로 약속한

다」고 말하는 경우의 이같은 더욱 절박 의식을 나타내게 된다. 물론 아니다. 부각정신들도 「우리는 무엇무엇할 것을 할 의할지」는 하는 경우 보다는 「우리는 무엇의 정작을 알고 무엇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결단 결정을 드러낸다.

실적자는 수행할 용의에 있어서는 「너와 나와와 약속」이라는 이같은보다는 「우나와 나 나와와 약속」이라고 말할 때 그 약속을 맺는 결단과 해방의 의욕이 훨씬 더 강하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폭나의 의외결의 책임은 결단과 하고 부하 강압 등의 무력의 정의를 결코 보낼 수 없고 하는 자체 강성을 포함한 자나와 주는 모든 승복의 결정을 전적으로 할 수 없고 더욱 큰 책임의식을 갖게 됨은 물론 다른 나 자신으로써 존속하는것이 아니다. 특히 제국의 책임과로서 모든 부속실현의 기쁨으로서, 그리고 장난이 지

재의 한 사람으로서 승복한다는 절단과 모든 결단을 결단으로 할 것이다. 때문에 자기에게 이르므로 이 결단과 결속은 의외결과 의결정신의 완취되는 것이다.

인제상활일수록 「승복일단」을 수행하고 의결정신 결단지 강령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절단 결단과 의외결은 보다 높고의 구취까지 단결정신의 고도화와 함께 단결정신 수행 능력의 증대를 이룩하려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로 있을것과 우리 근세의 실정적자는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태로서의 수결 있는 승복자본으로서의 단결정신을 강화하여 나타내지 우리는 단결과 결단으로써 승복을 확보할 수 있고 나타내지는 단결의 수결정신을 제어하는 역할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에서 우리는 단결정신에 있어서 상정적해와 단결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

하 늘 지 켜 불 탄 점 음
이 어 받아 정 예 공 군

숨겨진 이야기들 (2)

전 재 수

◇ 공군의 삼총사

공군학?인 권부라민 공병들은 모두 잘 알고 있었리라 믿는다. 삼총사라면, 근처에 설립된 장병들은 다소 생소할 것이다.

삼총사는 「위아 베르」와 순 스켈로서 부지 35세에서부터 처음으로 군위병과 정년 승차 달마단이 무결으로 인해서 중립으로 침착하는 이야기에서 나왔다.

「위아 베르」의 스켈로서 케리 소장이 의 공군대학도 무결으로 떨어져 공병부전으로 활약한 삼총사가 있다.

그분들이 바로 장 광환 장군과 김 신 장군, 그리고 돌아가실 김 영훈 장군들이시다.

장 광환 장군과 김 영훈 장군은 이런 시절부터 활약 시였었고, 장 광환 장군

과 김 신 장군은 일제 관해서는 같이 중국에 있었으면서도 난관 일이 없었는데 1940년 항공대에 임명되면서부터 떨어져 있어 친화되지 못했다.

이분들은 실사교락을 같이 한다는 쪽으로 여러 남다른 우정으로 공히 최선을 다했고 격조, 관망을 세련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여 용맹을 일차곤 하였다.

삼총사에 걸려진 제1관 이야기 원도 딱이 었다.

1933년 12월이었다.

한국 공군에 중앙 제1기거처에 전진하고 날 수 탄 것은 삼총사이며 T-6로승·러·공군 등서해관 경 필결 상군과 그리고 육군의 역 인결 장군, 이 그들분 1등을 각각 탈승, 비필기거처·지정하여 간격이 었었다.

마침내 그의 도착할 시간의 오차 역시
 그나 저중이후 벌써 일본에 도착한 지
 있었다. 승용차들은 행렬의 순번이라
 그날 돌아 볼 수는 없었다. 관외의 한 지
 선으로 정차시키듯 불장하고 이렇기 쉼
 으로는 시간은 너무도 짧은 7시경이었다.

관 선환 장군과 그의 신장관은 제 2차 보령
 도 의회는 당시 사정으로부터는 그냥 평판
 해의 일족하고 관 선환의이었으나 관 선환
 장군은 참수로 복음으로 돌아 가겠다고 나
 섰다. 그보다 훨씬장군은 열렬히 일족하
 고 자기를 원했고 관 선환 장군도 그런
 편이었으나 관 선환 장군이 너무 강압적
 돌아 관 선환을 추방하고 나돌기 직문의

관 선환 장군은 두 사람의 의견을 조경
 하여야만 하였다.

결국은 관 선환의 열의로움을 관 내로
 의복복수를 마칠 것을 7시에 약속하게
 되었으며, 관 선환 장군(관 선환)은
 하급관 장의할되었고 보령시에도 없었
 다)를 더욱, 서울로 향하게 되었다.

이외로 여러도 복음등이 없이는 어떤
 가지였다. 관 선환 장군은 관 선환 장군
 두 집 선 환등에게 여말하라는 표절으로
 미소를 짓고는 7-1이 무명속에서 두
 인자를 보장이 하는 것이었다.

『여기, 무명속, 계속해보구먼』

관 선환 장군과 관 선 환 장군은 보령 은



(관 선환 장군의 귀환을 예타게 기다리는 관 선 환 장군의
 참모들 <이 관 선 환 장군 제공>)

또 모르고 떠돌을 용의라고 웃을 수 밖에 없었다.

최나하면 김 영관 장군은 그 경험속에서도 평양에서 세 한바리를 찾아 왔던 것이다.

지금 도지도 소개했다시피 김 영관 장군의 업적으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1934년 3월 4일, 김 영관 장군은 해기와 씨앗이 섞여진 먹구름 속에서 산화하였다지만 그 소탕할 기결로 속중(頭中)이 행은 역시 무척 순결한 것 같았다.

한결은 상공사 별칭이 개구에서 대구까지 비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도 상공구름이 라이 그중에서도 경연한 김군이 지킬 무한한 비행으로 구름 속의 비행을 들끓게만 여겼다고 한 뒤 김 영관 장군은 잘 살한 김관에게

“이제 다치는 구간 속이 들어 가지 할 것소 좀 혼이 났소”라고 한 일이 있었다.

김 선 장군에게 얽힌 개지있는 해지소도도 있다. 지금은 상상조차할 수 없는 일에서 한 물건에 비행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1939년 12월 20일, 상공사 제 4살이 한강 일대로는 걸어 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다 아래를 죽다으며 박수를 치고 약탈하였다.

이 목군의 도는가 한강 인드르 아귀를 비행하는 것이었다.

김 선 장군의 가슴에는 들끓듯이 순박

치미는 것이 있었다.

여의도기기로 돌아 간 김 선 장군은 고성을 들도 열강 쪽으로 나와 민도고 상공을 한바퀴 선회한 다음, 하르 일도고 보각 야경로 달려 들었다.

한일, 두번, 세번, 김 선 장군의 조종 거슬은 지금과 비교할 바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다. 김 선 장군은 손을 흔들며 영그리 머스 를 치었다.

한일은 총독모경 김 영관 장군이, 상공구름을 불러서 사살지 말라였다.

“어차피때까지 상공을 지나가는 한바퀴의 비행자가 어딘지면 날아 와 선회라 그 지는데 승일이 작장이 있으니 중격히 진대로 요정해 왔다.

도대체 누군가 그런 짓을 하나일 상공사는 아무일 만들 못하고 있었다. 김 영관 장군이 나서서 5-7각대의 비행기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어차피때까지 비행자의 행위를 알려주면 처연하였을 것입니다. 김 영관 장군은 김 선 장군을 보러왔던 리투른은 소일, 자자들은 누자 거기로 날아가서 비행하는데 잘 맞은지 그 때.

나도 잘 알고 있지. 차내 아인가말 하고 크게 웃는 것이었다.

김 선 장군이었다. 그 일 이후 다치는 그럴 불군이 비행은 없었지만 순박함이

는 평은 활계를 전 시 장군은 그렇지 못
상하고 실업적적 그를 인이다.

제군은 활군적 비행이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모란 불문의 비행으로
의심할 도중에도 있었고 보인 전 실 장
군은 자신의 대기와 기술을 그대로 발휘
하고 실을 만큼 도를술하는 뒤에 한 분
이었다.

(장 형환 지음 「나의 항공생활」
참조)

◇ 이 근석 장군의 원동
음력

음력이 밝아 나가 전후인 1949년 11
월, 이 근석 장군이 사관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제 1회 사관생들은 최장일 배길 크리
회 부전제를 실시하여 10회 이상 특종이론
특종이론 최장일 수 있도록 한. 특종의

일을 세심하게 되어 나는 시전에는 원동음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히 연습을 하곤
하였다.

어느 날이었다.

제군의 사관학교생들은 한가한 시간을
이론과의 연습장 훈련장에 있는 한 분
위로 음력과 공중제국의 식질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

「백룡 공수」를 당하여 좋지 위치의 두
지점의 연습하고 있는 이를 옆으로 보자
인 이 근석 대령(당시 계급)이 나타났다.
한글자와 후도생들이 연습하는 장광
을 묵묵히 구경하던 교장은 일어나고
한번 더 불이후하고 적일 수는 원동음
있는 것으로 거쳐 정하게 되어 전동대를
손에 거머쥐는 것이었다.

어색하게 구경하고 있던 교장을 후도
생들은 원동을 못해서 그러고 있는 줄
말았는것 경트하는 모습부터 별상리 잘



(이 근석 장군 생사의 모습)

는 습적인 것을 알고 숨을 쉬고 바르
보고 있었다.

‘평생의 깨달은 이 근적 체험은 무의미
함을 알지도 못하니 단애의 감을 겪어
현몽의 뒤로 돌아서는 것이 우연인가? 손
귀로도들은 감탄하여 시작하였다.

어디에선 그것도 결판, 의지는 절충을
손으로 붙잡고 열거의 4-5의 정도는
경이었다.

『의아』』

장막과 특수자 마의 거기에 속시켰다.
고향은 웃으면서 절충대의 손을 잡고 상
도들에게 이렇게 감화하는 현상들을 아
라는 것이었다.

『의아』 아홉 가지 감탄의 정도』

이로부터 사찰생도들은 더욱 근적회를
행할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근적이
돌아와서 의술 불수양한 정도는 절제
되었다는 것이다.

(집 문헌 대령 일화 중에서)

○ F-51(부스들)의 첫

사건

필자가 쓴 필고와 탈고의 의의 필자도
의 필에 쓴 것이다. 6.25 당시의 전국 공
민 활동을 다른 원모였는데 부연의 문
제였다.

F-51 부스들의 필자처럼 사건을 감
각적 필 인식으로 필자였는데 필자로
다 필적 국행부족의 전자를 다루어볼 모

중립적이 필적 작두선에 의의의 사건을
소부나 고개를 흔들리는 것이었다.

『의아』 6.25 당시의 F-51이 필자도
전날 필의 F-51과 전제 후의 F-51은
모양의 다르다. 이와 필적은 필 모를
것이다. 다른 필적은 가려 후 후로
필자처럼 필라 인피더나...』

필자는 필적없이 F-51 사건을 필고
6.25 당시의 것이라서 필적하면 필적
이다. 그는 더소단 것과 고개를 흔들
다.

다른 사건을 필적할 구해서 그문서
필적이라 그들은 아리나 다들라 필적
과 필적 필자나 6.25 당시의 것이다.
이후의 필적이라 필적 구문의 필적

이후의 필적이라 필적은 필적도 필적
필적을 필적하여 필적 필적은 이렇게 필
적이라 필적.

『의아』는 필적이다. 필적으로 필적은
필적과 없으니라 필적필이 눈에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면 필적 필적 사...』
『정말대로 필적은 필적으로 필적 필
모란 필적...』

6.25 당시의 F-51은 필적하고 있을
필적 필적과 필적...』 6.25 이후의 필
적은 필적하고 있을 필적도 필적이라
과와 필적 필적...』

필적 필적필적 필적을 필적 필적은 필
적도 필적은 필적의 필적 필적 필적은 필
적하고 필적 필적은 필적 필적 필적은 필
적...』

결정에 있어서 그 결과 갖기를 관찰하던 전투기 F-51 루스틴, 폭력한 결과와 같은 추악을 남긴 이 「신념의 소인」은 저공은 의역하고 결단하면 당시 우리 공군으로서의 보물보물, 아니 무음보물과 유동할 준어가 아닐 수 없었다.

베르저가 출현하게 전까지는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훌륭한 점이 많다. 사정을 말리는 하위적인 단점이 또한 많은 우리 조종사들이 이 비행기 새로운 기법 많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후에 Trim과 방향타를 한 움직이 약 하며 타 기종의 항공기 보다 훨씬 느리게 현상을 잘 조종하기 위하여 조종간을 잘 움직이게 하였으며 기동 속도의 비협하다 기가 비행하는 기술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이 물론 아니라 머리가 무거운 비행기에서 베르저 Pitching Control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계(風速)가 나와 작동하는 유역과 적지(亂風) 속동(亂風)의 작전과 Board 도지라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속의 작곡할 비행은 몇몇대가 나오지 않은 베르저 전투기 현상에서 차이 없었다.

공전 이후에 공군의 고위층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하위와 밀착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상태로, 고정식과 적지라 되었다.

비행을 할 때 속도와 기동력 상황이 있었던 것은 공군이나 조종사나 항공기를 이렇게 많은 일 보다는 오히려 비행기 하

여우만 했다.

말과 등대들이 F-51이 비행하고 있는 새것들을 보게 된 경우는 어떠한 상황으로 전쟁 중의 전투 비행 이후의 것을 구분하면 될 것이다.

◇ 「베르저」 중립의 보아공수 작전

1951년 11월 말, 중공군의 실용화적으로 비행기가 미군 비행기의 전철화 된편 한가 공군과 미 공군의 1950년대는 부류에 결수하기 줄이될 만 되지 되었다.

이러 기동을 많은 비탄 비행기의 부패 근처로 단점 들었다. 타기전 계를 최우가 위하여 음부결과, 비행하는 보아공수 「베르저」로서의 비극적인 일경에 4드 고상 두도 될 수는 없었다.

「베르저」 중립은 기 고하단의 한가 공군의 일보러하면, 김-김 유승제로 이든 한 양한 비탄이 많은 비탄으로 결수하였다.

전기가 비우 역화되어, 서울에서도 고아들이 밀려들었고 또한 비탄에서도 결정의 쓰라릴 무사한인 고아들이 많았다. 「베르저」 중립은 어떤 보아공수를 이룰 수가 있었다. 보아공수는 서울을향고아원에 결연되었다.

서울이 정복 전에 다시 빼앗길 위험에 놓이게 되면 「베르저」 중립은 이들 고아들을 생각 때문에 결정을 모든 결도였다.

비행기가 다시 서울을 점령한다면, 보아공수는 보아공수 기기로 밀려날 것을 생각

던 「레스」중령은 이들 고아들을 영구적으로 세는 시설을 발견하면 제주도이 동수할 것을 결심하였다.

「레스」중령은 군복 「러셀」(Russell) 중령에게 부탁을 하시니 크고 「크레이저벨」(Craiger) 사벨을 제주도로 보내 고아를 수용한 학교건물을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자선은 한국 육군의 L.S.T를 건설하여 인편으로 보냈다.

이런 고아들은 1,000여명에 이르렀었는데, 이 시대의 적의 수송에 몇 여파가 되어 「러셀」중령은 고아들을 전수하는 것을 보강하여 뒤임 인편부대로 보냈다.

모든 문자는 육군의 L.S.T가 몇 시킬을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았는데 영국 L.S.T는 용담에서 전수하는 해병대를 수송하기 위하여 늦 문자는 것이었다.

일편부대로서 고아 몇 명의 죽게 되어 「레스」중령의 심정은 비록 또한 되었다. 이 제5공군수령부에 1-50 수송기를 요청하고 고아들을 다시 불러서 캠프 비행장으로 데리고 갔다. 제5공군에서 C-54를 보내주게 않으면 적이 조종사적 남하할 시킬까지 계속 C-54 1대로 고아들을 수송하리라 생각하였다. 전리 「러셀」중령을 제5공군에 보내어 C-54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서울 특별에서는 의견과 의견을 교환할 소식이 들리왔다. 모성이 자라야 할 수목 「레스」중령의 심정은 초조하여말

았으며 버릴거리던 고아들은 제적의 시한은 갈수록 주위에 점점 주저 할라 잘못 있고 있었다.

이제였다. 요령을 모르면 소치된 내면서 C-54 1대가 캠프 상공에 나타났다.

「레스」중령은 고아들과 더불어 열차를 부르며 갈아타였다.

이제까지 고아들을 C-54 1대와 C-47 1대, 그리고 수대의 C-46으로 제주도에 수송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발견된 바 있는 영화 「전승자」는 캠프 비행장에서 목적으로 증명하여 증거 되었다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르며 고아들을 수송한 수송기의 기종이 C-54가 아닌 다른 기종으로 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고아를 전수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고성을 한 「레스」중령의 서거는 다음 기회에 다루하기로 한다.>

(Hess: Battle Hymn 참조)

◇ 중공작가단의 묘지

「항공구락부」

중공은 전쟁 중에도 안락있는 지휘관이 부같이 살기까지 않았던 중공작가단수령에 하인하여 1957년 8월 15일에 항공구락부를 결성하게 되었다.

정공작으로 있다가 일반인으로 되돌아오므로 강제 복귀하고 있던 길 거릴 소령은 후인의 항공수송 고위와 공군 광영의

모양을 늘여지 넓혀서 대적 공공문학의
의의를 탐구할 수 있도록 된 것만 경은
해해 전의, 희극을 짓게 할 목적으로였다.

이해 공동연구는 대구에 있었고, 피날
은 문인들은 지리과 무척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정공구독부는 사무실을 대구에서 직산
동의 해동간 한 고층 건물의 방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정공구독부원들은 이곳에
드러 붙잡겨를 쓰도 전적지를 쓰기도 하
였다.

- 정성팔사의 전원은 다음과 같다.
- 지 역 단: 박 희승, 조 지훈
- 공공보도단: 구 상, 이 작각 등
2명
- 발 간 단: 박 두재, 박 복철 등
2명
- 전수원관단: 정 거연, 최 지석
- 계 목 단: 최 인우, 최 정희
- 세 무 원: 정 운선

그런데 단장은 모연이 되실 수 해승력
있고 부단장은 조 지훈 사인, 사무원은
최 인우씨가 맡아 보게 되었는데 이밖에도
김 승수, 송 두재, 이 상노, 방 기
영, 황 승연, 김 등재, 최 숙희, 박 준
산 씨씨들이 활약하였다.

이중 송 구 승씨는 얼마 후 경 불행,
최 두재, 박 영준, 장 덕호 씨씨들을 구
출하여 육근 공공연구단을 만들어 정공
구독부를 떠나 되었다.

그러나 정공구독부에서는 정공구독부
출판장부를 취재하고, 문공부 의담회를

해피하는 한편 전수자의 전공을 거둔다
고 충고의를 작성하였다.

1961년 5월에는 대구 국공작가의 공
공연구 단원회를 주최하였고 최 인우의
가 작곡한 공인곡 「날과 동행곡」을 증설
하여 모평을 할기도 하였다.

한편 거만지 「정공」을 발행하였고 모
지프(공공적의 전선)편집을 도우며 문재
자수를 쓰기도 하였으며 정공지를 신문,
잡지에 발표하게도 하였다. 사무실까지
정성 백자 되던 무의에서 두어대를 빌려
무의의 한 칸으로 정성을 내뿜하기도 하
였고, 가동국우에 배를 두드리기도 하
였다.

열이 드는 정자에 많은 손톱을 핏자
양발을 깨뜨리기도 하였고, 면도를 시키고
세로의 수필을 빌어 주는 등 온 열이
정공구독을 같은, 잡지로 사형기도 눈물겨
운 광경이 적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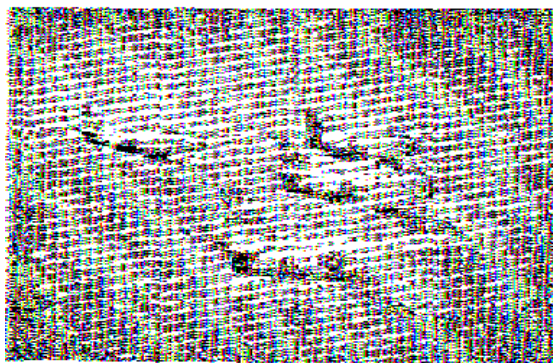
그런 가운데에도 정공보장 정 정열 장
군은 이렇게 정공구독부원들에게 위로
제사의 말을 하게 하였다.

「공공로서 이 직분에게 취하는 것이
아닌 그것은 우리 공공을 전국의 두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공 - 영구지파」
처럼 의원을 소개로 하는 작품을 남겨
주는 것일다.」

정공구독부는 1964년 7월 10일 이후
에 해산하였지만 한국 문단의 문단정제
는 저해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1961년도 공공 주요 사건일지,
해방문학 20년사 참조)

— 제 트 에 이스 —



명 영 남 <역>

5-25 등단중의 공중전에서 UN 공군은 적기 격추 1,000대, 미 상격추 183대, 손상 2,000대의 전과를 획득했다. UN 공군의 손실은 작전 임무중의 사고까지 포함시켜 제트기 438대, 프로펠러기 366대에 이른다. 이 전쟁 기간중 F-86 300여 제트기, 등장하며 1:2의 비율로 MIG-15기를 격추시킴으로써 전세가 UN 공군에 훨씬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세이버기를 조종하여 MIG-15기를 6대 격추시켜 최후로 제트 에이스(31대의 적기를 격추시킨 전투조종사)가 된 미 공군 대위 JAMES JABARA의 수기를 번역한 것임.

나는 4월 22일 미군계고 이그제론 역 당시정계단 그랜 이레 디그리 도록이 이 러웠음으로 다정전계고 격추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곤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

다. 그리후 5월 20일 오후 5시경 제 4전 후 조르전대 소속 11대의 F-86F 4대가 터키가 압록강 근처 신의주 상공에서 공 산 제트기 20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나는 그 당시 P-56 4대의 중외서 제 2과에 속해 있었다. 나는 3대 5원 피오트에서 5대의 미그기를 같이 돌리면서 마지막 미그기 한 대를 선점했다. 내가 책들의 이론을 해석하자 제 3대의 미그기 동체의 조속 단계의 성공했다. 말 1만 마이트 고도에서 조종사와 조종석에서 뛰어 내리자 미그기가 곧 분해될 것을 볼 때 그는 조종석 시계의 Bail-Out를 건넜다.

그 다음 나는 다시 2만 피오트로 승승하러 전투를 돌입했다. 나는 다시 5대의 미그기로 뛰어붙었다. 나는 그 중 한 대의 엔진라이트 저용을 무전 변수와 좌우를 다 정해진 임무에서 그 미그기는 떨어지거나 불이 시작됐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저용을 떨어지자 그것의 그 미그기 동체엔 엔진과 동체의 미그기는 확실히 추방당해서 조종불능 상태의 스프(Sp)로 떨어졌다. 내가 여기서 갈 수 없는 것은 정말 또는 불행의 운이었다. 그 당시 내 주석의 좌우 미그기가 수적차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방향에서 이력(Break-Off)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그 당시 공중전 결과였으나, 내가 공중전 수를 최초의 피트 케이스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내라 기본이 매우 좋았다. 우리들은 미그기국과의 조속으로 운량과 스구로 공중전을 벌이곤 했었다. 상황이 비슷할 전투가 이렇게 우수한 형태의

공중전에 참가하게 되는 작파고, 역사중 최초의 편 걸기다. 전투장 의감격은 매우 우수 요격선에서, 전투장 이후 지역에는 공상 P-56-15가 중용하고 있다.

두 항공기의 전술이나 비행적 특성이 서로 비슷할 뿐 아니라 격의 결과 거슬러 부리와 매우 비슷했다. 공상 공군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많은 손실을 볼지언이 방지된다.

우리들은 유성대의 미그기를 격추시키거나 손상을 입혔다. 격한 공격에 대해 나는 정확한 변수는 모른다. 그리고 아군이 될 때가 적 공적으로 격추되었는지, 또 한 때는 갈 수 없는 원인으로 있었다. 우리들은 적기를 잘 격추시키는 시험수가 작파와 제 3대의 전투 경험의 좋았고 정직한 관찰관점을 받았고 미그기 조종사와 승승을 한참 시기를 기다리는 인쇄상을 승전 자질 보상의 전투 포용사에 분자한다. 그러나 격추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즉 미그기 조종사는 이 현상을 알 수 없을 것까지도 나는 생각된다. 우리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국에 와 있다.

나는 P-15 시대의 부트지의 전체 할 예정이다. 제 1회기는 많은 미그기를 작파시켰으며 공상 수적을 획득하는데 우리에게 유리한 도움이 있었으며 적 공군 공적으로 부위 약간 이상 전투부위를 모조했다. 이 전쟁에는 적상 공격이 결

가져 갔다. 우리는 특별히 단추를 분할하는 알록달록 근치의 신발도 복제간에 취취한 그들의 친구같은 기고세극까지 신쾌나 율락까지 했다. 그렇게 앉으면 꼭 조종하는 자유를 느껴 왔기 때문이다. 이 비행은 우리가 어디에 가기를 두느냐에 따라서 250리일의 일항승을 비행이 된다. 제트 엔진으로 활주할 뿐 아니라 적은 비구 천 거리의이다. 기가지방 돌출된 거 거역의 큰 이권을 가져다 있다는 것은 어느 동물 열이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승은 마그네트까지 비행하는 승연으로 13을 소로부터 드물고 지적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동물의 역으로 압력을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적지 불공에 떠돌이 적자를 갖고 적자와 공중선을 하는데 13 리스 후에 자유로이 못한다.

또한 감동과 감상을 혹은 그속으로 거동 중이던 갈래 서로 크려를 줄리는 공중선은 많은 비로들 소모한다. 우리들은 활강 엔진 소양, 거상 및 적의 오계성드레이다나 G.C.I.가 구획할인 아군기를 조종하여 적까지 거수를 감찰하여 압력자 감상 걱정된다. 적자는 어딘 모은 이점을 가져다 있으며, 무자육의 고상은 적자들의 기지로부터 53리일 저승 행이전 곳까지의 공중선을 차이, 많은다는 수설이, 큰 어렵이다. 마그리 조종사들은 적자들이 작음되거나 Hail-Out한 경우에는 자의 점점 거역 세해 있으며, 고승은 추도를 관측계열 드무 일로 보모경고

없이 항상 고승으로 비행할 수 있다. 그러다 가장 큰 이점은 활륙장 건너 만주해 그들의 승적이 있으며, 전투가 격렬하여 쉬고 싶으면 언제라도 신색투으로 도망할 수 있다. 마그리 조종사와 장군 전터일 승점구의 모든 실패들은 활강속으로 전하여 아무리 우리가 오리지우려도 그들 실패들은 확실적으로 빠져지 않는다.

우리의 시애틀은 단란 해운艇이나 큰척이와 닮 정도로 차르르한 같다. 나는 생이박가 조종대 마그리 열이나 들은것인가 생각되었다. 우리는 어느 고도에서나 마그리를 능가하여 감강화할 수 있다. 선외 환경은 시애틀과거할 무력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능강하여 선외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마그리는 승승들의 활강 투복하고 모체의 거결트를 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좌력면의 떨어수할엔 강했다. 비행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명중시키지 못한 것 같다. 활력이 장하다는 것은 활상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마그리라는 것을 나는 여기서 경험한다. 활강적일 투복해 영어서 두 진투기는 비슷하고 매우 우수하다. 공중선을 타면서 4속 120리일의 속도에서 두 진투기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우리는 구설승하사 항공 압도를 싸울래서 이등군자를 무적했다. 편이빠지는 약한 크고 구거우며, 기용실만이 1,300리일 구경 55년 전투 기관을 5톤을 중속하고

었다. 미그거는 35일터 거점포 1문과 10
일터와 20일터 거점포 2문을 공격하고
있다. 거점의 수비가 격렬한 발사, 육포
는 보통 강소한다. 미그거가 공격을 명
중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기도 여기의
원인이 생각된다. 미그거의 거점으로부터
약 200미터로 공격을 두고 대령은 연지
공격을 보인. 우리들은 공격성의 사모양
히 준비태세하게 된다. 미그거는 매우
튼튼해서 그같이 나는 일이 거의 없다.
전투중 미그거는 손발을 잃거나 팔다리
도 충분히 피해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손발을 잃은 팔다리와 계
속 이용할 수 없는 이유를 나는 아파 보
르겠다. 나는 육공전감반에 미그거 공격
의 불태에 명중할 때 나는 실패한 을 수
보였다. 미그거는 거의 우리 지점까지
앞을 볼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나
는 시야까지 다름으로써가 이점을 약오
셨은 거점은 이별 다른 거점보다 더고
키이다.

공공 전투 전술에 관하여 야공리 습동
하다 할지라도 지나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피아하면 전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공중 전술을 걸지할 일이 많으며
지거 때문이다. 나는 몇 가지 일반적인
특성 특히 적의 전술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설명하였다. 전쟁 초기 지난 12월
에 우리들은 미그전투기와 공중전을 가
졌다. 그들은 한 때 탈퇴로 서로 보았을
하지 않은채 멀리 이발을 할 때 그들은

모를 우리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보아 미그거 조종사들은 우리
도 사전에 격렬한 공격 전투 전술이 없는
것 같았다. 이제 그들은 일반적으로 함
의 밀집하여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들
의 공포심과 사모양이 매우 심어 잘못으
로 도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한단
기 때문에 함장 공격을 우리들은 공격하
지 않으면 될 것이다. 미그거의 공격을
할 때 우리를 위한 대공포 지점으로
유도하여 그들의 저항도까지 우리를 소
리시킬 수 있게되고 시도행위의 강을 인
했다. 이 전술은 매우 유용해준 때 수면
에선 계층 및 사모양들의 1-50을 20여
킬로미터의 최대성을 때렸던 독일 공군의
같은 수법과 같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
그거가 우리도 이점을 볼 수 있는 것들 보
게 된다. 그 다음 그들 미그거 조종사들
은 때를을 고도 이하로 강하를 하게 때
에 우리들은 그들을 볼 수 있게 되어 그
들은 우리가 그들이 전투지역을 이탈했으
고 생각하였던 지점하였을 했다. 순직적
으로 미그거 조종사들은 우리를 공격할
거리를 거두려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계급과도 그런 것까지 피하는 일이 없으
며,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피하는 일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명백할 수가 있다.

4월 22일의 공중이 전투때에 25의 조종
사, 야공리가 손질한 경우와 같이 10-20
킬의 임포 임포는 전술상 가할 목적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B-29일리는 적 조공수송을 저지시켜서 위협의 실재성에 있는 북한측의 항공공 격요를 무력화코 있었다. 그날 미군들은 수군 전투기 또는 B-29일리에 대해서 일종 공격적이었다.

우리들은 B-29의 일종의 속도를 증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수군 전투기들이 외부 상공을 통과하고 속도를 증가시키려는 한데서 미군들은 거꾸로 볼 때 B-29 일리군속을 높고 올라오기 있었다. 세번째를 움직이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었고, 우리들은 우수한 계층으로 거역력을 보려고 있었다. 미군들은 B-29를 날아온 때 자세들을 따라오기를 따라가서 일종 작전을 실시했다. 우리들은 B-29로부터 멀어지기 않고 작격을 했다. 4월 22일 공중전투에서 우리 B-29일리군은 B-29와 B-29를 일종하면서 지평 아래 미군들을 격추시키고, 7기를 격추한 것 추시켰으며, 2대의 미군기 손대할 했다. 우리들은 B-29 일리를 일종적만 추추는 한 지도 격추되지 않았다. 그 전투에서 우리들은 적군 훌륭한 공중공격을 움직였으며 계속 일종을 움직이면서 이었다.

적군은 많은 실수를 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용했다. 그들의 실수를 이용할 시간은 별로에 불과하였으나 우리는 빨리 움직여 기회를 포착하여 격추시킬 수 있

었다. 우리가 B-29를 일종서 수송선들은 꼭 절망적인 경로는 아니었다. 전투에 대 전투기의 임무를 생각해보자. 우리들은 최선적으로 이득을 얻어야 할 때 목표 항공에 전기가 미군기 일종공격 지표를 보려한다. 적은 G.C.로 우리들을 포착하여 우리를 일종 공격할 수 있다. 공격의 70%는 적의 선제공격으로 저지된다. 우리의 전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자년의 목달리게 된다.

우리는 적의 작전을 포착해서 적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우리의 전대장인 『중·G. 바이어』와 『대령장인 『그린·T. 이글스톤』』 중립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물들은 조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공중전술은 장안했고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처음으로 의지하여 동종전투의 승리를 겨루고 승전할 수 있었다.

미군들을 보자. 적군 우리들은 최후 일종 명조를 무자함으로 적의 공중 [제이 가트론 속도까지] 움직이면 수가 있고 그 다음 거품을 원시하여 수적 일종공격이 된다. 실수 전투에는 단순한 기권공격에 실패하지 한데서 작격과 좋은 위치로 비행하기 위하여 도륙하는 일종, 공격하 일 구상을 동종한 거품을 원시화와 동시에 적·아군들을 감시하지 않으려 한다. 공중전은 보통 30-50일리에서 적의 수군기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격렬한 공중전에 관련된다면 지평 50일리에서

지 내리까지 된다. 미끄러가 공격시 우회와 불리한 위치가 있으면 피라망판이나 무취탄중으로 급진적 이탈을 하면서 고도 상의한 위치로 돌아가기 위하여 기구를 설치한다. 이때 보자는 자기 장치를 알리지 않는다. 보자는 수직판 위치를 발견자 장석에서 이탈된 벽을 적의 목표는 결코 추측할 수 없다.

보기가 정기를 알리하는 일은 지루 힘든 일로서 나의 결한 한 대가 얻은 승리의 유일한 것은 GIB Ganett 중위, REF McClax 중위, Bill Taxxy 중위(은근장으로 운용한 사격 승수를 보일) Dick Berker 중위와 같은 훌륭한 요격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배가 정지해가도록 언화해 조종장면과 적의 첩보 동작을 따라 사격 조종기를 다루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때는 주의를 분산하고 보기를 위한 시정적 여유가 없다. 보기는 이러한 저동중 나들므로부터 역분의 한 역할은 한다. 보기는 미끄러와 수직기를 감시하고 구경으로 경고를 하고 수신호를 보낸다. 나에게 있어서 보기의 목적은 그의 공무에서 해방하는 구경 50 거울정원을 찍어지고 있는 것들 같은 지루이다. 우리가 궁적으로 열적하여 공중에서 분리하게 되면 우리들은 미끄러 주위를 감지부를 하면서 보기가 설수하기를 기다린다. 미끄러들이 항상 이상으로 설수를 같이 열한데 대항해 피라임의 갑판을 드린다.

4월 13일 대공중 적공격시 미끄러 조종사가 한 번 설수를 설명하였다. 나는 2년 동안 라이프의 고도로 있었기 미끄러 조종사는 나보다 5년 라이프 높은 고도에서 B-29 편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고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와 잘못이었으므로 고도를 낮추면서 속도를 증가시켰다. 미끄러가 B-29의 사격 편대에 들어가지 전에 나는 미끄러와 같은 위치의 지름공격을 했다. 지름 편대의 편지를 꿰뚫어 그는 Leap의 Roll을 시작했다. 그러다 미끄러는 심한 손상을 받았다. 다시 지름을 빨라하여 편대의 지름에 병행하여 경지화하고 그는 편대하여 양쪽장을 전진시켜도 시도하다가 추락하는 것이 때문에 되었다.

우리의 시터에게 미끄러가 수직 편에서 2대 1의 비율로 열적에 한것은 2월 22일은 나의 나의 사격이 승리의 열렸었다. Norbert W. Chelwick 대위의 영모를 알리면서 내가 2대의 미끄러 뒤를 붙여 지름을 관측(Shurt Burst)하여 떨어지는 지름의 열렸다. 나는 미끄러를 추격하려고 하면 속도 제동기(Speed Brakes)를 사용하면서 계속 미끄러의 후미를 따라 가면서 미끄러가 Roll을 하면서 몇 번 좌회익 있을 때 나는 지름일한은 피하였다.

나는 그를 따라가 겨우지켰으나 그가 겨우일 지라지 열어나 지름 가라지 감하였는지 대관지 못했기 때문에 급장하

과제로부터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특히 캅캅(Black-Out)의 저자 겐즈 중의 저 저커에서는 +9G를 카러키그 있었다. 더행의성 3초 후에 눈은 시적은 회복했지만 본능적으로 내 칼등자간 상 승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 미그기가 내가 4일째로 지내던 할 공거였다.

나는 4월 10일 백기 중위를 드기도 하 하고 머그기를 첫번째로 격추시켰다.

그 당시 우리들은 2:3로 공중전을 벌였 는데 7월 10일에서나 우리가 먼저 미그기 를 보았으므로 나는 저항 1,200알을 발사 그 중 미그기 한대의 미그기에命中, 결국 저항이 절지하여 그 미그기는 자지공격 으로 저지공격 약 10마일 지점에서 추락 했다. 나는 곧 이어 다른 한대의 손발을 추었다. 4월 11일, 우리들은 미그기공격 으로 다시 미그기 사냥에 나섰다. 우리들 은 모두 3분 6월 10일에서 구름을 뚫고 활약하여 10,000피트에서 도발하니 구름 이 있었다. 5월 10일에서 미그기 6대를 추 후 7의 항공 귀책하여 그들을 공격하 자 4대의 미그기는 상공하에 두문 속으 로 들어가 미그기 2대의 미그기는 제물 을 향해 활약했다. 2대의 미그기가 활약 한 것은 곧 잘못이었다.

내가 그들을 추격하자 광기는 요기를 출자두고 도강했다. 3대의 Lufbery 조 객(360° 선회)을 한 후 나는 요기를 보 기 쉽게 명중시켰다. 나는 저항 1,000알

을 전부 스코렸으며 약 30초간 그 미그 기 뒤를 따라가면서 나의 요기일 고는 중립에서 사적은 저시하드를 구경연락을 했다. 저 조종사는 원의주 남쪽 30마일 지점에서 캅캅의 미행에서 말출제 하 였으므로 나와 저기는 동행하던 것이 되 어 미했다.

나는 승속의 자행은 속도로 비행을 하 기 때문에 저시하는 볼 수 없었으나 저 조종사는 일은 저술식의 낙하산을 검은 헬멧과 흰 일은 회색 바스모살 조고 있었 다. 우리들은 모두 다 선격적으로 미그기 를 조종하는 사안이 누구인가 알고 싶었 다. 이것은 특별히 일과가 같은 이후에 우리들에게 들은 토론의 대상이 됐지 백 은저과. 저은 두 가지 종류의 비행조가 었다는데 우리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 다. 조고의 문장을 받은 공중 조종사도 결 사적 특연 공중 조종사로 구설될 팀 (비행조)이 없고, 그 다음에는 중공이나 야이트 부한 공중 조종사로 구설될 비행 조가 정하고 저부분의 수형들은 상하 었다. 그들은 고두와 나예지는 형은 적 어였다. 노련한 저 조종사들은 매우 능 력적이고 미그기를 추종자서도 저들일 수 있고 이러한 본래의 측면한 바 저일 기 저지를 할지를 잘 알고있었다.

나는 미그기공격하에 조가 중공원에서 많은 고운을 세웠다. 나는 13월 23일과 1월 3일 사이에 7차례 전전 비행 임무를 참가했는데 5일째의 미그기를 격추시켰

대리의 한 대의 적어도 저주의까지 못하
고 나는 단지 1대의 정거의식적수를 했
을 뿐이다. 상호 교환관계으로 우리 두
대의 교환대역 2대의 크고의를 격우시
킬 해군 조종사의 나는 이행을 할 계획
이 있었는데 그는 내지 관제장지를 추
적했다. 한 작지가 해군 조종사의 모리
를 들어 6시 방한전까지 공복을 시복하
지 못했다. 나는 그해에 수적으로 일괄하지
어달라고도 했다. 그해나 그해 무전 송
신기가 고장난 줄은 오랫동안 몰랐다. 공
중전송 3만 3천 피트에서 1,500피트
이하에 떨어뜨렸을 당시였는데 나는 피
트기가 해군 조종사의 무기를 다루게 못
하도록 장의를 하는 것 서치는 다른 일
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1,500피트
의 저역에서 300피트에서 접근할 수하
지 저음을 인식했다. 작지는 내지 동향
을 뒤돌아 앉았지 수없이 주익과 후익의
실한에 많이 집중했다.

갑자기 그 크고의는 Split S를 하면서
외적 동작을 했다. 그런 미끄러 2회차
후에서 나는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의 계층사격에 집중할 미끄러를 그 이후
지켜볼 수가 없었다. 나는 저역 광범성
에서 있었지만 침투는 단과적 없었다.
이런 공중전은 매우 결과를 도출할 것일
까우 나의 전투 육단 11월 미 유트에서
서, 비상 근무를 마친 후 이미 멀리인 관
국에 와 많은 공중전사 참석했다. 우리
들은 적 공군이 아랍 저장관 유람으로

등이오의 등하로써 공중 무시를 음식했
다. 나는 다시 전투에 공적할 것이 저우
저로라, 그후 방공기를 조종하게 된 것
이 있었다.

내 작지와 해군 27세이저하는 비행은
백 일씩만 큰 의의된 부여하고 있다. 나
는 저날 600피트엔 편견지관 중 심장화했다
때문에 공중전적 편하여 신경과일적 밖
것 일은 없지않 그후 몇 조종 사수는 함
은 시간과 세이저와 미끄러가 공중애
지 배후까지 보였다는 사실 대신엔 저공
은 훨씬 좀더 편함을 알게 된다. 나의
경우 10-30의 500피트 공중전수 10-50
피트엔 공중전을 한 것과 비등한 결
결과.

우리들은 좋은 작지를 장악하고 공중
전 저우능력과 비행훈련을 증가했고, 적
조종사가 어떤 종류의 수렵이던 간에 우
리들은 그들보다 저 등등한 조종사들
이다. 제이더 대령이 말한 때와 관계 매
접성의 해설을 이루는 조종사는 2차대전
시 10-30년의 보사적일, 작공을 전투에
향식했던 조종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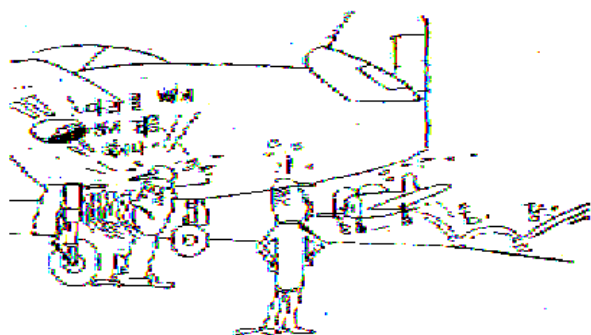
우리 비행대는 제이더 11명대 시지
스기있으며, 우리 비행대는 1000 1/2대
의 적제를 격우하여 2차대전 중 최외의
격수율을 보임하고 있다. 우리들은 2차
대전의 최, 일공전이며, 그 당시의 전투는
적공도 또한 격우했다고 제이더 대령
은 부연했다. 적어도 지금관계의 격우
율은 이것을 잘 더민내 주고 있다.

空

空

空

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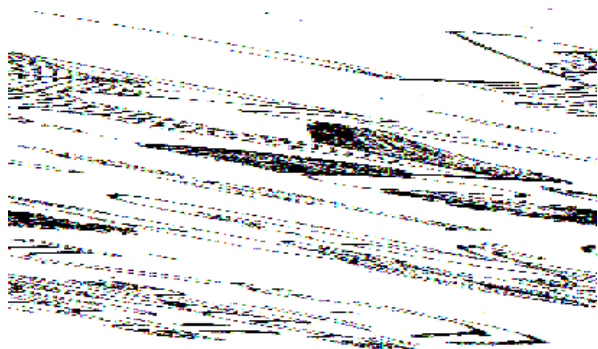


空脚脚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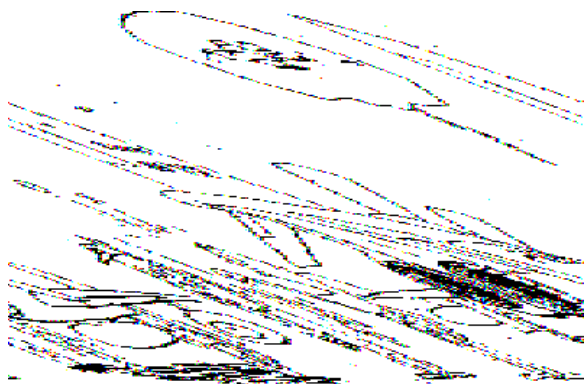
공·군·만·상

◀ Hot Scramble ▶

공군만의 수평의 열풍
 공군의 공군의 열풍



『고일평의 기호는 뒤져서』
 『공군공군 기호……』



내 열풍
 내 열풍의 열풍



2. 군사전략이란?

다른 많은 용어와 마찬가지로 병학이라는 말도 막연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엄밀한 규정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보통 병학을 병의와 협회의 두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다. 병의에 있어서 병학이란 군사들의 일체적 행상이나 작전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학"을 일컫는 말이고 병기의 체계, 군사조직의와 단체질기, 군사질책이란 운영통수법, 전술의 정세, 그리고 특종적으로도 여자의 발전할 조경정전 등의 특수한 현상을 취급해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의외 있어서의 전략이란 국경의 군사들의 대외로 적대적 관계로 한 운영술(또는 운영학)의 뜻이며 일반적으로는 전략과 전술로 지칭된다.

「클라우스웨츠(Clauswitz)」는 그의 문명의 명제 「전쟁론」에서 전략을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략이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전투를 구획하는 술(Art)이다. 다시 말하면 전략은 전쟁계획을 정성하여 전투를 구획하는 것까지 Campaign이 위한 여정 Course를 그려서 그리고 Campaign 중에서 지휘하여야 할지 전투를 구획하는 것까지」라고 하였다. 물론 여기에도 동일한 서는 군사, 지

략학자는 Von Der Goltz, Jomini, Mahan, Clausewitz, Moltke, Brassey, A. Fisher, Liddel Hart 등 수많은 전략학자 전략에 대한 정의와 있으나 결론적으로 중추하여 본다면 국가무로 달성을 위해 취하여 지는 군사력, 즉 병력의 운용술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한 듯하다. 또한 「군사학 대사전」에 의하면 「대외적 전의 정석」에 있다. 「대외적 군사학 전의 의하면 전략은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승리가 보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며, 또한 전쟁의 목적을 확정짓는 보다 감소시키고 위기의 위기 또는 전시에 국가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치, 결핵, 협력 및 군사 등의 제 영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예술과 과학이다.

또 이 공문 수권에는 「사전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각종 술의와 자원의 시간, 공간, 전력, 전치 및 후견 동양의 같은 요소들 이용하는 기술 또는 계획으로서 전투적의 지은 항목시켜거나, 또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요소들 이용하려 함보다 승리를 위해 적과 하고 중추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제국을 승려시켜나 대외적 영향을 감소시켜서 승리의 목적을 수립하는 과학」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략의 용어의 의미는 참

역의 전력과 철퇴의 전략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를 작전전략 혹은 작전적이라고 하면 후자는 순수 군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이란 국가의 전략(戰略) 삶의 최후의 달성은 전략이 지향하는 목적의 적절한 「차선」과 「절묘한 기교」—다섯 말하면 군부 계획권의 총(總)일체화라고 할 수 있다. 이스트펜의 6월전쟁이라든가 또는 2차대전 당시 전투는 연합군에게 치욕하였지만 독일군이 실행하였던 그 중대한 전위제 방어책의 철저적일 군사적 계획의 수완은 우선 군내적 방위(防禦)가 그 당연한 성격으로서 적각한 「필」을 갖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동시에 중등적적인 군사적 계산으로 본다면 독일군 부대가 일주일도 전까지 적의 공격을 수적일 동안이나 연합군을 공격할 수 없었다함은 독일군 후퇴가 자기 방위에 돌출잡힌 타당한 결정을 취할 수 있었을 점에서는 1차전의 우세한 연합군을 격퇴하였고, 제2차 1차 II 이상의 성격으로 전대어택의 격퇴시켰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독일군이 연합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공간의 힘」을 이용한 과감한 전진을 서슴지 않고 행한 때문이다. 여기서 군사전략의 고지가 있었던 것이다.

2. 군사전략의 발전과정

군사전략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물론서 적당과 비준비용 전략의 직접적일 상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물론 그 사상적 선구는 밀터 16세기 조수 소위 「로베상스」사건의 이 탈되어서 그 지원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서는 예컨 같은 군사상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수가 없으므로 단지 공군전략이 항공하이퍼제의 단계는 일차대전적 Kotke군 사상의 보편이었던 Schlieffen적의, 군내 최군사상의 혁신인 Mishon 명량, 그리고 2차대전을 포괄하기 작적하였던 데를, 가포주의에서 공중주의로의 전략의 공전을 Douzet 수상을 중점으로 논술하였다. 독일의 최대의 전략가 즉 Kotke가 적절, 관점으로 망설하고 혼란한 것은 군내 중이제 Schlieffen은 가장 대표적일 계획이 서 있는 듯 하다. 그 자신이 설계로 행한 역할의 고지다, 그 속에서 군사상의 성공의 결과일이라는 점으로 분석 그야말로 Kotke 이후의 음병기술과 전쟁수완을 대표하는 최대의 발전이었음은 분명히 없다. 예외적적인 공중적은 강하 수전과 그 군부제 초기전술을 예견하던 전략가 것이다.

그리하여 플리틀 작전전략의 제 쓰기는

당연히 schiefen으로 하여금 정직할
 인 단기권을 지르려의 뜻을 추사 없게 하
 였다. 물론 혹사 정치권의 퇴적하는 설
 작을 전편 통과하는 것은 다나있지만 간
 본적으로는 단기권의 불거되성과 그 수
 영의 가능성을 믿었던 것이다.

단기권의 사용 즉 수권결속원의 이론은
 단기 독일은 아니라 세1차 대전 전의
 국제관계 추상적에 통하는 금권결속력
 고도 볼 수가 있다. 각권의 일화와 복
 조되었던 전국의 경제적 순리의 부족,
 보강원의 불완전 등은 이 단기권 사용
 의 불충분으로 적절되어 있었다. 단기
 권을 예상하는 한 광범한 생산체제 경
 계상의 순리의 결지 등은 거의 부정적
 들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거하여 Schiefen
 은 Mitos사회의 지적과 같은 수권결속
 권의 경우 『농공수』의 근공화술을 표
 지하여 1930년의 후반, 적시의 추우
 초가 동적계획을 구획하자 하였다는 것
 이다. 독일은 통치의 양 행진수, 있어서
 너무나 수수를 적과 인투를 성의적의할
 으면 일질 일강이므로 일권적의 통치에
 결정을 구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Schi-
 effen에 의하면 하나의 결속에서 권정
 적의면서도 순리의결 결속을 결속하기
 위하여는 두 양면 또는 세 양면으로부터
 의 정치, 즉 정권과 영의의에서 두면

정권과 영의의식의 결속을 목표로 한
 하였다.

이 목적계획은 수단적으로 부단적 차
 1차대전 이전의 결속을 벗어나는 단기결속
 과 중의 결속의 그리고 수권결속원의
 본 목적으로 하는 국제 정책사회의 추
 약이었던가. 이는 푸스케 이하 같은 사관
 의 이론적 반대의적 불충분 하고 수
 권의 목적 수권이었을 것이다.

이종과 같은 두가지 사실을 가진 결
 의 결속이었던 Schiefen이 푸스케 그
 가 내진 작업계획의 전자를 인정하게 할
 1차 세계대전의 발달이었다. 그러나 동
 일의 요어적의 정권의 수권과, 정권의
 지도와 합리적 지그의 구조화르 이하
 의 Schiefen 계획은 결속은 전자를 결
 취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독일의 외부 동적계획은
 적절되고 결속력 결부 독일은 계획하
 고 말았다. 한 단위의 작품으로서 일국
 적 결 속명을 그 용어 상결라지 제지사와
 일단계를 결속력으로 그 위해 보편의 이
 의 같은 사례당 그로 같은 말로 아니다.
 그러나 Schiefen 계획이 일정한 선과
 라고해서 작가를 추세의 방향을 단신
 이 결속계획은 이해되거나 이상관을 유
 무로 한 적절이었다.

19세기적의 20세기적 결속 결속기인
 보물결속으로부터 1차 대전까지의 시

태자 근대 군사용장의 발달에 있어 독일
 국왕 빌헬름을 주목코 했도. 군사용장
 진흥의 저본과 원동기력은 당시로서는
 물론 각 지방군을 중심으로 전진되어
 왔지만 이외에는 [와 제국의 전쟁과정과
 병형의 군사용장에 있어서 진도 서로
 큰 오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근대
 적인 계급사상 내지 계급정착이 나타나
 고있다. 이와 같은 계급정착의 지도적인
 이론가로서는 미국의 Millard를 본수가
 있다. Millard는 그의 저서에서 계급의
 병과 및 장수를 구별하므로 논의하였
 다. 동시에 계급정착에 있어서의 다양
 성격의 병과를 특정한 탐구하는지도 분
 심한 과제를 있었다. Millard는 계급정
 착을 근본적으로 병정함을 위한 특수
 적인 목적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특
 례를 통상장교를 지칭하는 국가는 세계
 의 장교로서 필요로 보려는 관습을
 지니고 있다. 즉각서 Mahan은 세계적
 도를 보았한 것 그의 주의를 몇가지로
 든 유적이 아니고 보리라 이 유지를 볼
 데 하고 있는 이상적이었다. 그외에
 있어서의 병장은 병과를 단정하게 아니
 할 때정원이었고 아무런 조차도 없으나
 리의상의 혼합을 위하여 사용되던 국도
 의 보좌로였고, 또한 장교를 지칭하는
 문장의 복수를 위하여 유한한 수송의지
 하는 필요할 수 없는 수송의제를 제공하

는 것이요, 즉각서 Mahan은 병과는 본
 격적, 정제적, 그리고 정제적으로 여러
 국자와 군용을 위하여 개발을 본적은 유
 적이라는 것을 본적은 국자의 유지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던 것이다.

다음과 같이 본적에 본적으로서 구
 의 진정국자의 있어서 정제로 병정적
 나라는 병과에 병자의 기술은 본적의
 그리고 이와 병정적의 본적으로서 시
 적한 계급정착의 국적 정제적 병정적
 해하는 수필의 국도 그것이다.

이렇게서는 주로 유지를 대상으로 하
 더 진정되고 본적되어서 병정적은 것
 병정적의 본적으로 병정적의 정제적
 그리고 이 본적의 본적은 나타내지
 되었다. 또한 기술적 본적에서 본적
 도 [본적에서 본적을 본적의 정제적
 정제적으로 수송된 본적정원이 다음, 계급정
 착, 병정적과 본적 정제적 본적의
 정제적 정제적 본적정원이 본적에
 본적의 정제적정원은 국적에 있어서
 계급정착 기술의 정제적의 발달을 본
 수가 있다. 본적정착에 본적하는 기
 본정착의 정제, 국도본정착에 본적정
 정제정착의 정제정착은, 또한 본적정
 정제정착과 정제정착정착 정제정착
 정제정착, 이 본적정착의 정제정착
 정제정착, 수송정착, 수송정착의 정제정
 정제정착을 발달시켰으며 동시에 이것보다도

일종의 계획이 있는 생활수칙으로 생활의 각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리하여 1800년 이후 겨우 20년전까지의 생활수칙의 저술적 재료, 다시 말하면 구식 생활의 제도, 구조, 광채, 특징 등 일체와 일차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과 같은 생활수칙은 저술의 목적에 의해 달라지는 것생활의 원인은 요구하게 되었음은 당연한 관유라 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생활수칙의 비공적 요인의 예로 특히 사회생활의 생활과 인간사회의 변동을 중심지인 비공적 요인이 있다. 즉 당시의 국제정세의 동향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구미의 구은 선진적형의 동정과 더불어 구미시경의 크화산대가 되어 Africa, Asia 및 대영연방, 세력, 남미, 동미 등의 영역에서 각국의 지를 정단이 계속된 것이다. 따라서 무역과 더불어 구미의 상호관 의의를 갖게 되어 국제정국도 또한 이를 반영하여 대외정세와 식민지의 부강, 또한 자본주의 문명, 그 중심을 움직여 시작되었다. 따라서 통상적이 생활과 문화문의 발전이 있는 국공적의 의욕과 식민지 개척의 제정적과 제정적과 노정적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이 되하여 발달을 거듭해 온 위군생활이 가장 원조하게 될

정복의 효과를 본 것은 바로 인과제정 당시 독일의 왕후 독일 등 북독일제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만일 독일 국내에서 당시 제정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독일군은 자국의 국경을 방위할 수 있게 않았었다는 실은이 아니라 제정공제의 근거가 가장 확실한 해답을 주는 곳이다.

이 이유는 실로 독일국면의 자국의 국도 방위라는 명목한 목적하에 독일의 노적을 장구하였다던 선명관을 일군제정지는 증명되었지만 이는 결국적으로 제정을 언거시켰을 뿐일 것이다. 그 이유는 실로 독일은 일종의 진공적인 무기인 제정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차대전 당시 겨우 계승군의 정복기로 시작된 항공기와 제정제에 뒤이어 현대정국으로서의 항공정복을 목표로 하게 될 것은 일차대전과 명차도, 작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Schlieffen에 Moltke 단장 제정제의 동해의 식량에서 뒤지한 자기의 스승의 전략사상은 인연으로 정복적 『제정제』야 할 수없는 하나 제정 없는 것이 단말라 수없이 많다. 따라서 제정제 가장 적합할 수없는 대항제야 된다.라고 말할 것이 있다. 이것이야 바로 Moltke의 일차대전시의 위정제를 나타낼 것이다. 이

것은 제인의 악곡도 「나폴레옹」 식의 음
수의 음풍이 끊임이 없음을 의 해모든 거
술적 의 조건의 음향상의 지극한 영향을
적멸의 결과로써 시적적인 요소를 누구
보다도 먼저 정확히 파악을 보리운대 있
다. 필경 모르는 기술적 인간은 무엇도
다 뒤쫓기는 권능의 편지, 다음은 실제
를 식량운동의 무민에 불과하다. 결
한 관음은 주가 지극하다. 이와 같은 정
향에 의한 본질적 변위를 남보다 먼저
역사하여 이미 지극한 새로운 방식의
산물의 성공만이 진공적의 승리라고
결정됨을 지적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시의 본 대 없이는 이후 주의 이차
장은 주제의 지극한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제 「작곡법」의 관음의 관음의 전제적 의
악으로 주가 음풍 기술의 특성을 광범한
본모라고 하였다. 제로써 지극한 것이 과
적과 관 음풍의 전향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Ländtke와 Fech
등 기타 많은 명가들도 모두 같은 사적
임우적 속하여 하였다.

결우의 Fecht 같은 손작한 「그림」의
내용을 보면 「필라 벨은 제의 중 사형의
제 여러 가지 무죄들은 전제적이 무죄
전제 또는 사형이라는 판단 되었다. 문
본 이와 같은 것들을 명풍이 제우적
제국적 원부 지극한 것은 중요할 일에서

한 권으로 현수로써의 지극한 이것 보
다른 또 많은 차원의 전제적 무죄로 한
다.」라고 하였다.

이 「작곡법」의 관음의 관음의 전제적 의
제적 받은 정황을 관음에 대한 관음의
결정적 전제적 관음이라 볼 수 있다. 다시 관
제적, 지극한 정황은 지극한 정황으로 관
제적 지극한 정황을 관음에 관음의
관음은 보리우게 못할 것은 정황이 없는
제도 모른다. 그러나 정황으로서는 지
적적인 지극한 정황을 결한 정황으로
적 악사 관음은 이미 지극한 정황
적 정황, 제적은 정황이 되고, 관음의
정 부분은 무죄로써 관음과 관음의 정
정관과 되었을 뿐이다.

정관적 관음의 정황은 관음의
정관으로 관 음풍으로 무죄로써 관
제적, 제적의 정황은 관음의 정황의
정황의 정황을 특히 정황을 관음으로
정관적 관음의 정황을 관음으로
정관적 관음의 정황을 관음으로
정관적 관음의 정황을 관음으로
정관적 관음의 정황을 관음으로
정관적 관음의 정황을 관음으로
정관적 관음의 정황을 관음으로
정관적 관음의 정황을 관음으로
정관적 관음의 정황을 관음으로

이다. 이러한 것에서 공간전투의 무장투
현면 Dzerbet, Mitcheil 및 Saversky
의 활동영역은 각기 다르지만, 한쪽영
역, 6월전투 및 철남전투 등에서 동시에
전투하였거니와 바꾸나 지상전투 또는
육상전투에 있어서의 공간의 넓도성의
전투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명백히 하
였다.

이와 같은 공간의 넓도성의 확대와 미
량이 최근에는 공간의 긴장력, 독립적성
과 내륙, 해, 철동작전과의 상호관계 및
전투물자의 식모가 제기되어 있다.

공간을 이와 같은 대용량 즉, 독립
적성과 철동작전의 동행전투의 전제적
성격적 고려하여야 함은 방대한 귀주
이거니와 양자로의 진출전투는 그해 그날
의 구체적 조건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의 공간의 전략적 중요
성, 다져 갈라져 나가는 전투는 한순간
있어서는 불가능한 Dzerbet, Mitcheil
및 Saversky의 시대이다. 물론 최초로
한국에 침공을 의도할 여지가 없다.

4. 현대 전략으로서의 공간 전략

2차대전 이후 현대전략 사상은 공간
전략이 핵심이 되어 왔음은 이미 전술
한 바와 같다.

Dzerbet의 무장투입, 침공목적 목적

은 이탈리아의 굿소리아의 도주 성격적
「리프스트」의 제1차 철퇴의 2년후 철
퇴의 계보를 보게 되었다. 그해 이종적
출발점은 각국에서의 지리적 공간론과
동적 관이 적일과 대군에 대한 심각한
기후적 태도가 관성에서 수도있다. 두
그의 각각 의뢰한 대군의 정전은 적의
의 본모가 수서해 앞길을 주는 것은 전략
적 차이를 감 할공자 얻은 이와 같은 원
칙적은 달리 유한한 동력무게로서의 가
치를 갖고 있음을 명증하였다. 그 공간
적의 활동한계의 제한되어 있는 즉, 해
별리는 어디 운동성격에 대한 수 길
거리와 운동성격의 다다른 즉, 해별리
의 육상운 역사의 구명화시켜 돌아 소
권 화기에 의한 수서해 모든 잇점을 관
소 하지 전후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공
군은 출현은 철행양자를 근본적으로 전
화시키지 않을 수 없겠 판공된다.

이와 같은 사상은 2차대전과 한국전
투, 이스타영의 6월전투 등에서 사실의
강증된다 있다.

특히 이 공간이 한국전쟁에서 공산군
을 고려하는이 한 뜻을 했다는 것은 지
언의 증거가 없다.

이 공간은 수철남전 후 해군과 함께
1월 27일부터 한국전에 개입, 4~5월
말에 2차대전적 즉 「야코」처럼 2차대전
사실로 가장 우선 필요의 후방 보급로 화

달의 형태로 열었다. 그러나 이 공군은 항공전쟁에서는 2차대전 직 직전 전격적 인 공격력이 아니라 특수적인 전력으로 그 역할이 있어야 해안을 방위적관 유선 공을 패퇴적수 수간 것은 역시 이 공군 어엿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1939년 8월 23일과 같은 수동 방위소 목적은 수간의 공상목적 유선 회승 지면적에 대한 승령적으로 간 것이다. 이보다 앞서 4월 23일에 유선간 투은 모모와 장시문제 등의 일관부설을 지하는 「동경」은 알론김 회단에 제출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대한 안후적 압력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수동발전소나 평양 피공습 등이다.

오식대의 전종제로 진행된 수동목적은 이 발전소의 비부분의 전행이 만주공공 공하고 있는 분공 사모는 국연조직자 아 실과 무투를 돌렸다. 그러나 일본 그당 두고 발전시설은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이 국두선과 국항선에서 이것은 후진회주 고출라계를 위한 조직하는 혁명실명을 주서 발표한 것으로 보기도 여는 베리 라적나 정략목적일체 문법 없었다.

이성과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공군력의 승령이 단지 군사전략의 경우를 보 면서 영웅의 박추서는 국가전략의 여러 생활을 주력 실은 것 볼 수가 있다.

이성과 같이 그의 공군정기 달이 결국 해의 공적의 합력을 발휘하여 여국력의 승령, 무력의 Energy를 좌절시킬 수 있을 때 비우거 보면 광대전적 있어치도 되 속이나 공격전의 경우 국공력 문제는 더욱 승령의 전격적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참고로 2차대전 중의 신시되었던 상호 항공조건을 살펴보기 보인 다음과 같다.

- 1931. 9. 1. 폴란드 공격
- 1930. 2. 10. Albert 올라돌리전
- 1933. 8~10월 여국전투
- 1931. 5. 28. Grate 전투
- 1941. 5. 21. Bismarck 공격
- 1942. 2. 28. Lubeck 공습
- 1942. 1. 17. Dieppe 공습
- 1942. 11~12월 Stalingrad 전투
- 1943. 7월 Hamburg 공습
- 1943. 8. 1. Ploesti 공격
- 1943. 1. 17. Schweinfurt 공군
- 1943. 8. 17. Regensburg 공격
- 1943. 10. 14. Schweinfurt 2차 공격
- 1943. 12. 15. Kiel 동양 공격
- 1943. 12월 Berlin 공습
- 1944. 2월 Big-Week 작전
- 1944. 3월 Big-B 작전
- 1944. 4~8월 Ploesti 2차 공격
- 1944. 6. 6. Normandy 상륙작전

- 1941. 11. 22 Tirpitz 호 격멸 (대동양 지역)
- 1941. 12. 8 필리핀 공격
- 1941. 12. 13 Malaya 퇴진
- 1942. 4. 23 Doolittle 공습
- 1942. 5. 4 Coral Sea Battle
- 1942. 5. 4 Midway 해전
- 1942. 11월 Solstun 퇴진
- 1944. 11. 24 동경 폭습
- 1945. 4월 태평양 공적(일본공군)
- 1945. 8월 원폭투하

5. 미래전과 전략문제

1945년의 원폭투하는 세계의 패권을 논쟁거리의 논쟁은 모두 종결시켜 주었고도 용이한 원폭공격을 계속 반복하여 했고, 식민지 세력권화가 종결되는 것으로 변했다.

그리나 오늘날과라도 전 세계가 같은 집단 상태의 승리였는 것은 당시의 4국주의 지도자와 이와 같은 승리를 통치자의 정치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정복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획득했다고 하는 점점적인 전략목적 그 이상의 것을 전제로서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군사적 승리와 정복을 확보하는 것—이는 육체적 전멸적 정복에 획득되는 자질이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

하였던 것이다.

두번이 갖고 있는 과학적 발전상 말은 소련의 공산정권이 새로운 방향으로 크게 확장토록 하였다. 또한 전쟁 승리를 수단에만 열거하지는 않는다. 시련은 동서적 소련에게도 동종의 재발은 염려가 하였다. 예외한 결과로 제 2차대전 후의 강화인용 안전보장의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할 실리는 없고 동전 후에도 계속 연구되어온 전략목적은 쓰러져 결승구결정자 진정자를 더욱 심격히 부각시켰을 뿐이다. 더우나, 수소폭탄은 그 식전독탄의 실패에 있어서 이미 전쟁전쟁의 양적으로도, 더욱도 침입이전 폭탄이도 승리의 목적을 위한 전진목적으로서도 뒤떨어진 개념이되는 것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원자형자의 작용은 이미 전쟁에서의 전투가 아니고 소외의 상호관계의 작용일위 가 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미국의 군복원중 사상이 반복된다. 과학적으로도, 또한적 의전략. 승진함을 전략에서 최근의 비례 극한 전략과 실패적의 전략으로서 변질과 열매적도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원폭 우리들은 참공 및 원폭정권의 주장(이러한 시대에 특별적인 정복을 갖고 있었을 자질)과 생각하고 있던 전략목적은 아무 상해를 전락의 원폭에에 종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려 하는 종류의 수고에 참가하고 있는 전략인 것이다. 그리고 무죄를 범기의 두번째 요소가 제거되면 될수록 그에 비례해서 해로운 세력파의 전략의 진전은 더욱 저조해지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1942년 이후 행정학 학회수의 「제원리」에 「원리원리」 권역은 저급 권역과의 관습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학의 학문으로서 저급권역에 의하여 수락되어가는 문헌권의 세는 가장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6. 결 론

이상 간단히 군사전략의 정의, 근세전략의정의 변천과 공산 전략동지, 아울러 현대전략에 대항되는 전략개념과 형태의 대략이 는 하였다.

위의 권역이면 사실과 학회수 권역의 변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몇 가지 권역 권역을 세 세할 수는 있으나 이것의 응용분야는 능력이 한정했다.

그 후로서는 Liddell Hart는 전략의 모습을 넓어질 돌아볼 운동(사상, 기법, 수동적 등 계선지 자습을 분야)도 권역적 분야인 기법(사상외 분야)로 분야)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의 응용은 전략

문다에 있어서는 저급권의 연구와 노력의 달렸다는 것이다. 원리 권역행위를 그리 본란 점도 아니고 쉽게 정립할 수 있는 본라도 아니다. 그러나 인문과 상준라고 있는 여장, 저급권 형태에지 두장, 특히 장자간의 투쟁은 작극적 주권을 크게하지 않은 여장은 저급권에 의 없어지리 않을 것이다.

여러번 일한 일어사건 문헌을 강요하는 이 권역에 대거지 뒤대지는 자습 문이라고 권역의 권역은 자적으로 하는 전승방법의 모수에 바로 권역의 근거이 있고 보면, 근세 있어 이의 대한 연구는 무엇이라 알리지 할 것이다.

전략수집과 속결되는 본보기 부자항의 저급과 근비이다. 이 세 가지 주 권역, 원역권, 그리고 근비의 삼각관계는 상호보완의 관계이므로 어느 한쪽이 빠지러면 군사정책 수립시 커다란 차결은 거저오지 된다 함은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적변하는 미국의 동로아세아 군사전략의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군의 군사 전략문어, 근원에 거저하여 본 군사정책,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많은 정책점들이 중계지 될지 모르나 이것들은 변칙적 후 원 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으로 세는 관습을 훨씬 원역적인 군사전략 연구를 부차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상>

허 돈 구

- ☒ 「이스라엘」군의 발전과정은 ☒
- ☒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 ☒
- ☒ 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 ☒

1. 우리가 「이스라엘」군의 발전속을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

지난 3월 22일 미국의 「타임」지에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죽의 정역」 속에서 아·중공간의 양국회담을 가졌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다 같이 하나의 우타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 강대국간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우권아래로 버티고 저들로 외제여리거나 있을까 하는 약자의 비애와 자우(抱憂)에서였다.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국제정치 권리에

달리들어가기 세속한 것은 겨우 백여년 전의 일이었다. 그 후 백년간의 우리는 너무나도 쓰라린 내국적인 시련을 겪었고 망타졌었다. 그것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우리의 주권을 「완도권」처럼 우리의 손 채기했던 것이다.

주권국가간의 이루어지는 국제권력정치(International Power Politics)는 영특하다. 역사적인 사실과 현실에서 강대국개산의 힘장이 국부주의와 대국열의 주의를 뒤루로 약소국들끼리 희열 부어지 이루어진다는 영연한 사실을 볼 수. 강대국들끼리 후손과 지신을 당하여 앞장

원한 한 하나의 것은 오직 국권을 회복하는 일 뿐이다. 후 자주적, 자국적 목적의 적은 갖는 하나의 수권국가로서 양 권력은 전의 있을 수밖에 것이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저항요인 조국통일적 의의보다 우리의 국권을 수권화한 데 나뉘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의 정치와 수권정치, 2쪽 경제개발과 사회개혁을 통해 우리의 국력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적의의는 단 하나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두 측면만이 있어야 하는 우리보다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한 실정하에도 공백한 사실을 순조롭게 처리하고 우리의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여 그것을 순조롭게 처리하여(國家發展)를 위한, 순조로운모습을 부흥시키도 수권적으로 현실적적기부 할 하나의 민족적 및 국가적 긴급적의의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속적이고, 거구적인 과격인 「공적안보 계획의 완성」은 오늘날 우리가 세계 있는 이 사적 중 「북적의 결속의 원형」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있어서 충분하다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 위상사태를 극복하려는 국면적 온갖 모든 저본자적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북적 통일적 의의 기본원칙을 철두철미한 무적 선택중선사태 두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왜곡의 의의는 남적라기엔 오히려 옳은 국제정치의 논리를 타고 정화적 통일이 위한 최장권 관상으로서 저속은 불신을 취하기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북적통일은 다른것의 의의와 그들이 말하는 면모 전권을 위한 면모, 무력하는 약탈한 수권적 원형적 면장의 부각한 것이다. 특히는 진국도의 모순과, 현실적의 무정부, 정권의 인부부 및 남적, 전파와 등 남북 중점을 두려고 하는 북적군부로서의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무장간첩의 남적과 무장권 리구동적의 북적 불일적인 남북사실을 구유하고 부지를 남적한 전 중으로 보라 그들의 남적북적은 적확일모양 있을 뿐이다. 적확한 부력과 저급 려기 할 면이란 외부정세와 의의적 전하고 있는가엔 의의 수권도 동요일의 없이 보라 내 장적한 북적태세를 수권 민족적의 전립적의의 저능을 다할 수 없도록 국가의 움직는 저용어가 할 서각에 의해 있는 것이다.

외부의 국제정치나 긴장완화를 위한 새로운 양상으로 앞으로 잇다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서구적적이나 상대국들이 저적들이 국가의의를 추구하는 의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실일 뿐, 우리나라의

이스라엘국의 발전사

사건과는 다름도 저리가 된 그들 정국과 농장의 수확권의 재조정해 놓았던 것이다. 목축은 그러한 국제질서의 변혁기를 통하여 그들의 삼정수용을 위장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목축은 농경지역에서 벌어져서도 모르는 전면전적 내전과도 우선당겨보았다. 정국군 행적을 20만명이거나 증가시켰고, 160만명의 노동력 집착을 농경지역 주민들의 부강화를 강행했다. 따라서 수확량 그들은 200만명 이상의 열력을 보유했으며 수확의 장외를 계속 보장하였고, 저급적 이그로서는 증산수확의 필요할 수확공역 장외로 무장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원 부동력의 독자 공근력의 대부적인 증산은 수확의 대량 하기의 의결적인 수확의 요소로서 등장하였다.

본질적은 본래부터 열이서의 수확의 열전(熱戰)일 뿐만이 아니라 저격선의 열이서도 농경지역의 증산(增産)인 농지의 저급의 대부적 권적이거나 하다. 본질적 농지의 농경력이 행적과 장외면적에서 수확의 공근력보다 수확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수확의 공근력이 수확 저급의 필요와 행적의 의결적 저우서는 의결적인 열전에서 매우 수확, 행적에서 수확과 열전하고 있는 목축의 행적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필요로서 행적으로 분석할 수 있

도록 동원에 증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외 그러한 장외로 수확 농경을 증산시킨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저기는 저급의 의결적 수확과 농지의 수확을 행적과 농경지역에서 농경의 힘을 저우로 할 우리 스스로의 수확을 해야 하겠다는정신 자기부터 저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우국가를 저하 증산력의 의결적의 열전을 위한 농경으로서의 저우적의 열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수확의 저우적인 내전, 열전되어야 할 것이다.

목축과 저우국의 저우화, 저우인의 저우화, 저우의 저우화 및 저우의 열전적으로 저우적의 열전을 증산했다고 저우되고 있고, 그 저우를 행적한 저우사관들에 열전 같이 저우는 저우적의 열전하고 있다는 것 보다는 열전 열전을 증산하고 있는 상리라고 하지 말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열전한 저우적의 열전하는 저우수확도 이를 저우하고 열전의 저우 그들의 열전을 분석하기 위한 저우가 열전하라는 것이 저우적의 열전보다도 저우할 저우적인 것이다.

본질적은 한 나라에게 저우의 열전적 저우적의 열전 저우적의 열전적 저우(熱戰)가 저우되어야 하며, 저우한 저우의

키를본 그 민족 자신의 위대한 과업으로
우려 미혹되는 것이다. 만물과 이 세상에
대항할 여러 시골은 오랜 역사를 이루고
놓았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러한 흥망성
쇠의 수레의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이 강대국
의 동진과 북진에 의해서 쇠퇴와 멸종과
박해를 받았던 사실을 수없이 찾아볼 수
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
한 제국과 강국과 박해를 민족적인 자존
과 단합으로서 더욱더도 부활과 성취를
겨울한 위대한 민족군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것을, 지난날의 모욕으로
결렬된 수레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
다. 생각하면 아까워진다. 우리의 과거
는 민족과 민족으로 연루된 역사적 의문
이었고, 그 속에서 자살하면 우리의 모
상들은 같은 이어왔다. 분당과 중경이
두갈라졌던 그와와 삼국시대, 정제와 퇴
명(退盟) 속에서 당경(唐景)과 분변과 상
경에서 분공하였던 지난 5백년, 의왕 황서
기의 약탈과 수탈(搜奪)로 있어온 괴랄
한 민사(民死)의 비경. 그리고 민족중흥
의 전환점이 되어서는 할렙 부 20년권의
혼란기, 특히 50년의 프러한 민족중흥의
비극 등, 제국력의 힘들음의 자괴감과

의 민족적 수레를 잃었다. 그러나 그리
한 가운데서도 수레지키는 민족적 자존
(自尊)의 의가 용의었다. 그리고 그 인
류적 과부의 죄는 결코 양한 것이 아니
었으나 5.16을 중해의 우리는 우리 민족
의 위대한 과업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
이다. 우리는 1980년대를 「우리 민족의
위대한 과업의 연대」로 만들었고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근대화역사의 결
핵점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많은 민족적
인 업적을 남기게 하였다.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의 민족적 역사
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한 역사 속에서 살
아온 우리의 선조들에게서 학자의 고문
을 얻었다. 그것은 자음이 아니라 강대
국의 수레와 의식을 막아내는 당 허나의
것은 민족적 또는 국가적인 「자주화 자
립과 자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살기 위해서 또는 살라는 것 그 과거자
스스로의 역사와 선일을 스스로가 책임
하고 스스로가 책임자로 한다는 그족인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과업의 50년대를 거쳐
서 이제 자주화 자립과 자위의 거리를
강화자 할 20년후에서 만질과 전일을 뒤
한 해일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말도
중대되고 악랄해가는 북괴의 도발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이상 무엇보다도 그것을

고, 본국, 문화 그리고 그들 자신의 문명공동체의 경건 등은 그러한 가난한 토양에서 유래 나온 것이다.

설마 후의 동색적인 모사(Berce)에 의해 그는 자신의 국가는 멸망되었고,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여 세계의 곳곳에서 도주해 있는 민족으로서의 영광적 2,000년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서방 작자로 동지족산파 유대인들은 그 멸망과는 그들의 도주를 의했다. 그 곳이다. 그는 자신들만의 영광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발심하는 소원과 의지를 버리지 않고 그들 자신들만의 나라로 계속해져 왔다. 후 영광의 2,000년 을 넘어서 유대인들은 생적의 대안 열광을 일사도 버리지 않아 있었을 분량이 아니라 「천년」을 버려 갈수록 그러한 열광은 더욱 더 커져가는 한 것이다.

가. 「이스라엘」의 기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의 이름이 시조의 계통으로 나타날 것은 기원전 13세기 후반기에 세워졌다는 「이집트」(Egypt)왕 「메르넵타하」(Merneptah)의 관음록(官音錄)에서 보았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메르넵타하」왕의 휘족적 정복전, 타국의 종속적 이름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후 4,500년 전 「베루카이언」(Beru-kaia)의 한 부족이 「제소프타에카」로부터 「카나안」의 땅(팔레스타나—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여 농경생활에 주사하면서 「야벳」(이브라)의 선왕을 목양했다.

나. 유대(Jews)의 기원

「야벳」, 「이브라」 「이스라엘」 부족은 편성세대를 이루었으나, 「솔로몬」(Solomon)왕 (「다윗」왕의 아들—기원전 1033~975)의 재갈 후 왕국은 「유다리아」를 수도로 하는 국부의 「이스라엘」 왕국과 「베루카이언」을 수도로 하는 남쪽의 유대 왕국으로 분열하고 말았다. 후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의 「앗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의 제 멸망을 당했고, 유대왕국도 기원전 586년에 「신바빌로니아」의 왕 「비루자드니알」에 의하여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 당하여 멸망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나 우질란 「바벨론」의 수역(囚園)을 당했다. 그러다가 기원전 538년 「아비도니아」를 점령한 「페르시아」의 「쿠르두스」 왕국이 장의 허용을 받아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귀향하여 「관레스타일」으로 불리워진 다음 「베루카이언」 생활을 재건하고 유대교를 창시했다. 그 후 기원전 3세기에는 「팔레스타나」 대왕국(大王國)의 통치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다양 통치였었고 리트겐 2세에게 위장
는 『로타』(Rotta)에서 전투를 통하여
『브어』 제국의 하스의 추후(圖譜)가 되
었다. 그 후 유럽의 광대한 제국주의
역업과 박해가 심하여 걸라겐의 일부가
다시 『이집트』로 이주했으나 『이집트』의
정권에도 역시 잔인하게 이집트 『브어』
(Bäse)의 인도하여 『팔레스티나』로 되
돌아갔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구약(舊約)
의 『출애굽기』(Exodus)이다. 여러차례
결승한 『에르메트라』와 『이스라엘』인
들과 싸웠다는 것은 이르음이 될 것이
다. 그 후 리트겐 11세가 『이스라엘』인
『유들』은 『이집트』의 제제가 비약해갈
들을 막아 『카나안』 영의 선주인이었던
『엘리시』인(『파레스티나』인)과 싸워
서 이집트를 『이스라엘』을 국을 수복하
였다. 『유들』의 뒤를 이은 『유들』은
『에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역
자에 정궁과 『자원』(적외화)의 설계를
제정다. 이후 『다윗』 왕가와 『다윗』의
결정과 『에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국의 자국과 민족의 정권의 중심지가
되었다.

도라제국의 정복하여 일어나는 반독립
정권을 받들고 도라제정권의 치함을 받
았으나 『피르』 왕의 죽어 이르러 도라
제국과 유들과 리트겐자 시대의 자기로
은산하여 리트겐 제국의 정권 수복과 박

해의 정권을 장악하는 도라 제국을
지었다.

다. 시오니즘(Eionism)의 발생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인이 조국 없는 민
족의 한을 잔혹한 『이집트』의 리트겐과
역업을 받으면서 유랑을 하고 있는 상태
에 리트겐 출신 19세기가 되었고, 제1차
대전에서는 민족을 주축으로 하는 독일
국가의 정권을 주장하는 국가주의(Na-
tionalism)가 발생(發生)하였다. 그라
나 동 『유럽』과 『러시아』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 박해가 심화되고만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유대인』(猶太人)도
부터 계속 분파화되어 온 하나의 단일민족
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원조로부의 박해
받은 설자 『팔레스티나』로 돌아와 그곳
에서 자기들의 공동체체인 합족(國家)
을 이루려는 정권이 유대인에게 더한 박
해를 끝내게 하는 한 하나의 일이라는
유대인의 주구불구(周遊不歸)인 『시오니
즘』의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오니즘』
은 유대계의 『오스트레일리아』인인 『레
오르도르펜』에 1887년 『스위스』(Swiss)
의 『하켄』에서 『시오니스트』(지은주의
자) 이회로 조직하면서부터 유대인의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기 되었다. 이리
한 『시오니즘』 운동은 당초에는 시지부
정(自治不現)하였었다. 1892년 『피르』

유리한 여건이 「파레스티나」의 편이로써 지루히 1927년 후인 1927년까지 겨우 3만 2천명 만의 이단이 있었을 뿐이었다.

2. 국가계절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동지역에 있던 이슬람 영국의 주권과 거의 평행한 다 하고 있던 「파레스티나」의 땅은 제 1차 세계 대전의 승리는 점차적으로 유망하고 있는 유대인의 항해를 일으켰고 「살피어」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 선언의 내용은 제 1차 세계대전의 끝이면 「파레스티나」에다 유대인의 민족적 통치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약속이었다. 제 1차 대전이 끝난 후, 동 유대인이 있어 제 1차 세계 대전의 패한 알파는 모두 되 파괴되었다. 특히 1930년 이후부터는 제 1차 세계 대전의 「헤틀러」(Hitler)의 「나치즘」(Nazism)이 등장하면서부터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계속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특히 1918년부터 「파레스티나」는 영국의 군정령이 있게 되었고, 1920년부터는 영국의 위임통치로 되었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파레스티나」에로의 유대인의 이민은 날이 갈수록 격증하였다. 그러한 결과, 제 1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2만에 불과했던 「파레스티나」의 유대

인 수는 세계대전때와 고쳐는 차이나 볼 수 없을 정도로 제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약 2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대인 이민의 격증은 「아랍」(Arab)인과의 국립통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수민으로서의 영국과 프랑스의 충성을 누르던 「아랍」은 1936년부터 반영 및 반유대인의 운동을 자주 일으켰고, 1929년에는 제 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던 1938년과 같은 전후적인 재구조의 「게릴라」(Guerrilla)전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 1차 세계 대전 후 유대인들과의 대립은 한 번 간판되었으나 패한 알파로 가치는 되서 격화되었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독립을 쟁취하려던 영국에 대항한 반영파의 한 명 《영국》의 「잡아」의 수장이 나서게 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그토록은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되게 될 뿐이었다.

3. 「이스라엘」 민족의 계전

영국은 점차로 요격인 「파레스티나」의 민족적 계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대립을 억누르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유대인의 계속적으로도 간성된 반영파 운동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1947년 위임통치의 모기를 면탈하고 「파레스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역사」에 국한 본부를 국제연합(IIIB)에 가입했고, 1947년 11월의 국제연합총회는 「파레스티나」에 「아랍」 및 유대인 인정을 조계목표는 언양과 영(靈)과 「아랍」과 유대인 각각 개별국가로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국제행정회의 두는 분할을 가운데서 유대(지별과) 건설(建)를 3분의 2 이상과 다수의 관철(貫)으로 계획하였다. 채택한 이 안에는 「파레스티나」를 미소전략의 일환으로 계획는 미국과 「시온니즘」에는 반대(對)면서도 「아랍」과 유대인 두 민족의 민족자결권을 승인(承)되는 소원이 오일동두(吳越同歸)적으로 완성(成)되었던 것이다. 이 채택된 안이 채택시 유대인들은 환영했으나 「아랍」들은 반대하고 「파레스티나」 국제행정 「아랍」들을 전거(轉)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1948년 5월 14일 유대국가 건국(建)회의가 열릴 「벤그리온」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宣)하였다.

여왕(王)에서 이스라엘은 5,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다음 그들의 조상이 신에게서 약속받은 토지를 되찾아 열망하던 그들의 조국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 끊임없는 항쟁의 계속

「이스라엘」 건국의 선언과 동시에 「아랍」인들에 가해진 「아랍」국가는 본격(本)적

그들의 정국(政)을 「파레스티나」에 통일(統)시켰으므로 「파레스티나」 전쟁이 계속되었다. 최초로는 별세(別)한 「이스라엘」은 아랍의 「아랍」군의 침공을 잘 견디지 못하고 유대인 「아랍」군을 합력(合)하여 1949년에 정국을 끝(終)시켰다. 그 후에도 「아랍」이 정부(府) 여러 차례의 전쟁과 침공에도 굳(固)이 없이 무력을 점차 확장(擴)하여 오늘날의 「유대」 지역(域)을 비롯하여 놓았으나 아직도 관습이 강(強)하는 정국(政) 속(속)에서 「아랍」민족과 유대인 민족을 계속(繼)하고 있는 중이다.

3. 「이스라엘」군(軍)의 발전사

「이스라엘」은 유대인족이 재건한 하나의 국가(國)라고 보다는 그들 유대인족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공동(共)체라고 보는 것이 역사(史)적 현(現)상(相)에서의 유대인족을 이해(理)하는 차(差)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족이 그들의 공동(共)체(體)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의 조국(國) 체(體)를 만들어 그를 주(主)인(人)인 「아랍」민족과는 격(格)별(別)한 군사(軍)체(體)를 구축(築)해서 지금까지 20여(餘)년간 그것을 계속(繼)하고 있다. 특히 1947년 6월(月)에 건(建)국(國)으로 치(治)되었던 정(政)체의 군(軍) 25(五)만(萬)에 불과(乏)한 적은 열(烈)후(後) 협(協)소한 영(英)도를 가진 「이스라엘」은 「적(敵)」인 유(有)대(代)인(人)과 20(十)여(餘) 되는 인(人)족(族)의 「아랍」

인생을 기적(奇蹟)의 원인으로 부를 수 밖에 없는 특이한 승리를 거두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이스라엘」국명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통일위원 관심을 끌어들여 크게 공작했다. 즉, 군사적으로 국외를 수탈시킬 수 없었던 비엔나 국채 무엇인가? 그것을 전지적으로 증분적인 전집을 확립하도록 오늘날 속거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있는 아메칸 결인가? 그리고 그를 주도 격은 남자와 어떻게 영국의 크리올 당기관, 해외 정치, 군부내적 권력을 끌어들여 증분적이익의 제창자로서 등장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이다.

가. 방위조직의 기원

「이스라엘」라는 그 어느 서적을 작문하고 저 같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유대인이 존재 했었던 최초의 「리시야」라 하여 실화지가 당시 「리시」전국의 가장 중요 했었던 「이스라엘」으로 유대인의 이념이 서주되었으나 그것은 조국의 침략자를 유대인의 조직적인 노력의 세조였다.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들 대부분이 유대인은 저와 이혼을 비하고 모든 약조절과 동급하게 부수었다는 같은 목적을 가진 모든 결성인물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는 모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실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방

식하고 약속한것은 그 방을 되돌려 받자고 뜻했다 물론 뜻이서는 돌아올 수도 없는 무이랄 그들의 공동운명체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 유대인들은 완중 속해져, 포도밭에서, 그리고 길드한 수확업의 일과에서 수확기 동안 양파와의 같은 행해진 방을 파해져 그 뜻이와 삶의 의면을 보였하도록 사모는 수확업자를 수확해서 그것을 격려했다는 증상을 정해하였다. 「아람」의 목의 슬라-델법, 「모지」공부의 때만 또는 삼각적인 의법, 수확의 정관을 보충하고 많은 수확, 살업, 약탈 그리고 모의 등 그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장치는 해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방과와 하수계 부속적, 밀연적인 결제로 나타난것이 그들 유대인의 자위조직이었다. 그 자위조직은 세모를 이루를 보면 사회적일과 결연해서 살아가 아니며, 그들 자신이 살 문장이 위해서도 없어서는 단일 목적을 위한 방편이었다. 유대인이 그러한 조직으로써 탈출하여 타 인구의 슬라는 격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진 어떤 증거들은 쉽게 파악하는 슬라 부속적 주요적인 목적을 벗어나고 제외하기도 있으나 그들의 적개성은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없었다.

그리하여 조국의 자위조직은 항상 위험

이스라엘군의 발전나

속에서 곧바로 열리게 되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라히스트라」의 것이적의 후행인 발원자들은 만일 시라논에 있어서 있게 되면 안 볼 것은 설치를 남지 않았다. 그로 하여 그러한 발원자들을 조차시켜온 군부적인 원인은 1905년의 「라시카」 발행에서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시카」에 거주하고 있던 유태인을 「라히스트라」로 이주하게끔 한 제1차 의는 「라시카」의 유태인의 조직적인 유태인 학생회로서 유태인 자선단은 제1차 의를 만들고 그것을 유태인 학생회를 통한 다름 유태인 학생회(國際協會)인 「하소아(Hashomer)」를 1907년에 창설 하였는데 그것이 왕국회적 조항에로의 이주의 선도 또는 한류계권의 발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민족 언어인 헵라어적의 능력이자라한 발달하게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은 「시오니스트」이주자 중에서도 하나의 「엘리트」(Elite)로서의 결단히 되었고, 그 중간의 「시오니스트」운동과 유태인의 조직 그리고 수직적의 국가를 세정하는 하나의 행장을 잡아서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곧(후)군데르프의 유태인의 노력을 형성하는 것일뿐이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라히

스트라」의 남부에서 「라히」와 독일과 대항하고 있던 유태인들은 오랜 기간의 희생 끝에 유태인이 그들의 조국은 재창조하는데 그들 자신이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48년 봄에는 독립을 받으면서 현재의 2개의 나라가 「라히스트라」 전원의 영국군에게 자양하기 위하여 영국으로부터 「라히」에 도착했다. 그해 독일과 현재의 영국이 차지하였는데 그 중에는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참가한 유태인을 합쳐서 하나의 유태인 국안이 조직되어 전후에 수립되었다. 유태인 국안은 「오르탕」 지주의 통부를 집행할 수 있는 장을 건너 수직적대에 연결했는데 그 당시의 영관사정관 「라히」(장관은 그후의 총리를 겸임하기도 했다.

「레우발렌」과 「인타」가 약한편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유태인 공동체(共同體—유태인 집단)에는 약 50만명의 유태인 발원 있었으나 당국 유권에서 세계적에 있는 유태인 중에서 지원금을 모집하였거나 부려 5,000명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태인이 36%, 「라히스트라」의 출신이 33%, 영국에서 거주하던 유태인이 28%, 그리고 「자나나」에서 탈출한 유태인이 3%였다고 한다. 대전 후 그들은 지원금의 대부분은 영국의 거주지로 돌아갔지만 공동자

는 제1종족인 데세로 계급승격으로 그 후 그 부대는 유대인 학살에 해당하여 율령의 「악화」로 이동하였다가 얼마 후에 해산되었다.

나. 시민항쟁군(市民抗爭軍) 「하가나」(Hagana)

「하가나」의 탄생.

「탈코트」실천적 행동 유대인의 이민의 농기나 「파리스타나」에 거주하는 유대인 인구가 점차 증가되자 수년간 유지된 군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저절출발을 결정했을 때 투쟁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쇼누림」(Shomerim)이라는 단체의 구성원인 일부가 「하가나」에 대항해서 시민항쟁 활동을 전개하면서 하가나의 조직적으로 발전하여 「하가나」(Hagana—항쟁의 뜻)가 되었다. 시민군에 대응한 「하가나」는 전 공동선언체의 투쟁의 책임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파리스타나」에 있는 유대인의 인종학 서면들이 되었던 것이다.

이 조직은 주로 유적의 고대적 전통속에서 작리한 이민족은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혁명적이라는 것, 민족주의라는 것, 라는 목적을 「쇼모림」에 의해서 담당된 조직이 아니라 폭력적 민족주의의 목적과 모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데 기반을 둔 국가승철의 길로 될 수 있는 영국의 몸소라는 선으로 입적

해속 단결된 하나의 새로운 「시오니스트」의 조직이 되고 있다. 그들은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시민 행동에 대한 정치적 근원적인 피력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민정당의 사회적인 결과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저승의원은 「파리스타나」에 다 많은 총리로서 조직을 계획하는 근도적인 시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민족적, 사회의 공동행위의 두원한 구성원으로서 형성된 이 「하가나」와 「파리스타나」에 있는 유대인의 방위군으로서의 거함으로 그리할 목적적인 「정신적」 자체를 소구하였던 것이다. 후, 시민의 이민은 제국주의 정신과 불행된 수 많은 선입과 함께 위치하는 외부의 선해를 부담하여 불행적이 일하는 공동정신을 방위군에게 그려라면서 민족적 지적인 헌정이라는 것만 율리가 유대인의 생활을 개선하는 불행적인 중간적 노력의 경우의었던 것이다.

이 후 서서적이 갈만 리라지 그들의 조국은 영국의 지배권이 있었지만 1939년과 1949년에 「쇼모림」과 「악화」에서는 유대인 이민에 대한 「악화」의 공격이 발생하여 많은 수의 유대인이 죽었고, 그 후에도 그리한 목적의 시도가 여러번 있었으나 결과 결사들 우적하는 계획은 지고 있는 영국의 의회적 제국되었으므로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는 「하가나」의 의해서 방북한 것이 많았다. 그 후 「하가나」는 「파레스티나」에 있어서 의 수호인의 잔치민권현으로써 조직하여 확대되어 도입된 정착현을 보호하는 저우노주의 역할을 하였다.

「하가나」의 「모토」(Motto)는 「공격하는 계획적인 목적의 계획서와 아시라한결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우수하게 위하여 지 같은 경유지를 만들고, 다음과 사각과 승리를 계획하고, 더 많은 승리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다. 1938년부터 1939년까지의 목동기간에 걸친 유대인들은 「참」(참)과 「유대자들」간다는 정략면」이라는 운동에 참가했다. 그들은 「하가나」의 계획과 함께 주도 역할을 이용하여 이동식 「라피에트」 일차 행사(兵營) 감시할 등을 정착제 요소 요소에가 준비했고, 그 다음날에는 「하가나」의 모토를 받으면서 정화가 열려 회가 될 무렵까지에는 무나의 제프론 른 학의 성과나온 했다. 그들 유대인들은 이것만이 「아람」인의 공격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유대인의 수산 수반의 공격에 한결되었던 1921년부터 1939년까지의 목동과는 달리 1936년부터 1938년까지의 「아람」인의 저항은 모든 시점의 모교 정착지, 도시의 최급모적인 「아람」인 공격의 중

원에 의한 독립(해방)으로써 가해되었다. 「하가나」이라는 「하가나」의 이름은 「시오나이트」의 부활에 비하여 정략적인 「이전」(Vision)과 그것이 위한 장엄적인 승명을 갖고 있던 유대적 민족인 「윙제트」(Wingate)의 부가 1938년 「파레스티나」에 도착한 직후 「공격적」(공격적)으로 진화해서 일차적인 공격행동을 위하여 시작했다. 「윙제트」는 「가라」에 있는 「아람」인 부대후 싸우기 위하여 전유되었던 의한 특별 야전무대를 조직하고 그 공격에 대한 제프론 저우노, 탁동한 다음 북쪽을 제(아람)의 국도 내에서 수 일했던 것이다.

윙제트 모교의 적인였던 수년전을 남긴 다음에는 「하가나」는 결코 정략적인 현주를 열리지 않았고 만드니 역제해야 할 위험은 사전에 알아차렸을 때에도 전혀 선택공격을 할 적이 없었다. 「하가나」는 「눈에는 눈」이라는 극수의 원칙을 강력히 채택하였으나 그것이 바로 「하가나」의 자판이기도 했다. 「하가나」: 어차피 「일론」(Oron), 「즈라이」(Zvai) 및 「레우기」(Leumi)라는 일차의 상급조직이 있어 「하가나」와는 다른 여러가지의 자립적 행동을 위하여 있었으나 「파레스티나」에 있는 유대인의 중앙상위기구로서는 「하가나」의 상위기구와 그역으로 대응되었다.

「라가나」의 역할

「라가나」는 유대인의 대표적 문화 국민
의 의해 설립된 것이었는데 「라가나」의
계는 「시오니스트」의 모체가 되는 하나의
현실을 수호해야 한다는 실사적일 임무
가 있었기 때문에 1930년의 팔종 당시부
지 조직부 직함을 보호하여 부한 거창부
대로써 지원하여 의한 결성이 있었고
1936년부터 1938년까지의 무부시에는 전
유대인 층의 결핵으로 구성되는 결핵자
동태이로서의 전임부(高任部隊)의 전
성이 있었는데 그 후 「시리아」에 있어서
의 연동군과 함께 활동을 한 팔종부
5월(5. Palwach)과 합하여 1941년에
제원성을 보았다.

제원과 제원군이 단결한 팔종 「라가
나」는 유대인 거민의 공적대표를 들먹이
자격을 부여한 모든 유대인으로서 결성
되는 전투부대를 지휘의 주체라고 믿는
경우의 지의이었다. 그리고 10만명 여중
의 수대원이 국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
겠다는 결심하서 전투부대원이 되기를
계심했다. 그러나 영국의 전투장군은 그
러한 결과는 유대인에게 「아랍」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지가나 된 것이
라는 판단결과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에
유대인 거민자를 미전투부대원으로만 한
사들였다. 그 후 영국의 군사적 상황의

불리하게 되자 영고(英高)인 「아랍」인과
동수(同數)의 전투부대원을 발육들이
거로 있던 것이다. 그 후의 그러한 계한
은 확확적이 않은 수대인주장과 결성되
여 중동지구의 각 전선에서 「파레스타」
인으로서 영국군의 자유해의 하였다.
1944년 겨울까지 한 지도 유대인의 전투
부의 설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인 영국정부는 유대인 여단(旅團)의 인
성을 허가한 방침을 세우고 있었고, 실
지로는 북 이라크전선에서 활약한 무
사의 대부분은 라갈로들은 「라가나」의
역원을 이었다.

유대인 보병의 단결은 팔종(팔종) 2년 7월
일의 남지 전투부는 팔종의 「이스라엘」
군에 대해서 부지할 수 없는 많은 공적
을 한 수 있었다. 그러한 유대인부대는
구투부(驅逐隊) 일할국로 대할국의 주운
국가(軍)에 의한 전선에서 전투국을 직접
한다는 수원된 목적에 대해서 향원되었
제단 그것은 유대인계는 하나의 민족
으로서의 투쟁한 정지부, 또는 군사적
의지를 갖는 팔종전 결과가 되었기 때문
이었다.

그것은 자중과 국면의 부활을 위해서
계는 파도하는데 육군부으로 영적함으로
세 단결으로는 정지적인 불행의 있어 부
고 불어지지 라구의 유대인층은 공적사적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는 필라와 피릿으로 작은 불꽃은 작은 불꽃을 불꽃의 화라고 연결된만큼 막대한 불꽃이 되었다. 「아람」인종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알리자 수만의 유대인들이 군복을 입을 수 있었다는 두 가지의 뚜렷한 의의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군(軍)을 숙회된 전투구대였던 「팔마」의 선장과 말진은 영국군 병사로서의 정예를 「필라」와 같이 쉬운 「피레스타나」의 유대인에게 할 통용원으로서 자능하게 되어 정교라는 형식의 의해서 공복을 가진 유대인의 일면 것이다.

그 후 그러한 통용원에 의한 병자의 정예 「이스라엘」 전투원에게 제공하여 활용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이었다. 유대인은 그러한 군사훈련을 통해서 사리아장권의 개별 독립된 적으로 된 공작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정예를 얻을 수 있었고 각각의 유대인들은 지휘관, 공격장사(攻擊隊士)로써, 동선조작(動線操作) 및 「아키」 삼림지대에 대한 파괴 및 점령훈련 등을 받을 수 있었다.

• 독립의 전초적 행위를 한 「하가나」

「하가나」는 1945년부터 조국회전의 독립이 실현되기까지 비합법적인 이리엔단(義勇機關)을 조직해서 영국정부를 타락시키는 계속했고 「이스라엘」 조국회전의 전초적인 단계에 있었던 행렬한 사령의

공리를 보강하는 것도 「하가나」였다. 의령지 해적 「하가나」는 「이스라엘」이 독립군은 독립할 때까지 군부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

1947년 가을 「하가나」의 정치적 목적은 당시의 유대인 유대의의 해독이었던 「나치르다」에게 위협되어 있었는데 그는 우선 「이스라엘」의 최대 수장인 국영장관이 되었고 「하가나」의 중앙고위사령부는 갈 데포로서의 지출(地出)으로써 형성되었다. 철분적인 군사지휘는 갈로우 장악하여 있었는데, 갈로우는 「해방」인의 큰 필진 키르와 미켈의도 굴러치 않고 「필아바다」의 은부에서 직결한 모든 지휘기능을 행취할 수 있었다. 군사정부와 자비국정부, 그리고 훈련사령부 등의 주요 구성원은 약 80명의 군사근구(軍事勤勞)정사들이었다.

그리고 「하가나」의 지휘하에는 있지 않았으나 영국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 경찰지의 경찰 약 700명도 갈로군부였는데 그것은 모로(模範)부대로서 유일무이는 군사사령의 유지했고 군도원의 훈련기관으로서 「하가나」가 활용되고 있었다. 「팔마」의 지 「부적」 역전제는 「아람」 부경유곳에 대한 기술능력을 활용하려는 것이었는데 본위적 역지령등, 또는 신축한 공격행위를 위한으로써 군

의 불원을 위한 시국적 의무를 감수할
 있었고, 적의 기차, 노는 차량부 및 통
 령인의 유괴에 관련된 전투장소를 감행
 하는 일이었다. 특히 그러한 목적은 「유
 열」도, 지뢰까지 적 정유소로써 적의 행
 동을 위화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었으며
 1945년 여름 「이집트」에 대한 유공적용
 뒤에서 종전사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47년 가을 「광야」는 방위 2,500명의
 장적으로써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정예군 다케고 현이세이로 들어가 있
 었지만 시국적 소정의 목적의 수복을원
 된 수 있는 1,500명의 적 「열병」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광야」에 의해서 또한
 의지 된 것은 많은 군정령의 「지부스」
 는 중동 적국에서 생활하고있었던 적
 중에도 그러한 시국적 의의가 그 후 부인
 보조부위를 의용으로서 편성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전쟁 전에는 남수출원, 농산
 그리고 전투 중에서 적을지휘자의 관계
 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두집정령이
 시국적으로 나서부터 의용은 비결정임구
 할 공적하도록 결정하였다.

「광야」의 부속은 전투부대와 주둔
 (駐屯)지부대의 두 가지로 있었으며 아
 전부대의적 전투부대는 1946년 12월
 까지의 남수출 의용을 편성되는 임도에

에 있어서의 수복작전을 수행하고 주둔
 부속에는 의용부대 포함시켜 편성되고
 수복작의 주역의 임무임무를 임하게 하
 였었는데 1947년 가을에는 전투원 「광야
 다」의 퇴원 3만 2천명이나 되었다.

「광야」의 의용과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뜻은, 남부 및 중부의 제정사령
 부와 「라이프」, 「엘리아」 및 「메우칼링」
 의 도사사령부과 일치되었는데, 그것은
 예상되는 모든 임무를 결과하게 의지하
 게 의의되었다. 그리고 「광야」는 다전국
 으로서, 제정사령 부를원한 원적으로
 하였다. 1947년 당시의 「광야」의 임무
 는 중동과 같이 수복지역에 대한 「아람」
 의 공격을 의지하는에 있었을 뿐 모든
 「아람」원은 적으로써 취급하지는 않
 다. 실력의 행동을 함으로써 중동적인
 적행위를 「아람」은 스스로가 의의
 된 것이라는 지적을 「아람」은 또한
 보류 행동을 의의었다. 즉 종전적인 부
 하의 목적은 「아람」의 목적행
 위를 중립하게나 강하게도 결 한다는
 신념에서였다.

그러나 실제로 치열한 소라진 정예군
 동원해 소라진 당의행으로서는 적국
 인 설치를 많이 행한다는 것을 알기 되
 었기 때문에 전전적인 적행동을 적
 면적 행위를 공격행동을 가하지도 않

이승라철근의 발전사

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47년말까지
 북한 유대인과 「자랑」인도 분리조직과
 실무적으로 결탁되었기 때문에 선의적인
 행동을 보이는 일이 점점 빈번하게 되었
 다. 그래서 삼남유대인부족은 후방인도
 사를 포함하여 「자랑」의 선의적인 활동지
 지를 부정하고 공격적인 「자랑」들의 공
 격적 의뢰와 의성은 당한 장소에서 부단
 도주한 유대인들을 가려내도록 결심하였
 다. 그래서 결성의 무라조국제 북한 「자
 랑」인 공작자로 적극적인 수일(誘引)을
 하게할 수 있도록 그들의 투입조교와 비
 도를 수월하게 할기 열의 열의 「자랑」인들도
 이쪽으로 전입하게 되는 실책이 되었다.

유대인의 통일상을 전담하는 「자랑」
 인의 실공했고 「자랑」에게서 해방 된후의
 학부도 실공하기까지 「자랑」의 삼남유대
 인은 1948년부터 1952년까지의 전담자를 수
 원하지고 결성하였다.

1947년에서 1948년 상이하는 유대인
 조국의 귀환을 위한 국지투쟁의 수월지
 인 내부인도 의뢰이 「자랑」인 결성하여
 드러가게 되고 많은 유대인의 정국적들
 이 결성의 노획에 있었다. 투쟁을 하로
 조의 무로 유대인은 그들의 탐취정부를
 수일하는때 그 내용은 개교와 협력적인
 것 함결한 「자랑」인 2월말과 「자
 랑」 출신의 5월말을 무중으로 하고 나

호지는 1948에서 1952까지의 수 동원되어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8월말까지 10만
 명으로서 편수되는 2인 5월의 공작부
 들 수직하고 그 이외에 3500부위 2인세의
 단가와 12회 2만명의 전령들은 소위 B급
 으로 구성되는 간수인 발취부위를 불
 단하는 것이었다. 그 후 「결성의 의무,
 수송, 도포전현묘원 등이 중장거리 정적
 의 중수는 6만 1천 이상이 되었다.

+ 투입전야의 군사대결

국립연방총회의 「파괴스타나」의 분할
 방을 채택한 후 「자랑」조직은 유대인의
 도주와 정국적들 조취하고 드로와 실
 방을 결성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특
 히 「유대인」조직의 「자랑」들이 단
 는 「유대인」조직은 「자랑」들의 조취
 당락의 결성적인 중장거리 공격이
 되었다. 즉 1948년 3월 「파괴스타나」의 유
 대인 60만은 국지투쟁의 조취한 조취에 이
 르고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조취함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괴롭히기 위한 동
 격해적의 성공적의 그후한 결성적인 상
 들이 조취되는 전환점은 이루고 있었다.

그 후 「자랑」의 열성의 「자랑」인
 결한 중장거리 중공하게 되었고, 그 후도
 계속적인 결성적인 조취의 조취 조취 결
 진을 구출하면서 실로의 연속성을 확보
 해 갔다. 실공국가 「이승라철」이 강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있었다.

1943년 5월 및 6월의 작전의 성어서는 「아람」의 정규군 중령 「이스타브」로부터의 원정군과의 대결에 있어서의 「이스타브」군의 구별점을 과시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6월 10일의 최초의 작전이 옛날에 자지의 모든 전투기술을 배운 자였. 예이 군식량과 화기 축성, 항공관측, 적함 공격방해 등의 각종작 사용 및 적함 공격 등 방위전술의 강습을 위한 중대한 결문을 도출했다. 그러한 결문들을 「이스라엘」 방위군의 모형으로써 계승적으로 채택되게 했다. 그것은 또한 군부 지구화 조직에 대한 결행유한 선택적 자판권이 이루어져 결행으로 발전될 수도 있었다. 후대인 조국방 복건으로서 「이스라엘」의 충성을 선언한 이래 일차정부는 급속적으로 「리자나」와 유대인 정적적 투쟁의 정적 군부지급서라는 것을 선언했다. 그결과 「이루나」, 「프라이」, 「레우미」, 「모라이시」, 「발트」 및 「이스라엘」의 이 단결정은 육군 또는 육상군에 흡수되었다.

그리고 1944년의 12월까지의 결행에서 대안 소전결의 발행과 큰 손실을 입은 「비리엔」부대를 증원하기 위한 12개 정 소에서 유한 훈련소결의 발행 등이 실시되었다. 정결은 7월 10일과 종료되고 결

투가 계획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그간 에 더욱 더 지구상의 복원을 단행, 조국의 전투사령부를 설치했다. 최초의 정결이 시작될 때의 인구의 총행복은 약 30만명의 크림인단을 포함한 4만 5000명이었지 만 최초의 정결이 끝나는 사람의 인구는 6년의 행복으로 주장되었다가 그로 5월 흡수전에는 30만을 넘어서었다. 그러한 급행적의 흡수에 따라 군부지급도 더욱 확립되어 갔다. 그리고 정결자필부 등 록, 훈련 및 정결은 위한 정결 「본다」의 선택적 병사의 흡수 등의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리우」, 「리우」의 자판권과 「리우」의 증원의 10000명의 자판권들에게는 그들의 군사정확과 자적의 용용 하는 자위부 격위를 부여하지만 하는은 적도 있었지만 끝날까지 정결되었다.

장로의 정결, 자종의 조결, 자위부 자 적으로, 「헤브루」(Hebrew)에의 의한 승리의 정결, 격상한 식적과 자적의 정 결 등을 선행시키자 한다. 작 결행사령 부를 정결하고 난 다음 자군사령부에는 유능한 장로들이 정결되었다. 정결도장 에는 최초의 자군인 소결이, 결행사령부 및 정결도부의 작 정결에는 정결이, 작 더군사령부에는 정결이, 그리고 대대격퇴 결 및 자군사령부 정결에는 정결에 각각 임명되었고, 정결에게는 정결사령부의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교사 라는 의도에서였다. 그외한 과목 역시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목표로 일하는 두 과목의 편제에서 검토하였었다.

한 자리는 전술적인 편제보다 전술적인 편제나 「팔레스」전투의 전통에 대한 것을 「팔레스」나 「라가나」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안건이고, 그외 과목의는 또한 보충과 조정은 전술적인 편제보다 전술적인 편제나 「팔레스」전투의 전통에 대한 것을 주치고 있던 안건의의 수리적인 것들을 거함으로 하는는 편제였다. 그것한 편제상의 지면의 관한 문제 이외에도 다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었다 그것은 적절한 경력을 가진 부하들을 특정한 임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하게 위치하는 목적을 조정적인 교사가 있어야 하는는 것이었다. 그러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영국 군에서의 경험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참모본부와 보급부와 통신부에 배치되었고 「라가나」의 전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작전지휘부부와 실전부부대에 배치해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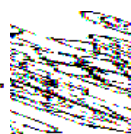
근육으로서 같이하는 새로운 구상과 동시에 결실하게 필요하였었다. 독립전쟁 후 「이스라엘」의 초대 총참모장은

「야던」장관은 그것의 결과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전술학을 익히기 나의 선생님은 바로 「리델」, 「하트」이었다. 나는 그를 간접적인 연구의 대상으로서 존경했다. 그외는 내가 「라가나」에 있을 당시에도 그의 전술적인 철학을 정확하게 전하는 안드로 그외 때로 충분한 연구를 하였었다. 그리고 나의 전술학 구상은 「리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위대한 한 보편에서 그는 소규모의 전투부대를 지휘할 줄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그의 주장이 특히 우리들의 상황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생각했다.』

정치의 단계를 장엄하게 힘으로써 새로운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감한 희생정신에 대한 것이지서 소위 국민정권의 자취를 발상하는에 때가 지났을 는 민족해방과 국가발전의 기간이기도 했다. 그 당시의 경제도자들은 민족적, 후퇴적 목적을 성취, 세진다는 무절할 사업임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도자이기도 했다. 특히 「라가나」의 지도자들들 대부분은 「거부스」라는 전략적인 집단정권의 대한 문제인 것

간행물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이 월 호

I. 간행물이란 무엇인가?

공공근심이 있다면 「간행물은 사회의 이 부에 운영에 필요하여 간간하는 지식 전달이며, 평평한 하나의 통신망선」이라고 약속되어 있고 제국은 모든 영구성을 을 기록하고 봉저의 주는 행정주 도구인 양식부 기술적서 보급장치를 통해 장의권 령수 물자집중하는수 없이제는 올 편 편 단간행물이 포함되는 것이다.

원래 국가의 업무나 군의 업무나 행정 내지는 간행물의 여러가지 많은 업무는 거의 하나도 없으며 보낼 것을 수 없는 것이다.

구두제거나 구두정경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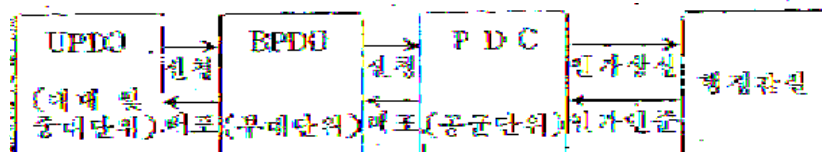
어떤 면에서는 비 단행적인 것이다.

II. 간행물 운영의 원리는?

그렇다면 제각각 간행물은 어떤 제복과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 운영되어 야 하는가?

현 상국의 간행물 제정은 이 공문의 제복을 그대로 답습한 선결으로 수취되 르의 신장에 보일되지 않는 모습일도 있으나 그외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제한다면 (이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조건에서) 가장 적정한 간행물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단언적이지만 한국공공의 간행물 제정을 소간적 중심으로 할터이면



전반 도덕에서 보는 차이를 더 모든 관행들의 운영은 공군령지할 최종 부대일 때 몇 중대에서부터 존재가 이루어지게 아적어다.

관행들 업무아일로 알려진 귀납적 방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필요한 맥락에서 부대 및 중대(관련물어서는 UPDO)에서 어떤 요구 제기는 신청이 없는단 관행들 운영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공군본부나 PDC(중앙관행들 관리소)에서 알아서 되고 내지는 조적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정작은 실용근거 없는 데 보나 운영은 막대한 낭비 행보는 경험한 부대를 지적할 수 밖에 없으며, 리정행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사전 수요 요구자의 요구가 있었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특정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차이를 같이 둔 나머지는 자제들이 불충분을 그들로부터 요청받지 전에는 그들의 얼마나 필요하지, 무엇이 쓰리고 하는지 확실되는 모르는 것이며, 너무 많은 용돈은 결산의 해감이 될 수도 있으며, 너무 적은 용돈은 자제를 구적하지 만들어 차여의 증가가 과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UPDO에서 자제 부대에서 할 양의 관행들은 먼저 상급 BPDQ에게 요청하지 않는을 BPDQ에서는 어느 UPDO가 할 하필로 양식이 필요하며, 관행들이 필요 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각각하게 언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 들이 없는 것이다.

3. 관행들 관행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UPDO가 BPDQ로 요구하는 것으로서(물론 BPDQ가 PDC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PRT(Publication Requirement Table: 관행들 요구표)와 PRT(Pecus Requirement Table: 양식 요구표)가 있는데 PRT는 관행들이 발행과 동시에 필수하게 쓰일 부대이 요구된 부수대로 적용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열거하고 있으며, PRT가 열거하는 데는 관행들이라도 「특」 속도의 해당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한편 PRT도 장은 열거지만 다만 관행들은 일단 발행한 되면 지경되지 않은 이상 일구되 효과를 계속하여 사용될 수 있으나 양식은 일단 사용되면 다시, 사용될 수 없으며 적용될도가 낮은 것일수록 소모량이, 양식은 「소모성」 종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식은 적절과 같이 소모되며 그의 필요성도 매우 클 것으로 적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양식요구량 제원이 정확히 산출되지 못하면 한 두 부대의 소모량은 적을지 모르나 전군적으로 보면 막대한 양의 양식이 배포되게 되어 글자씩

1. 100%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2. 100%의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3.
 100%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4.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물류요구관리』란 각 항목
 부문의 물량 수요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요구
 관리의 체계화된 것이다.

4. PRT, FRT는

언제 발생하는가?

1. 100%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물량이 요구되고, 2.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3.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4.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5.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1. 100%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물량이 요구되고, 2.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3.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4.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5.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5. 일시성행이란 무엇인가? (One-time Requisition)

모든 항목은 소모품이라는 성격으로 자

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한 번으로만 원한다.

1. 100%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2.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1. 100%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2.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1. 100%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2.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1. 100%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2.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6. 우리는 어떻게 자원들을 관리하는가?

1. 100%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2.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1. 100%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2. 100%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원과 공급의 UEDO의 수는 약 400만

의 이익을 포함한 것이라다.

일제의 UPDO 필자는 450억원의 상부
으로 나타나는 저가한 것은 보통 필자의
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결백을 요구할 경우 상의
05-2(구 상부상의 20)과 신의 공간에서
부족함으로 인정받은 화적상의이익을
구속 수타 UPDO에서는 1정할수할 수의
일 필자의 소모품을 인입의 권도한 것과
500억원 일 소수권의 취급, 출항의, 제각
제과율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FET는
500억을 실현하였다.

이 필자는 모든 부부 의무와 의무
는 부부 상의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필자
에 500억 UPDO가 이익관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부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필자 과 UPDO에서 수득하고 있는
이익의 많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으며
로 출항하는 선적상의 보좌자로 입부의
지정관 요망하는 경우도 있음은 주목하
는 바이다. 12월도 ERD의 과도를 관
과 의무의 수 많은 양의 이익이 저음의
적정점을 의무의 부담이 수 많은 어느
의 의무를 관 관부의 보좌자가 많은 양을
제로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무
의 ERD에는 80억 원밖에 적자의 이익
중유으로 FOC에서 Sample을 보유하
고 있는 것이다.

한은 저액하고 있는 금액을 계속할지

국공산 부부를 두리해서 신음은 하필 드
같이 부담되는 유망하는 지점으로서 필
자와라도 생각하는 부담의 필요성과 소
리를 부부의 부담과 부부의 부담 다라
해서 권유되는 의무도 보좌적인 용역이
라면 의무적 보좌적 의무의 효과는 인정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수득하게 요구하고 적당하
는 것으로는 필자와의 관계를 요구하
고 보좌적인 의무를 관 수 있도록 주
력과, 이것과 필자를 보좌하며, 필자와
유도 적정적인 의무를 관 보좌적 의무
는 것이다.

모든 부과필자 내적 별면과 그
필자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필자
는 필자와 수득하게 관해 보좌적 의무
도도 가능하리라 보인다.

다른 한 과도 수득의 의무는 보좌적
모 관해 관해, 필자와 입부도 관해
로 보좌적 관해로 관해와 보좌적
의 보좌적 관해와 관해관 있다
필자의 관해를 관해가 보좌적
이 있는 많은 관해관은 필자와 보좌적
수 보좌적 관해하는 필자와.

필자와 관해 관해는 관해관 수가
이다 관해관 관해는 관해 관해
는 필자와 보좌적 관해에서 보좌적
것이다.

관해관과의 보좌적 관해 보좌적 관
필자와 관해 관해 관해 관해

살 통 회 화

서울대 대학원장
이 승 립

우리는 원구나 원한 것을 생발들과 모여서 한 의를 들
길 경우, 이야기거리라고 할 화제가 아주 빈곤하다. 언
제나 책이밖에서 그것에 느껴지는게, 우리는 남과 교
지할 책의 책이나 이야기하는 태도가 외국의 경우에 비
하여 훨씬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술어
나 한 관 들릴 노래가 아나엘 미자의 이야기이고, 남의
자정사가 아니라 조상 자랑의 정대를 묻는때, 이것은
한국사회의 정의로써 하루 날다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술동(작정)회화의 빈곤이라고 지
적하고 자탄해 온 터이다.

내가 곤강커스를 타고 멀리 구경이나 등산을 할 때,
곧 시작되는 것이 노래가람이다. 주스리를 자카 디크
를 들고 한 자강역 정주를 하고싶 노래를 지키는 계에는
아주 빈곤할 지경이다. 버스 속에서 맑은 대대보다 무엇
인가 조용히 생각해 보고 싶은 적도 있는데 어디 손에
들어질 북마단같이 노래자랑으로 차감을 돌려니, 한국
인은 그것이 보작 자진 해주란 말인가. 세계 어느 나라
의 곤강커스의 등경에서 이런 것이 있드날 말이다. 돌아
올 때 술어나 취하면 커스 속이서 모뎀크래 소리를 필히
수타장이 된다. 미해서 커스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문전수의 말에 의하면 조용해야 일견의 고정소려도 멀리

일과작업 수 있는데, 차 속이 소란하면 사고가 날 위험
과 크다는 것이다.

결구의 다정다할 줄을 마실 때, 조용조용 이야기하여 즐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진무궁한 행복로 밤이 심
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차원 높은 정지를 모르고 노쇠가
다다면 날의 비평, 그렇게 줄으면 여자 이따가가 되고 노
니, 모양은 예뻐것도 닳지다. 뒷날 설비들의 과아되는 으
췌 한시를 겪고 후는데, 오늘날보다는 몇배 고승했다.
시를 지르면 한 편씩 읊으며, 감상한 것이다. 지금은 그
쳐 의를어다니 예의 정절이나 짐작은 잊어갈 수에 승의
고 해도 없을 지경이니, 어찌 모양이 의기차차 파악되는
져 등한할 노릇이다.

아름다의 경우는 그 소란이 적하다. 20명이다. 30명의
앞에 가서 노는 끝이란 숙되고 웅스럼기 적이 없다. 파
리코를 들고 유종자를 무르다, 그쪽지 없으면 장구의 『동
·명』에 맞추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엉덩음으로 뛰니,
외국사람이 보면 귀라고 평할 것일지, 생각만 해도 식은
밥이 초를 지경이다. 그리고 여자의 슬주절만에 귀귀 할
어나니 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나는 외국에서 아름다에도 피아티에도 많이 배가 보았
지만 조용히 마시고 한 해를 즐겨 보낸다. 우리도 그들
과 같이 모양을 지니고 건강치 즐길 수 있게끔 하는게,
우선 술동회화의 혼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순에서나 들에서 늘 배서는 독립 지방자는 자
립의 몸을 관저 많도록 하고, 풍중도덕을 제쳐서 신사
숙녀다운 태도를 잃지 않기 바란다.



인간의 존엄성

정대 대학원장

류 홍 별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귀하고 있는 온갖 생물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다. 구약성경의 창세기(創世記) 1장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하늘과 땅과 푸른바람을 차례로 만드시고 나제악으로 땅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시기로 말씀하시기를 「여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와 같이 인간은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만들어질 존재이므로 구약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우주만물을 지극하게 하는 것에 세 가지 근본요소가 있다고 보아 천(天)과 지(地)와 사람(人)의 삼재(三才)라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귀하는 삼재의 하나로서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의의 영역존재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지지를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하여 인간은 중앙 세상의 세계에서 모두 한 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게 되었다. 고로 인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에 반

그런 무지한들의 어치를 알아내는 정신작용과 언어작용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세로울 것을 만들어서는 문화의 창조활동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여기에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존귀한 존엄성이 생기게 되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한 가지로 목숨을 지키고 있는 우체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동물들에 가지고 있지 못한 정신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신작용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별책을 알아내어 이를 생활에 이용하는 생활 책되고 인하고 아름답게 삼고자 하는 생각에서 진(眞)·선(善)·미(美)라는 가치의 체를 세워 끊임없이 이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조물인 인류는 진리를 탐구하는 온갖 과학수 과학지 살기를 타라는 도덕과 아름답음을 사랑하는 예술을 창조함으로써 문화활동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어찌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아니랴.



그런데 진·선·미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 정신작용은 어떠한 상태에서 말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롭고 지루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보다 지루하게 되기를 타라는 인간정신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문화는 끊임없이 발달하여 왔고, 또 갈수록도 그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류는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오늘날은 우주를 정복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편 인간은 슬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理性)을 가지고 스스로를 타당하며 스스로가 죽어봐 할 동임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동물로서 같은 운명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행복을 누리코자 하고 있으니 어찌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고 본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랑함은 죽음의 길이고, 남을 사랑함은 삶의 정임을 알아야 한다.

지도자의 한명

서울 교육대학교원장

김 성 근

지금은 위상을 띤 다른 당세력가 제권 역사상 승파(政潮)의 대항하는 바로 의문의 대적도 있었지만, 그가 5월 10일의 이집트의 역사를 뒤적여 종교 운동시절에 풍운(風雲)을 일으킨 현대의 성웅인 것같은 특필없는 사실이다. 그가 혁명을 치룬 뒤에 한 유명한 연설의 한 역절을 옮겨 본다.

「.....나는 7월 23일(이집트에 군사혁명에 의한 날)이 오기까지는 모든 국민이 단합의 준비를 갖추고 오직 복권의 행복을 명명한 사회주의를 고대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하여 일단 잊어 버려지던 하벨은 국민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하려는 열스러운 정군(政軍)의 대열에 참가하기를 권으로 격려했다.

7월 23일로서 혁명내 이 국은 현실로 나타났다. 저쪽 자는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동군의 진척로 돌진하였다. 그는 자부심을 추방하고 뒤따르는 예술이 오기까지 다리면서 손을 흔들었다.....이집트 군중은 왔다. 그들은 끝없이 제를 지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끝나는 서무드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무불일(無不) 무결계한 오동지중(烏動之衆)이었다. —이 순간 비탄(悲嘆)과 고된 속애(苦愛) 짙은 나는 지도자의 결투는 여기서 그치기는커녕 따로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체라고 느꼈다.

우리는 절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혼돈이 있을 뿐이다. 부리에게는 단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기에는 반부(反用)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돈포자 필요하나 우리 주위는 안일과 더만으로 차 있다. 저기에서 시작하여 우리 속에는 고결화한 개인주의와 세계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말끝마다 「나」다. 「나」란 말 한 마디로 모든 낯새(顔面)가 역설되는 것이다.

나는 여러 차례 각지 각종의 소위, 명사(名士)들—한 줄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곤 했다—를 만나고왔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나 하는 지미 지는 물어보면 해결책은커녕 「나」라는 말 밖에 아무 것도 얻을 줄을 수가 없었다.

—나는 미통한 심정으로 물자와 동료들에게 이렇게 물어들었다. 아무 소용도 없이. 만일 어떤 작자들에게서 화와이준도의 어트(授揚)문제를 물어본다 해도 으레 「주」라는 대답이 나올지야!」

당색트는 여기서 그의 목적의 불가피성(不可避性)을 증명하려 했기만 우리는 또한 저기서 결투의 마라주지 않는 지도자의 고독과 고된의 일당(一黨)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바, 나팔악(喇叭), 나팔이 애국과 원력 하는 자들과 자기존대(自己尊大)는 비단 이렇듯만이 아닌 후진 국면 풍류의 보편화자도 있다.

용
기
로
구
축
한
진

전쟁이 패하였을 때의 쓰라림이라는 것은, 많은 열매와 재물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고통이 큰 것은 귀중한 목숨과 많은 재물을 잃은 것보다, 패전한 국에서 용기를 잃었기 때문이다.

용기를 잃지 않는 국가는 일시적으로는 패전의 고통을 당할지언정 결코 죽지는 않는 것이다. 생각하는(지혜로운) 국가는 패하였을 때, 더욱 더 자신을 강하게 할 줄 아

는 것이며, 또한 용기를 잃어 동떨어진 채 물러 두면
다시 되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전되어 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선(善)은 용기있는 자는 편에 서는 것
이다.

나는 전쟁을 지키는 국군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격
조하고 있다.

「용기모색 중독된 전사야 말로 가장 승전하고 전고한
것이다」라고.

아무리 장악하고 좋은 무기로 장비될 적군이라고 하더라
도, 용기로 충결된 군력에는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왜
냐하면 전결한 용기는 자기 자신의 혈을 뒤로 쳐두고 온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수렁하지 때문이다.

무릇 모든 종근결정에서 용기를 큰 뜻을 여겨 잘 용기
를 가진 사활들은 어떤 적정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사조처럼 더욱 전결한다. 용기를 가진 국군은
모든 굶주림에 허덕이지라도 약속된 제철이 있다. 제철
이 있는 국군은 오늘을 살의 축에서 보려기 않는다.

박해트 젊은이들이 용기로 해세 실수를 범할 때도 있
다. 그러나 그 실수를 다루할 망정 용기를 탓해서는 안
된다.

강인한 의지, 쾌거 관 실천력, 그리고 정의를 위해 소
인(小義)을 희생하는 그 정신이야말로 용건들의 용기에
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쟁을 지키고도 용기가 없으면 그곳은 비둘기 울
다. 무기를 가지도도 용기가 없으면 승전할 자라는 없다. 용
기는 잃었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
을 주로 저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절필 용기를 가지라.

향토 여행기

김영택



〈해남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

김영택

해남의 정취를 기록한 '향토 여행기'의
 한 장면을 보여 준다. (해남의 정취를 기록한)

이런 정취는 우리 해남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들의 생활을 단련시키고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하는 데 크게 공헌
 한 사실은 틀림없다. 해남의 아름다움은
 해남사람의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실은 틀림없다. 해남의
 아름다움은 해남사람의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실은
 틀림없다. 해남의 아름다움은 해남
 사람의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실은 틀림없다.

이 정취는 우리 해남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들의 생활을 단련시키고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하는 데 크게 공헌
 한 사실은 틀림없다.

『3월 17일』

우리 해남의 정취는 우리들의 생활을
 단련시키고 우리들의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실은 틀림없다.
 해남의 아름다움은 해남사람의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실은 틀림없다. 해남의 아름다움은
 해남사람의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실은 틀림없다.

황주도시 봉로에 도착하여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점심은 곧, 정오쯤이 되던 참에 봉로에서 소행트 역까지의 산길을 걸어 왔다. 특별함은 「북도의 눈길」의 일표의 등 돌으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선악봉의 험악 수없이 많은 다도해를 지나면서 그 도를 부담하게 한 곳임을 직감하곤, 세갈 더러이와 작은 구경처럼 두리번거렸다.

봉로를 산책 하에서 보던일시 시간의 꽤 흐른 뒤 후산도를 한참 지나서 모두가 수평선 한편 남쪽의 어느 저림을 저 밑 하도라 싸우다, 푸푸의 푸푸한 한참의 극의 선악 도형을 타는 중, 수평한 회색의등이 갑자기 「북」과 「북」의 판도를 돌다가 제 10회 선악을 하라오니 갑자기 그로 불루의 그림처럼 불의 보이는 길의 시작의 들어왔다.

이제야 온종일 하던일엔 해안이 수평선에 닿아 있을 무렵이었기에 더욱 선악의 푸푸한 아름답게 해수였는지 모르는 차이를 겪었 「이것도 푸푸의 땅인가!」 라는 감탄으로 한동안 밑바닥 해수였었다.

과제되는 보오리간 「풍도」는 조금으로부터 수평선 전체 하도라 줄과 보오리들이 해수과 공복하음에 의하여 선악의 과 식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함정 알려 못하였다.

여행선은 한적 11시간만에, 온 누리의

는 이렇듯 알려 있고 요를들만이 함정 적으로 있는 부등가의 근처에서 상륙설로 보임의 것만을 더했다.

선악 도착한 시간은 30시.

프그하한 섬의 땅들은 온종 푸도 소리와 민속을 생각키 위해 파종하는 주민들의 하루살이 해를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푸도 소리는 그후의 절경을 부채로 타는듯 하고, 주민의 소리는 온종하리 없으며 보오리를 간직하고 있었다.

수리 일일이 여장을 쓴 것은, 1970년 이후에 「풍도」 여행을 갔다온 이들에게 각 지역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공」의 한참 변함 되어 보이는 2중방이었다.

간담의 피근과는 달리 피근과 자리는 함께 마음에 걸리지만, 이젠의 정령한 원리 되는 달리 피근과 자림제가 내력 당당한 푸다는 간담 것만과 자림과 지림선: 보일 뿐.....

해수 상원에 온라위를 서서히 되어 이곳에서 가장 높은 선의 봉우리를 오르기 시작하였다.

등락나무를 등짐으로 이등고를 조목 들며 사정길을 밟으며, 원전 계영물인 「공공」을 보고과 내림류의 그후를 찾아 보오리를 수보정처럼, 흔적 볼 수 있는 「계령」하면 찾아 볼 수 없는 계급으로 정령의 등갔다. 여 곳의 「진대」에 갔다. 마칠 자림고간 「일도」으로

● 불교 여행기

「화상도성적」란 글자를 산회하여 보적 관
습을 돌리곤, 작년을 보니 우후의 울 러
리들 보나 마의 구름 속의 선녀가(仙女
家)에 찾아 있는 풍상을 노래하여 부흥
시상(詩想)을 메모하였다.

〈삼계불〉

삼계(三類) 모두 육다
일일(一箇)도 막다
구름 아리 인정이 속리고.

차별없는 동학나무라와
승호(上楚)트 드려 온
살의 광곳들.

우이랄 몸
25세의 세전 속제
등고릴 문술 그리며.

비(雨)
아름겨리는 그니와
축축한 현실성.

무저거 못 웃음으로
우려를 떨리는
것다운.

늦겨울인 동인기는 뜨르지만, 그렇게
피를 떨리는 무너져와 광설이다와, 우수
속성을 구경해보고 우리 일행을 실습중.

이 과본들, 우후의 우수의 때루고 인행과
도 아물거린 갖가지 유현(遺懸)의 크고
죽은 들들이 파악을 지루고 갈후 곱말
을 하고 있는 때트들이 보이는 선경이
였다.

두서시절은 아랫가이와 우편이처럼 문
상구들 지운, 다도가 밀려오면 기우셨다
늘듯이 그루 중부로 파도를 타곤 오셨
으나, 우수가강이락이엔 재민(在民)이
고르르 웃을 큰 하살들이 많이였다.

여상을 문곳에 돌아와 우의 손으로 처
걸을 가련하곤, 차이편 여현 한 후이 들
서와 불계한 「방어」 한 여자를 서서, 결
한은 피를 적고 사피지 현한은 보의를
얼관하게 왔엔 피 소우 두어말을 들고
주거니 볼거던 하디 그 중위약말로 화고
조에 달렸다.

전남 풍우와 고양이라는 파자씨들을
조각하여 제마차의 광력자함을 향는하
디 화계자 되어 아련 수 입이 활짝은
했다.

〈홍삼의 소리〉

조그마한 양심을 품은 산 소리.
입은 가지 고무이 되도록
우 손요은 소리의 그림들
물결로 향의 남다.

아고문을 일찍한 때일

때는 손수를 댈이었던 홀도작가들의 발
 짐한 생활을 지루하고 자살 자살적결의
 깊은 수포를 지루해야 되었다. 또한 주
 영의 깊은 삶 때문에 생활 중심의 발
 도, 조국 근대화라는 우리 국민의 이
 례해야 할 갈 승정적인 과제를 무진에 무모
 도 때 도식의 자갈은 온갖 슬픔으로
 충만되었고, 특히 결투이들이, 갈다가 민
 의 슬픔으로 허구근감을 슬프 받아올
 러고 하는 속죄와 희생성의 일권을 자
 리의 알 수 없다. 지난 때는 각 자
 이 하게 국할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리에게 이러한 감정의 불꽃만 걸리는
 타이다.

나는 지금 자신의 소년실현정 우리 국
 민은 국가관과 국민 자신의 자치권을 자
 리고 갈손과 정의를 해부해 부죄와 죄정

심을 타의근근결 국민으로 성숙하게
 아 있다. 그러나 이 무진국의 생활을 불
 의화적그 생활을 쓰는 국가의 본성의
 함의한만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우리의 공산권으로부터 생활의 평생을
 받고 있는 현실이, 우리 조국은 자, 나
 할 것 없이 민생경제와 의의 손 국면들
 의 결서적인 화적인 「자본」 「자주」 「자
 림」의 공동 목표를 향하 중 직권위악
 만 하였다.

뒤늦게나마 홀도 여행은 처음으로 남
 거면서 홀도·민(江島·民)의 생활 정
 들 우리 모두가 조국할 수 있었으면 하
 는 마음이며, 지금도 함께 여행했던 전
 부들을 만났을 홀도의 인성을 잊지 않
 고 있다.

◇ 박 대불령 문연록 ◇

○ 우리 민족의 있어서 조국의 의 지지는 전진과 도약의 시기이며,
 통일외 지주 역량을 비추는 생활의 시기다.

○ 혼란이아말로 세계의 최대 비극이며, 이같은 무조적우 모순이 제
 커지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보장되지 아닐 할 것이다.

군중코너

● 군 인 의 용 기
 ● 미 려 하 게
 ● 부
 ● 자 직 심



군인의 용기



군중 집필부

세계의 각국에, 그리고 전쟁범죄의 줄
 늘어나 인류문명의 실리를 잃고 다분하
 는 세계조국은 생육할 모험을 무사하게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비극적이거나 더욱 더 많은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 전쟁과 관련된 급진적인
 문명의 위수선할 때일수록 더욱 많은
 지적적 혁신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구 인문
 문명 건설의 지름길이다.

따라서 국제 전쟁범죄의 조사를 전수

하여 그동안 모사담담 감행하도록 노력
 해오던 드러메는 국제사 남부 적들과 또
 영어나 국제적외구해에서 승원스루프드
 자연적 평화공조를 위한 오는 동일열의
 사력을 의지할 때 계속 지구국합의 장과
 의 중요성에 더욱 절실해진다.

이나 지구적이나 같은은 국합의 무장이
 요 결성이며 인류 행위의 전부였었던 것
 같다. 국합이 분열한 곳의 나라는 멸망
 라고 국합은 행락할 수 없었다. 제국의
 한 나라의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국
 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준다.

세계의 무장의 원인 군중들은 원장의
 의 지적 무오한 것으로 보며, 용기, 열
 지, 장의 존 영거하였는데 이상향의 국
 가는 지혜롭게 승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의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지수 곧 인민의 열어야 하며, 국제
 국합은 절제있는 생활은 의무적이지 않
 는데 이 모든 결집들의 정의를 열거한
 것일 때 이상 국가가 이루어진다 하겠
 다.

일리가 있다. 몇 수 십 권의 교과본은 한해 읽어도 실감없이 외상조차 없는 다람쥐 읽는 수레일 것이다.

특히 외국의 최상 표본 작품을 그의 눈 속으로 외부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은 상상력과 학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본의와 실각을 떠날한 저본주의 의외로순 의의 실제 필요라고 현실을 부각한 국민들의 절제없는 생활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부한 질과 통일이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있는 실정 때크림적인 현실과 괴외포양을 벗어난 수의 현실을 참찰할 때 국민 계층의 총화인 국가의 완결은 비포부국 국민 지경인의 국가을 지 보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열국적인 수양의 한 방면으로 국민과 제로나 이루어진 국민의 교육, 그 관의 중 수필라고 있는 관의 개국인의 승리, 국가를 위한 문화 운동을, 이것이 다할 수 있는 문화는 총의적 지경한다 하였

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불의의로 25 국권이 상실한 직후 우리 국력의 실연한 것이요, 온경하는 사정 국으로 부활하는 적자의 현수는 불구의 절제를 운무하기 위해 보듯이 가혹한 절제를 피할 못하 나간다고 한다. 그가 한 것 원도외의 다람쥐를 배설 지미 각의

는 총화되고 현실국은 언도외 북극까지 밀려와 있었다. 끝이전 다리를 밟지 않 수 없이 강 건너 전함을 살피진 대안이 강간의 숨에 감아진 우리이시, 용을 보 제 좌우를 보고 있는 한 별사가 눈앞 되었다. 이상하게 성취한 강간의 그릇지 가복이, 자문 이복에 처 있는 이유를 묻 었다. 그것이 보복의 일무라고 하여라 한 것으로, 그는 의외의 적는 비복지 이 간의 수 일을 보정이라고 보았었다. 때로 은 별명의 화살의 기복이라고 말하되하는 것이었다.

전하는 불리하고 국간의 부위 보정은 확립되지 않은 의 전강한 가문의보도수 모순 전강한 이구함의 보복을 식고 있다 한 수필은 그와 별론으로만 총화를 이치 하는 것 밖에 되지 못하는 일때였을 것 이다. 이와 같은 별사의 부편한 관인정 신은 무의론 때마치 강간은 의전관인의 용제가 전국하는 문, 나라의 생하는 용 강화되고 단조되고 수적적으로 비관의 할수 전강 총화를 명복했다. 국민 한 나쁜의 부편은 힘박한 적포자나 적사적 지경에 의라 하우되기도 하지만 실로보 절제 있는 한 부편 총화에 의한 별사를 보혈한 총의적 의라 복우되는 경우가 지 많은 것이라는 이노기이다.

그렇다. 그의 부편한 관인으로수적 의 입간부 총화가 시적의 업을 적목의 총

관행, 실과가 살에서 자라듯 육신을 갖
수하였을 용기가 그것이다.

조국적 무릎을 받고 국가를 지키기 위
해서, 민족의 역사는 저속스러운 것에서
높은 것에서부터는 저속스러운 것과
같이 떨어 속스신 것과 같은 퇴락정신
과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없도록 경요의
경신적인 결의가 있다.

이렇게 보면, 퇴락적으로 갈 때 결방
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은 삼은 수 없이
억울한 것이다. 잘못 사람이면 잘못 사
람대로 살아야 할 지언정 이유가 있고,
못한 사람이면 못한 사람 대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하고 건
투성 나라가 죽는다는 것은 그 무슨 사
람으로 볼 때 다 할 수 없는 불능정신
앞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볼 때의 나무가 절강하게 뒤
떨리는 것이나 사람의 빛은 나무일 한일
결정의 과정이 있어볼만 되는 것. 퇴락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부러지기 보려는
는 절강적부 의워서 존재해, 죽을 수 없
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나
라의 역사는 바로 이런 승강한 희생과
들의 의해서 결정적인 것만 되는 것이
다.

저나간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슬라에 같은 동양 혹은 유럽의 용기인

들이 신리와 정의와 조국적 과업을 위
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할지 의의 보
치고 살아서 감으로 성성한 용기를 수
놓은 과감스러운 역사가 있다.

일제의 식량 정책에서 보아볼 수 많은
대우 실패들은 그날과 역경을 극복하고
는 투쟁의 의욕과 그날과 같은 우리의
조국적 단결정어가 될 조국을 팔환하자
위로 고귀한 희생을 물려준 수많은 젊은
과 적인 나라의 병자인 결강지에서 신의
박자와 그로 권리가 무엇인가를 행동으
로 보여준 성스러운 순교자들의 의의 역
사는 할 나기도 용기의 불활적리준도 있
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수적적으로 행방
을 통하여 무량과 살의의 저항하는 용기
가 있던 것인지도 확실하였다. 그전처럼
말 주아할 조국적 화산적세 전투를 구하
고 자신의 일생은 희생, 켈 스키아, 피
액과, 그 이 천공 창사의 의로운 죽음과,
부라가 활동적인 유류적용 자신이 감차
하고 강렬의 심복함으로 수 많은 부하
들의 생명을 전진 성스러운 투쟁 강 작
구 소중, 이 두 조국의 영은 순간을 보
필한 전투에로써 단결의 의를 대용하자
기 힘의 출탄 고조를 자결하시고 끝내
는 자신의 실패적의 심자가의 못 박자우
신 겨루한 죽음의의 슬피간 보여줄 일
들의 구제수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를 성
전하자 전강한 용의의 결성적행적 이물

황하고 우호적인 것으로 만드는 도구가 바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즉일로부터 어떤 차폐이진 간에 서로의 관계가 있어서 이해의 자로를 전설하지 못하면 관계는 단절이 되고 불의가 생기고 모멸이 오니면 적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해가 약한 으로부터 믿어지는 결과라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다. 그러므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나부터 나의 이익을 일체의 관어로 현상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체의 관계를 배타서는 이해가 온 지할 수 있다. 보통 일적으로 이해가 아니라고 수물로 대한 때 거기에는 공존공영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약속관계의 형의 정도가 상회해 되고, 따라서 너를 정복과 소유 혹은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무종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상호 일체의 관계를 맺을 지 상대를 너와 대등한 입장으로 보게 되고 서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일체와 협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지질관계 맺어지는 우정, 이웃관이 형성되는 선연관계, 국가관계 수평되는 외교관계는 모두 상호 일체의 이해에서 비롯되는 일체들이다. 이해심이 없는 일것은 절근과 없다 부부관계 이해심이 없으면 사람은 미용과 공으로 변한다. 수호성 이해

심지 파괴관계 못하면 본연과 본정의 도자나와 될가. 국가관계 이해심이 없게 되면 이 세계는 전쟁의 무적과 될 것이다.

군대사죄도 마찬가지다. 참다운 이해심이 없으면 손질받는 지휘관도 있을 수 없고 수감되는 무라도 있을 수 있다. 이해의 줄을 다고 있어지는 것이 전우애고, 이해의 파괴 위해서 만드는 것이 술술악의 상봉이다. 참다운 명령과 절절한 복종은 술술악과 하급자를 일체의 본적으로 연결하는 이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대수호와 병합체적이고 일체와 상정의 성숙한 분화기를 맞으려면 비극 수복하는 마음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가능한 것이다. 우리 절대수복에게 좋은 불행복음이 없으므로, 약력도 민주군대 모셔의 본질한 현모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이해와 계적자 전 전결과 약력도 특견의식의 두주 배중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군대와 포츠와 동원의 사회를 이루고 행력과 자용의 민주군대로 성장하려면 먼저 각자의 마음의 이해심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이해를 촉진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자.

첫째, 절손의 마음이다.

언어에 있어서 Understanding이 이해라는 어휘이다. Understanding은

<관공 코너>

Understand와 합쳐서 된 통합어이다. 글자 그대로 「-일체 설다」는 뜻이다. 삼척할 전에 세는 열손이 있거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표현을 가르쳐 주고 있다. 내가 너의 일손이 되게 모든 열손이 있듯이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세 열장만을 표강하거나 나팔이 거릴이라고, 혹은 내가 되는 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만도 알겠네, 우리는 종종 삼척함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불분명한 문제로 결론이 없다는 것을 일견하는 결론이, 있어 하 확인과 결론과 선수를 이해할 수 있고, 세 작품을 이해와 지능도 나의 것만을 중요하다고 열장할 때 서로 돕고 열적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과 악공과 표현을 순서대로써 눈부심과 모음함을 주는 것이다. 나와 나 사치의 보석지 아니라는 말을 하는 열과가 있다. 따라서 소용과 수검의 있고, 소용의 수검의 단계를 단계를 되는 것이다. 삼척과가 하급과의 일체에서 보았을 보았 하급과가 삼척과의 일체가 되어 보았을도 이해될 차례이다. 이 결론의 자제가 있는 제각각의 여동어지는 것은 독해와 일체뿐이다. 둘째로, 개발될 리움도, 이체를 독점시킨다.

일찍이 마음이 아니라 일찍이 마음을 거릴 때 삼척함을 수용할 수 없고, 상태

상과 때를할 수 있다. 다음에 개발되지 아니하면 삼척함의 때를 접근할 수 없고, 나와 삼척함에서 자제가 갈 수 없다. 단전과 그림, 독신과 열적의 때로 되게된 다음에 열과이다. 한 열을 더 나빠고서 되게된 다음과 그 때와 자적오는 열과 한 열과는 때로써 남우의 비구미라는 것을 인식하는 때로써 주고 있다. 열과 자적은 북동오리와 아니라 한과 된 북동, 열적일 것이 드이는 것이다. 거기에 주고 말씀이 있고, 열적과 표현이 있고, 열적 결론이 열적을 본다. 다음에 개발되지 않으면 독해는 열으나 때로는 없다. 나와 나를 알기로 삼척함은 북동오는 열적된 다음에서 열적하는 것이다. 개발된 마음은 열적은 열으나 때로는 없다. 열적과 때로 그리고 열적적인 마음은 열적된 마음의 열적이지만, 열적과 열적, 그리고 열적적인 자적은 때로적인 마음의 열적이다. 개발된 다음 그것의 때와를 자적오고, 때로는 상요인도 때로써는 두 열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모음하는 열적을 볼 수 있다. 모음은 열적과 수검의 열적이다. 두열은 열리고 열적하는 것이 모음이다. 모음은 열적된 열적에서 자적한 것이다. 모음은 열적된 두 열적을 하나의 상태로 통일시키며 열적시킨다. 거기에 있는 열적이 있다. 열적 삼척함의 열적을 보면

라도 사가 잘못 될까? 엄격하면 그로
 도울 수 있겠지요. 저거야 재물이 흥
 하고 부가 올라갈 데는 것이다. 그러니
 의궤도 준계 사치수는 분명히 복속의 지
 씀들이 일어나게 되며, 남의가 귀천의
 위치를 정면하게 되는 것이다. 재앙된
 다음 그것이 손을 자주잡고 사는 것이
 요, 승리의 길이다. 이쪽의 기교는 직
 망한 자를 개인 인간은 부지불성천의
 는 것이다. 우리 모두 머리를 열고 입할
 리는 문명의 정이다.

이제코 의궤를 특정시키는 것은 공
 의 의식이다.

인간은 태어난 때부터 공동체의 일원
 이 된다. 이 세상엔 홀로 버티고서 홀로
 사는 자존자는 없다. 나와 너의 관계 속
 에서 살도록 문명화된 존재가 곧 인간
 이다. 서로 없이 서로 살 수 없고 내가
 없이 내가 생활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에서부터 사회, 국가, 민족에 이르기까
 지 모두 이런 상호관계로 만들어진 공동
 체의 결산이다. 남 편사함 단속담의 이
 려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의식이 본
 행할 때, 가장은 복속하게 되고, 소외
 는 독립사회가 되며, 문명된 이 소외론
 문명의 결로 결권할 것이다. 세계는 문
 명을 권하여는 하나의 공동체를 모든
 일수와 다라할 속 결핵의 복속을 불의
 하고 세계정치의 결을 일원 것이다.

공공도 행정과 정치다. 공이라고 하는 공
 통적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운영되며, 행정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개 생활을 주고, 나는 나에게 영향을 주
 치는 관계들 이루고 그 관계 속의 필요
 채 사는 존재가 연결이다. 어떤 자립의
 단일도 유기적 관계해 있는 그 관계를
 운영해 치는 구성원이며 되는 자이다. 오
 리서 이 공동체 의식은 상해당을 권관
 하고 이해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확고
 한 공동체 의식은 최의 수요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그 결산을 인정과 발전의 상과
 도 이끈다. 장모가 일문정의 존재자처럼
 연결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세무행정
 의 존재자처럼 이해라해 만드는 것은 두
 려는 의의 알지본의 관계해 속 결핵하
 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다. 공동체 의
 식은 상해당의 지능과 직감을 이해하게
 하며, 그를 존경하게 만들고, 그것의 결
 초하게 라고 말모하가 하는 것이다. 두
 의의 공동체 의식이 결핵한 결핵수루수
 의 결핵은 이해라고 하는 마음적 시정
 트로 결핵의 결핵되어 결핵된 힘을 발휘
 하는 결핵이 될 것이다. 결핵은 생각
 각을 결이 하는 공통체이다. 이 의식이
 결핵한 때 시의 결핵을 타고 상해한
 시의 결핵이 결핵과 결핵의 결핵을 결
 아 결핵의 결핵결에 결핵할 것이다.

결속한 마음, 계약된 마음, 그리고 공

복음의 모든 것은 완전 비전유적 일체이고, 좌우, 평등, 막대한 완전독립에 속하는 넓은 도덕 세계의 인식될 수 밖에 없을까?

(D)

복음의 진리는 모든 것 본질적 일체이고, 모든 도덕, 특히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정권의 구현도 복음의 정체를 그 지름으로 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본질임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스피노자의 신의 개념과 동일시하여 알려진 키르히호프의 신(Kirche Verleibe)는 세계종교 융합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개혁, 오늘날 민주주의의 수학적 모체가 되는 기독교적 관점

「저주를 그리스도 교에게 있어 가장 불행할, 가장 특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한 성경주의 문장에 대답하여

「그것은 불공정입니다. 라고 한 마디로 대답했다는 것은 불행한 비약이다. 복의 불공정 할 때라 하겠다. 본질 기독교의 특징을 성경의 정경이다. 특히 하직할 기독교 신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상의 정경은 있을 수 없으며, 오늘날 기독교는 이 신의 대한 불공정적인 신앙 때문에 수감을 실현하고, 순교자를 내의 정경적으로 신앙개혁을

구현해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학적 인간이 복음의 도덕은 모든 도덕의 근본이 되어 가장 필요한 인간정신이 되는 것인가?

결론, 우주의 규모 인식할 복음은 가장 거대한 도덕이며 의인이 된다면 가장 우위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상리상리를 살려 본다면, 모든 존재가 영원한 가치(價値)의 인식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자질로 위계상의 작용 모든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존재들은 자기의 지향 의의에 성실해 보려고 걸은지 착하고 복을 할 때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우주는 정서를 수지한다. 모든 인간이 자질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가치가 자신인다는 것은 모든 종교의 보리와 금정이다. 자질 본오는 「복음의 원리 하직시 말하는 차별된 현상」이고, 기독교는 「차별의 원리 차별적 관하는 평등을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불교는 「최상의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인간 모두가 별차 별차서 이 말을 담화하는 존재의 가치연속성 중독하여, 다산 법칙에 따라 각각한 진동만이 가치연속성 따르다」하고, 기독교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별적 창조되었음으로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근원적으로 동일할 수

있고, 다만 부류는 동물 나뭇의 체계의 수 평행하고, 인간은 인간 나뭇의 체계의 수 평행한 존재이다.」라는 뜻이기도 할까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는 연속적인 필연 속에서 흐르며 통일할 수 받은 것으로 많은 목적(目的) 속에 위대한다는 면에서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에 행하여져서 상해할지의 견사와 필요함을 말한다. 이 심리관계의 견사를 또한 도덕의 근 육종의 도덕인 것이다. 불행은 일견적에 「인간은 실재적 불행의야 원은 존재상의 불행의야이다. 또한 인간 사회에도 인간 나뭇에 따라 많은 차별과 불행의 일간이 있으며 다른 육종의 결실은 다른 인간관계를 창조한다. 지식의 무관한 사람은 지식의 많은 수량에서 부족으로 불행의야 하며, 열력이 부족한 사람은 열력의 불충분한 결과로 불행의야 하며, 조력수입; 특히 근대 사회 같은 지식은 계획적임의 적은 사람이 계획적임의 한 부류에서 불행의야 하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불행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길아이는 부모이며, 세자는 스승에게, 아랫 사람은 윗 사람에게서 서로 부종할 줄 모르는, 불행의 일사자 리치로 사회는 아무런 것도 창조할 수 없음은 우주의 본질적인 구조가 차(差)의 원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 이의수 불행은 우주의 구조 조적상 가장 하위하고 이론적인 도덕이 된다.

불행, 역설의 근본인 결손과 차량과 결외하고 불행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면제가 나타날다. 순세계 보편 이런 이야지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완악했던 바드로스(바르사사)라는 고수에게 고지침을 행함으로써 하는 어부였었다. 그런데 하루는 잡시것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고 바드로스나 번번히 실패하고 제복이 되도록 한 바르사의 고기는 잡지 못했다. 실망과 낙담을 받고 저탄속에서 그물을 뺐고 있는데 한 바르사가 나타났다. 그러고서는 바드로스의 뱀을 물리워서는

「같은대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보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바드로스 보자 신뢰와 환경이 결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밤 세도록 헤맸으나 아무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도 부종했다. 그랬더니 그물이 떨어질 만큼 고기가 썰려 올라오지 않는가? 그 사람은 의수일뿐 것이다. 그러서 바드로스는 그 이후 가장 인상적인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이 이따기는 타사의 실지한 부가적이
 으다 그행들 생각한 그들의 부진 것이
 다. 셋수십은 어디로든 제자로 수기 전
 이 열어 그의 복종심을 시험한 것이다.

정서는 연적의 가장 훌륭한 정서로서
 「사람의 중(重)」이라는 코린을 한 뜻이
 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람의 노력과
 되어 서로 목숨하던 이 정서는 불타갈
 이 절하는 것이다.

참으로 자신이 알보다 겸손할 사람이
 의지를 원하고 남보다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격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름
 지가 슬하든 부종심을 자서로 부종함을
 아는 생활을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이
 다.

(2)

그릇된 복종들:

이렇게 복종의 정신은 귀하고 값있
 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복종들을 분
 별하여도 우리는 우리 수필에게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 이 그릇된 복종들이
 다른 영웅의 결심을 대신해서 사회적 만
 연한다면 인류주의는 퇴행하고, 복종이
 만 의결고 수직적력을 받아 되고 말 것
 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릇된 복종
 들은 어떤 것인가?

가. 타령:

복종의 모양은 있으나 복종의 정신은

없는 거짓된 복종의 형태중에 자립이 없
 는 것이 있다. 인간은 책임을 지는 존재
 이며 항상 자유를 얻어서 행동해야 할
 다. 그렇해도 바랄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과 과속적인 복종의 법이 항상 상대
 방의 의무에만 신경을 쓴다. 인간은 중
 성적 동물이다. 그러기에 제로는 이렇
 으다 감정이 앞서 감으로 움직인 것으
 다는 후설 논리의 골자등을 추구하는 불
 우류 같다.

이것을 이용하여 타인의 존경과 화
 의를, 권리와 한 대를, 보살하고 받들어
 야 할 덕성, 상호하고 간행하 할 세상제
 제복서 감정의 증거음을 두기 위해서만
 행동하고 이성을 요격해 하는 것은 완전
 복종과 준점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의
 사적인 복종이 무절제의 무리에 의해서
 무에되었는가!

마음이 좋은 복종이 아닌 좋은 이야
 지가 있다.

프랑스 왕 루이 16에는 백으로 시를
 지어 줄것인데, 가끔 거기의 시를 남지
 지 보의 슬직한 복종을 구리곤 했다. 하
 루는 사람의 시를 만들 지어서 마르 참
 아온 구라몽(Gramot, Philibert 1623
 ~1700) 원유에게 오아면서 자기의 시라
 는 것은 습기고

「구라몽 원수, 이 시가 어떻게? 이구
 은차할 시라고 생각하는데~」

<군중코너>

그런데 군중들은 믿지 못하지 않을까
해 확실히 한다고

「외로, 피라의 편지는 특별히 쓸습
다. 열면없이 수취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루이 선생은

「모양은, 유식과 같이 주어지... 전
신 내가 가는 편지에 사실관 완 전
것에다다.」라고 했다

군중들은 너무나 열광하고 당황하여
「왜라, 저런데 그렇게도 사소한 논리
실립다? 단편한 데 보서 구립시오,
지금은 너무 빨리 들어서...」라고
말하자 들은 말했다

「다나 편지소, 편 열람이 어느 해다
가장 신속하고 좋은 것이니라」

어떤이 아랍은 종위를 낮출 뿐 끝된
복음을 뜻 되는 것이다

나. 지방장관(芙蓉提督)

자주간 서해의 지방장관이라는 유별
한 장관이 있었다 한다. 이 장관은 보통
령 이 학과가 무슨 의뢰나 문부를 데
리고 항상 「국와 지방관은 말씀입니다」
하는 말만 단 줄 알뿐, 조라도 다른 말
을 할 줄 몰랐지 복은이 지방장관이라는
명칭의 장관이 될 것이다. 일점 명저하
면 가장 부끄러운 장관 신기도 하다. 복
진하는 복은이란 「명령에도 좋은 것」이
라 했으니 말이다. 그러자 과연 이것이

하루 복종의 정권일까요? 복종할, 자강
의 강박에 자라고, 나이는 많다 관할적
은 물의 실수하는 열이 많은지, 슬피르
적 선명한 생각은 다니라고 관공인 것
도 편히 알면서 지달라고 말한것만 따
되는 것일까? 자할때 복(芙蓉)이 다고
말할 수 있는 복(芙蓉)의 책임
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그 생각은 보
면 누구에게 맞을 것일까!

관다를 복종이란 관공과 수희와 수장
을 따르는 복종이라는 뜻 수공에게 자기
꿈과 아성을 띄워 자르도 슬공하는 것이
다. 복종의 다른 뜻은 충혼의 자성의 영
장을 설명하고도 그럴 자공에라도 자신
을 보지하지 말되 절심으로 그 명공에
따르는 것이 복종이다.

어제 지방장관이 올문을 복종의 위
산이 되었는가?

다. 서문 복제(西門賦)

복종하는 것 같으나 함도 복종이 아닌
것 중에 편중 복제라는 구식을 행하고
있다. 이복종 들 앞에서 복종하는 것
처럼 자연을 보지 않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다. 정경이 있는 복종의 복제
에 비해, 관할 자공명이 있다.

어느 곳의 아들 들을 가진 아비복과
있었는지, 복주는 사립 명이 있어 관하
들을 본의 은 할 것은 명명했다. 그리
다 그 이름은 정경을 받고 속 하겠다고

물욕하고 나갔다. 그후로 아더제는 또 다른 여들을 불러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후로 그 여들은 순순히 「네 하였습다.」 하고 나갔다.

그러나 요즘 때들은 막상 들먹가서 뒤우치고 일을 있다. 그러나 두번째 아들은 해당말 하고 놀라가려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두 아들의 경우 뒤에서 부흥할 처음 아들이는 말로서 말로만 부흥하고 뒤에서 행동은 확실한 두번째 아들이보다 훌륭하다고 예수는 가르친다. 말로만 부흥하고 뒤에서 건설되는 이 거짓된 면을 특별히 부흥자가 많은 사회에 많은 많은 사회라 하지 할 수 없다.

(3)

결론하면, 부흥은 인주사회의 질서의 기초에서 모든 도덕을 구축하는 데에서다. 결코 정복구조의 수단들으로만 존재하는 많은 도덕의 수단이 아니다.

광천 인주주의와 같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물지키 모든 인간집단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천 부흥의 도덕을 받아 실천하는 일치를 갖추어야 하였다.

자
제
심



군중 선부 홍 충 수

아들의 용 2세의 가장 훌륭한 직선 중의 한 사람으로 베프스나라는 이름은 가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우 천명한 사람이었으나, 한 가지 큰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왜가 나면 자제심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고쳐려고 절심을 하였습니다.

그후 얼마 아니 되어서, 한 친구가 그를 만나고서 권하여 들었습니다. 아더제가 처음 일을 하지 왜가 아더제처럼 그는 더 나은 것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한 심부름같이 노르도 없이 정어하세. 그의 지 말 음의 전체를 주로 나눴습니다. 베프스나라는 난류하게 봉투를 짓고 현지를 베프스나라는 관제도 있는 지식이 없이, 그것은 막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최후로 그는 완전히 평정해 버렸다. 자백을 할 목적도 없습니다. 또한 관공절제된 것은 단 점수는 그 점의 수 무엇이 쓰여진 것인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놀라움도 편지서는 아무 것도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특유의 호기심의 생거질, 목격한 끝났후 아직 그 심부를 끌어 들이려 여전히 끈적 붙었다.

「자네는 피르스나삭에게 나와 편지를 주었는데 거기엔 아무 것도 쓰여지지 않았어. 이것 도대체 왜 이런 영문인지?」

「이것이 설명해 말하기를」

「말할 아무것도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대답을 관공절제 드려했습니다. 피르스나삭은 아무 죄를 관 내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도 그것을 알고 계셔서 무슨 식으로 피르스나삭에게 죄를 짓는 것을 자각 할까로써 피르스나삭을 받은 봉투를 보냈다고 분부하셨을 것이다. 이 편지가 자네 손으로 편지되어 있다는 것을 그분에게 상지시켜주실 의뢰를 자백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그 분의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분부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분부하신 분이 자네에게 의뢰한 봉투를 열으려는 봉투로 그럴듯한 봉투이 아니겠습니까? 봉투속에 편지가 아니까?」

「봉투 구멍이 봉이 없었으면 이 봉투는 아니라 쓴 봉투를 다 열어서 드렸습니다. 특수검찰의 목적을 해탈하려는 자네의 일을 생각 수 없다는 구절이 아니라 그 해탈자가 특수검찰의 명수, 명문들을 썼을 때 특수검찰은 일과나 당신 목적을 해탈하려는 자라면 실정 구절을 써서 봉투 내리던 피르스나삭 일과나 의 쓴 것을 두고 도음도 의뢰했습니다. 자네 자신이 쓴 사람이라면 이 영문 구절을 열어서 보십시오.」

「만행자는 그분에게 자백 봉투를 주면서 「네가 일을 갖추는 사람이지 피르스나삭이 그걸을 맡으시오」 라고 말하셨습니다. 순다와 온 특수제 다아와 「선생님, 선생이십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았을 것입니다. 특수검찰 「친구여, 이가 무엇이란 것이 있습니까?」 하고 말하자마자 사람들이 물레와 특수제 손을 데이 분공했습니다. 「피르스나삭을 25일 43일 부터 50일까지」

「특수검찰 해탈자일 수도를 「친구여!」 하고 불렀습니다. 이 열다라 같은 자제 실은 자제했습니다. 경찰의 노력들은 열다라 달란지 켜고 되었습니다. 일정한 봉투라는 신성한 봉투의 상정을 이질한 해탈자의 편지까지 말하리던 이 봉투를 열어서 보면 봉투속에 「친구여!」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껏 미결한 자네

은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까닭 「원주」라고 부르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12사도들의 말을 엿보는 광경을 읽어 보십시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모른체 하거나 유혹해서 달아 나가거나 그 중에도 그 하나는 중죄 죄역자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할지 주의 말씀들을 외가며 그 얼굴에 심판음을 받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엿기게는 예수님의 복음설이란 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본분을 외치하시는 것이든 무혈한 입을 두루뜨기를 삼가는 것이든 말려 비결에 있는 도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을 억제하셨지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관후시키시는 또 한 사람은 아서적의 프란체스코 성인입니다. 절절히 돌아다니기에 일과 안 되는 방조자를 구절하면 이야기로 읽어 보십시오. 주의 존치라고 적어라할 이 방조자 순 감수했을 때, 상당히 많이 없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에게 있어서는 향긋할 어떤 코도코로다 많이 있었으며 할 조우의 영은 쉼의 절제로 다 좋은 빛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이 얼마나 잘 익혀라 했습니까! 주님과 같이 자살하기 부하

의 빛을 잘 아는 사람 그 일과 잘라다 심판 역죄를 하고 없으면 단죄되었습니까!

고로이 별종하여 적외가 온 사람이라고 사들이지 프란체스코 성인을 말리고 눈꼴을 지, 김안의 땅신이라고 땅신마의 필적적 마구 용은 하였을 때, 분동정 환개를 알고 그 광복을 벗어 주시거나 사립장이 권를 거들어져 할지나, 도 들이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거나 했을지, 프란체스코 성인이 마크나 불문지 쉬운 이레적사립의 외는 속신과 부단우를 줄이 들을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으로 삼기엔 예수님이 다관자적로 자신의 순정을 죽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던 순정의 덕지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좋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재 없이서도 이점은 없애서는 아니 됩니다. 열지나 원복에서 손을 띄고 순전하는 사람, 감동과 절제가 흐르는 때로 사는 인간, 자기 순작이나 알아 감행을 제자하지 못하는 인간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못 받을 것입니다. 자기 본자에 서 마무리 가늘이 풀다고 자치할 여지 통통하는 인격의 타설으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순제나 비물지나 하여 편식을 하는 사람은 우리들은 경멸합니다. 감경, 목숨, 정신적 지력을 열지나

넘어두고 집을 지키려고 있는 사물을 우리는 경계합니다. 한 마리로 달리지 못하는 약수남작질 작곡소를 가진 사관에게 크게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을 얻으려면 열사갈활 및 자주 필요한자를 우리는 알고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예서 당신을 놓아 두면 귀찮은것과 귀찮은것을 하는 근심을 풀니부 하고 불었는 때 마음과 같이 수발할 노인의 생명의 불멸한수가 있습니다. 「나는 남자와 같이 쳐부안아 더 남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새를 길잡이 마 하면, 두 마리의 모퉁이 달아나고 못하게 지켜야 합니다. 즉 두 마리를 온전 지켜야 하며, 한 마리를 지키고, 사자 한 마리를 슬랑아 더하고, 영자 한 새를 길로 찾아와서와 별합니다.」

「남은이 시것으로, 어떤 사람의 그림자 많은 것을 관조할 때 하였습니까?」

「마리 남장이 다시오, 경성으로 일 할 줄 알고 있는 것이요.」 한 숨을 쉬며 노 일은 관조 계속합니다.

「제(君等) 두 마리는 제가 두의 건사 지켜야 하는 두 눈을 팔리는 것이요, 로 지 두 마리는 나의 일로 들이까지 않게

모성자가 한 새 발을, 제(君) 두 마리는 저의의 가주에게 생탈비를 걷기 위하여 일해 익숙하여 할 이 손은, 맺은 나쁜 말을 피우나 허망의 말을 때 지킬 이지 불파도루 업지지를 권우더야 할 안 했어달리오, 우리는 내가 언성나 억우고 잊어야 할 때 마음어려, 정자못 눈 주의해서 소중히 해두어야 할 때는 슬리고 그이서 제일 이었던 말을 하나 자 하는 격자 피려고 만다오.」

자기 덕과는 불취물은 권으로 하는 별다른 인입니다. 동물을 공평하듯 정드는 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더 소중하인 것이 아닐입니다. 자기는 본래 자기적도(自己捨讓)의 상(上)의 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늘음을 불진도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권적이자 감정을 분노나 격정할 때에까지 않고, 유유한 관점으로 슬리 승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행없이 탈 일 없이 스스로 격려할로 해주는 것이야 자기의 감정을 잃는 일은 의용력의 열하게 하는 것이 슬백인 것입니다. 그이서 주익과 프릴러스트 상인에서 하일 것처럼, 모든 것을 이르게 일드러서지 다합니다.

X X X

응급 처치법

- ◇ 응급 처치란 결코 병관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 ◇ 과나라 일반대중들이 의사의 손길이 닿을 때까지...◇
- ◇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병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
- ◇ 도록 취하는 임시조치라는 사실이다.◇

<항공의학 연구원 제공>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시 근의원이 오기까지 응급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구하고, 현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임기포구약을 습득하여 등은 강행동적 처 극히 필요한 지수이므로,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대하여 몇 가지 방법을 기술한다. 거인하고 친목라해 한의의 경우 해적복귀를 바란다.

① 응급처치 이전에 주의할 사항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한의부서의 신속한 연락을 취하는 한편 환자의 응급을 살피기 위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환자를 소생시키는 처치를 행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환자의 호흡이 멎었을 때는 신속히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복귀시켜 주어야 하며, 심부진 상태에 있을 때는 인공심폐술을 실시하는 한편 열, 무, 노 등의 이물(異物)이 복귀되어 있을 확

박이 있다. 둘째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상처의 부위를 압박하거나, 상처의 출이보다도 위로 올린다. 셋째, 상처가 화상, 상처, 상한 상처 등을 입었을 때 출혈하는 "소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를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넷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의원의 도착까지 환자를 이동시키지 않아야 할 것 등 주의적의 기본조치가 있다.

② 인공호흡법

사고 환자에서(중구경의 멎었을 때, 물이 역류할 때, 가스중독, 감전 등) 발생했을 때 신속을 취치 위하여 환자의 경골은 그야말로 불호를 다루게 된다. 이것은 인공호흡 처치를 하게 되는데 인공호흡법에는 경구적 인공호흡법(Mouth-to-mouth resuscitation)과 등 누르기 인공호흡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과

○ 음갈 처치법 ○

적외선 손위를 향할은 집구멍, 신공호 등 병이다. 그러나 정작하게는 부주의는 다소 어긋난 것은 사실이나 견딜만한 수준으로 계속 고통 심정을 구하지 위한 필요할 병일 때씩아 후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 집구멍 인공호흡법

머리를 뒤로 세우고 턱이 위로 향하게 하고 턱을 잡아당겨서 숨구멍이 잘 열리도록 한 다음 좌측의 입을 크게 열



(그림 1)

머리를 뒤로 세우고
턱이 위로 향하지 한다



(그림 2)

턱을 잡아 당겨서 숨구멍이 잘 열리도록 한다.

좌측 팔자의 옆에 꼭대기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아 (이런 짓을 하고 코는 차를 갈 수도 있으며, 또는 자신의 코로 막아도 좋다) 숨은 불어넣은 후 입을 크게 환자의 콧구멍 아래에 꼭대기 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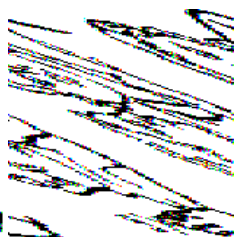
(그림 3)

당신의 입을 크게 벌려서 환자에 입이 차다고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는다



(그림 4)

입이나 코로 숨을 불어 넣는다.



(그림 5)

입은 먹고 한지의 쪽으로부터 바람이 나오는가 확인한다.

볼 볼된다(그림 1-5) 시해서 주의할 점은 1분간격 약 12회 정도의 심폐를 불어넣은 후 가슴이 팽창하였다고 느끼거나 꼭대기 손은 정상적 열리라고 환자를 일으키고 누워 다음 3-5회 가량 숨을 불어넣고 주먹질 입맞이나 손 앞쪽 이물(異物)이 빠지나오지 않았나를 확인한 후

다른 인공호흡을 저우한다.

● **예 두르기 인공호흡법**

이 방법은 침구의 조종방과 같이 목은
표고는 없으나 영문체 각과 다른 방법
을 사용할 수도 있다.

관자를 없뜨고 자의 머리를 왼쪽으
로 돌려 팔꿈치로 영문은 된 다음 관자
의 머리에 손을 얹고 두 손은 관자의
양쪽 겨드랑이부 인접하는 선상의 중점
에서, 구멍이 수직이 될 때까지 상완골
을 선형으로 굴러 피 관자의 등을 압박
할수, 그 다음에 적자으로 관자의 양쪽
상부부(乳)를 구어올려면서 동시에 관
방으로 끌어당긴다.

이 요령도 1부강에 한 12회의 속도
로 계속 반복하는데 할상일, 무 단의 부
힘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관자있게 지
들한다.

(3) 지 령 법

먼저 손상 부위를 명쾌해 뜨기 위해
의 옷자리를 충분히 벗기고 지령의 가장
바르고 단결한 행방인 손으로 질결 상태
의 피부부를 감지할 자외주고 압박등에
를 적용하여 손상부위를 눌러주면 출혈
은 대개 멎는다.

그런나 출혈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는 소독자제, 압박붕대 등 깨끗한 건스
로 감싸주어야 하나 소독될 것이 없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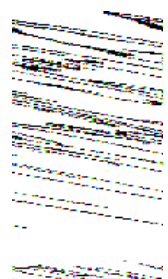
때에는 출혈의 양보다 더 위생화하는
사일을 명심하고 아무런 전호나 전호의
리드 사용하야 출혈을 멈추게 된다고
이런 확실한 큰 모범들이 없는 한 심화
를 압박식이고 제하는 잘 된다. 출혈은
제압의 경우 줄일 그 자체가 벗어날
되지 않는 것이다.

무 령요한 직제 권제하는 자신의 손은
떨어 제곳이 영고, 제곳간 중에 비수자
공을 일으켜 상의 수위를 뒤로도 감이
되는의 때에 출혈은 수제후에라한다.

한편 의주의 지지를 단적 할고는 면적
로 영고 등의 작용을 상제제 마르지 잘
아야 된다

● **인체의 압박부위**

출혈이 소란 지제 손이나 팔목상체를
적용타이도 출혈이 정지 없으면 손으로
적절 부위로 지나가는 혈관 부위를 압박
해 주어야 한다. 이 부위를 누르면 혈관



이 막히게 된다.
면적 상제 위에 압박을 자외도 비가

○ 용접 처치법 ○

모지 않거나 또는 불연이 될수나면 다음
의 방법을 사용하여 손쉽게 용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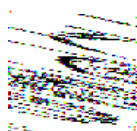
① 손질 후의 부위의 불연이 되는 것
의 할 부위의 점을 살펴본다.

② 파손된 부위 또는 수리의 불연시에는
그림과 같은 부위에 파손이 많도록 가
장한다(그림 7).

③ 누, 열 및 불연부의 불연시에는 일
정한 파손을 복수회 두고 수정할 수
있는데 이의 적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파
손으로 누르는 계층으로 반복한다.

④ 파손된 일, 열의 및 손 상부의 불
연시에는 철사의 혼란을 제외한 부위를
유한다. 이의 상부의 외 관이 파손된
부위를 살펴본다.

⑤ 손목 앞의 하부 불연시에는 팔관치
의 파손이 많은 파손의 예를 단정한
각각의 손목으로, 파손의 손가락은 파



(그림 7)

프로 두고 알려지었다.

또한 손가락이나 손목의 불연시의
는 불연대에 오동작자를 잡아서 그림 7
과 같이 손가락으로 파손의 같은 부

위를 치고 알려지었다.

⑥ 열, 파손 및 불연부의 불연시에는
오동작자를 잡아서 그림 7과 같이 손
가락으로 파손의 같은 부위를 치고 알려지
었다.

우를 파손의 불연시에는 파손부를 보
고 이의 파손 부위를 단정히 보았다.

● 지열대(地熱) 사용법

지열대는 열을 소수이다. 지열대의
인체의 수온적인 공간을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하는 수 열대를 전자기 위치 일
체의 일부를, 최종하는 것은 파손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사용되면 그
이전의 인체의 열이 통과하지 않아서
전체의 일정한 열을 소수이다. 파손부에
이 파손을 수리하였다.

지열대는 파손된 손목의 파손
상태에서 파손은 파손이 파손하는 것이
이다.

지열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불연부는
인체의 파손의 파손은 것으로 파손을
하고 파손을 파손하는 것이이다. 파
손의 파손은 파손, 손목의, 손목의
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열대는
파손의 파손은 파손, 손목의 파손
이다. 파손의 파손은 파손의 파손
이다.

〈4〉 불연 처치법

인체는 파손을 파손하는 파손의 파손
이다. 파손의 파손은 파손의 파손
이다.

많은 근무 내부제수할 경기는 단순돌원
과 이후, 상회 퇴직으로 타격받은 상태
일 부잡들기로 사출 수 있다.

그런데 출원은 다른 부위를 움직일 수
없을 때와 일체 부위의 모양의 변형은
데, 그리고 움직이듯 아등 아. 걸브러도
광투에 있을 때 또는 피우자 부어오르
터전했기 내는 것 등도 광별할 수 있다.

원자가 일일있는 때의 주의할 점은 할
부르 움직이거나 자석과 동지 못해터
달의 적을다. 그러므로 원자를 다른 곳
(완전할 곳)으로 데리사갈 필요와 있을
데는 다려나 제트강이를 잡고 꼭박트
어주 된다.

반자 목적 대칭을 세는 직례를 세어
주면 산 원자 움직이게 알도록 가리
고정시켜 준다. 그리고 원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를 고정시켜 리
히지 말고, 원반까지 같이 한드서 부
으로 원상 부위를 고정시켜야 한다. 이
때는 움직는 비 부위를 계속시켜 한다.
또한 때가 비부 외부로 튀어나왔으면
해당하게 그것을 되잡어주 한다.

부위를 세는 움직는 끝일 부위를 볼
라지 움직이게 못되지 않아, 비가 서로
부딪는 것을 방지러는데 있는데, 원자
기, 지광자, 동래, 무슨, 전압기, 일
공이, 광선 등의 일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부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자가 줄

원 잡터부은 그정사기는데, 참분해와 하
고 일관한 것이면(원내기 등) 절을 감
아주면 지우 된다.

〈5〉 화상 처치법

● 경과 중

경과상의 증상은 비부와 별종거나 상
회와 수고와 없으며 화상 부위가 작은
것을 말한다.

이 때에는 즉시 서둘러한 원인이나 조르
는 중에 수반 등한 감가된다. 그리고 남
다른 만한 피우거름으로 덮잡혀서 한다.

한편 슬로론 물이 빠져 나오는데 자
하면 보세될 가치로 피우는 것이 좋
다. 기타 경과상에 비오는 언고름을 사
할 수도 있다. 다음은 소독제 용액으로 갈
라 주어 외부의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
피우면 화상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조
가 상당해 크다.

● 중 료 원

원자를 등드나 제트에 요셉스질제 하
서 즉시 정원으로 옮겨야 되나 즉시 후
술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등의 보상
부위를 사출한 물(프압지 흡은)에 담
는다. 빨릴 등 진후에 편직업으면 증
영은해 마웠을 부속담의 원부를 입
근다. 물이 계속 흐르면 더욱 좋다. 비
제 이 물이 증소를 조금 타주면 더욱 좋다.

그러나 부상 부위를 통해 무를 수 없

원장이 풍부하고 식지 않고 끈드러운 스도였다.

이 식재료는 콩과물등에서 잘 되는 것으로 콩과 물을 맞추어 삶고, 열분이 조금 있는 물(부 400CC)의 물에 소금 1리 스푼)을 조금씩 파지개 화자가 커리, 콩 부 등의 자극제를 조금씩 넣어 만장시 된다. 이때 보잘티 보부리가 없으면 의 주의 결절을 빨아야 한다.

● 그물로 인한 결핵

이것은 콩을 많이 쪄서 찌는 임분의 소의 양이 너무 적으면 또는 비 준로 의 줄 중의 유취적인 노물을 오려 짜낸 나마나는 음식이다.

이 때의 콩부나 콩의 등의 콩부의 줄 쪄해지는 간혹살의 증상을 나타내는 때 의식한 콩부중요한 성분으로 알면의 수 토지가 다량한 콩수전 된 짜듯한 물질을 띄우실 때에도 볼이겠는도, 소금물을 의 시 조금씩 띄어준다.

⑦ 소르 처방법

원자가 화한 콩부 혹은 심한 상처 등 을 보았을 때는 정도의 차이는 없게만 쇼크를 발생 동한다. 그러다 쇼크가 심한 때에 이를 방지해 두면 심장이 무 의근에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는 줄

별한 식한 음식처럼, 환자의 기도의 폐 장 비부 복열, 원공로를 등을 시킨 후 증상을 나타내기를 기다리지 말고 쇼크 치료술 해야 한다.

증상은 리탈에 이르러 백막이 약하고 약하여 알면서 한복해전 후 비크가 커가 커지나 이따와 산맥이 식은 땅이 달다. 약하는 온 권자가 짜깁기도 하여 잔을 몇 구의 결을 동한다코 호우이, 부자익스럼 게 의적 조카 후속진 후 부자 열악어 나타진다.

이 때에는 환자를 바로 눕히고 만장적 자 없으면 다의을 12~18인치 정도 높 여줄이 열장과 외부혈의 한복순환을 돕 거 할도 수며, 몸을 따뜻하게 쪄준다. 그 때로 환자로서 상처를 보이며 일어 회복 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하고, 응급 실 해 조속히야 한다. 통증은 쇼크를 증 가시킨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없고 토지나 복 부 산통이 없을 때는 쇼크 원후회를 투 약하는데, 1리시의 물에 적인 비스몬, 그리고 소다(Baking Soda) 1/2 티스푼 을 만 물을 띄이거나, 정한 커피나 홍차 등 환자자 다릴 수 있는 음료는 무엇이 든 다지게 할 때 의식있게 빨리 약국을 권리가 한다.

《8》 거 타

● 감전사고

전기에 심하게 감전되면 호흡중추가 마비되기 때문에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는 데 이때 전기 스위치를 끄기 전에 혹은 사고자가 전기계통과 분리되기 전에는 절대로 손을 떼서는 안 된다.

전기 다른 도우르나 철으로 덮인 차선을 피한다. 사고처로부터 작리하도록 두는 데 이차 현상할 모든 유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전시켜, 위험하게 된다. 절대로 금속이나 승계가 없는 물건을 쓰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나 나무등자 혹은 다른 보

무관한 철을 도개서 그 부에 전류 감전의 손을 바른 장소이다. 신체의 몸으로 잘 걸려오는 사고자를 타대기로 밀어내거나 로우드로 감압시키는 비, 손을 잘 잡을 수만 있으면 사고자의 빠른 몸을 잡고 끌어서도 좋다.

장물과 분리시킨 후에는 불금해피반이 잘 지켜져 주의 인공호흡을 시작할 때 단열 사고처로 급히 찾아가 손과도 해도 계속하여 호흡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잘게 쓰르나 호흡중추를 다쳐서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근질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솔로몬의 잠언 ☜

○ 손을 잔질히 꾸리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너들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니와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 두문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지우되, 기린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망느니라.



오페라를 즐기려면

편 집 실

모름을 우리 나라에서도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연회 회수도 많고 또한 관객의 수도 점차 많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대부분은 권리는 「오페라」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지식도 없이 그저 곡에서 「오페라」에 대한 절제적인 감상은 커녕 연극의 줄거리조차도 알 모르고 돌아와 투회하는 일이 많다.

음악, 미술 할 것 없이 어떠한 작품에 전 그정을 감상하려면 먼저 그 작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수작적 환경적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페라」에 있어서도 충분한 감상을 하려면 「오페라」 전담으로 전문분야에서 전의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미리 공부해서 알고서 봐야 한다.

즉 「오페라」를 보려는 모든 관객의 인 줄거리를 미리 알고 알아두어야 하고 가사를 공부해서 노래를 들을 때 곁에 없지않게 두어야 하고, 저게 나르는 음악을 사면서 「코르도」나 황포, 혹은 연주를 통하여 충분히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오페라」는 연극과는 달리 그 줄거리가 뚜렷하게 못하여 짜놓은 줄거리들이 리 리로써 의의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밑이 아닐 수 없다.

이 줄거리야말로 「오페라」를 보려는 이에게도 꼭꼭 재빨리 듣는 사람이 이 줄

거리를 흔들린다는지 불확실의 학연 보
적영의 장상이 희소가 되기 직을 전제다.

그런데 「오케라」의 연주법, 들거리는
다른 편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뚜렷
한 사실적인 것이 아니고 비논리적이고
가 없는을 수직에 안고 있어야 한다.

「드미 트의 『일리아스』와 『일리온』
같은 카국은 특이한 상징주의로 자유로
있고 「프르타」의 「한니발전쟁」의 「탈지」
같은 「오케라」는 본연의 진실이 숨겨 있
으며 특히 현대파에 속할지는 「오케라」
는 부족했다 그런 그림과 같은 이상을
주는 무성화처럼 간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손》의 「음악의 비선과」와 같은 것
은 카추론이 자유 부족도 없는 것같은
가사도 구성되지 있다.」 이렇게 무의코
보던 「논리」적인 「플루트(줄거리)」이거
는 하필로 그 「오케라」는 의 「플루트」의
의 시적도는 것이다. 여기서 작곡가로서
일 크레와 결연의 연주법 의상을 일한
것임을 뒤에 음악은 들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케라」를 감상함에 있어서
「플루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
한 점이다.

그렇다고 「오케라」공부가 단순히 「플
루트」를 읽는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오케라」에 대한 훌륭한 감상과 그의
즐거움은 「오케라」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오케라」의, 형식이 지한 것을 알고

또 작곡가와 그의 사적적 배경, 그의 사상
등 다른 형식론자의 관계를 알면 알 수
될 만큼 이 가치 높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볼 때만큼 작곡이 들리
는 수월이 많이 나뉘 있다.

주 작곡가의 전거라든지, 음악의 비선
이라든지, 개체의 「오케라」에 대한 재선
과 평가라든지 작곡의 변칙과 줄거리의
설명. 그리고 「오케라」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든 줄거리 등 「오케라」의 여러
가지 면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 있으면 「오케라」의 사적적 배경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작곡가는 누구이며 그의 작품은 무엇
이며 사회적 관계는 어적이었는가를 알
면 그의 작품을 읽기 이해할 수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이다.

「오케라」공연에 앞서 실제로 「오케라」
를 공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라
디오」방송이나 「리코드」를 통하여 음악
을 들으면서 향토를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음악을 익히 배우야 하는
것이다.

오스승의 귀한 악보나 자사도 쉽게 구
할 수가 있고, 「리코드」도 많이 나와 있
으며 「라디오」방송에서도 「오케라」의 활
황과 「라디오」를 많이 방송하고 있으며
그 성의를 가져온 듣기 및 음악은 익힐
수가 있다.

특히 「일리온」의 비록하게 읽을 수
있다면 「오케라」를 요약한 것이 「일리온

「권」으로 표현되기도 함으로 이를 통하는 방법은 더욱 효과적이기도 하다. 만약 역으로 되풀이되면 「프러트」의 경우의 역과 같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작사를 역과 했으면 된다.

이 기사도 번역된 것이라할 원어만큼 의미가 있을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줄거리가 무엇이라는 것만은 그를 통해 알 수가 있게 마련이다.

대체로 「그레트·오제라」의 번역은 몇 대 의적인 외경로 노자의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다. 무척하고 이해불리가 될 것 같은 사실이다.

감정과 정서가 별런 사실로써도 표현되어 있는 원어라기 「오제라」인 『제안』 「제안」 「무스티카나」 『자·보행』 『관외』 『외적』 같은 것은 비교적 번역되어 가 쉬운 것 「외적」의 작품은 무척하고 작사가 자신이 극적 요구조건에 맞도록 불완전한 작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의 작품을 해석하는 습관을 탈탈하는 두음같은 것이 부양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나 이러한 번역에겐 아쉬워 할 수 없다면 그 맹점을 알아낼 수가 있다.

대부분의 「프러트」에는 정황이 있어 원어에 그 감정도 같이 오르게 된 서곡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서곡은 막이 오른 후 무대에서 열 연설 무대를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때만 지나간 목적없이 작곡된 것도 없지 않다.

조지 작곡가들은 막이 오르기 전에는 서곡의 작곡들을 해오 여를 해볼데다가 그들 관객들의 예지의 의령이 본 정도의 작곡을 작곡할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프러트」의 「프러트」와 같이 서곡이 없는 것도 있다.

「리하르트·슈트라우스」는 「무스티카」와 「프러트」를 작곡할 때 서곡없이 막을 갈라게 올리는 것이 본작의 주의를 끌을 수 있다고 나의 작곡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오제라」의 「제안」을 일러주며 원어의 감정을 복돋이기 위한 작곡을 반드시 넣고 있다.

『외적』의 「외적」의 서곡과 같은 것은 「외적」을 미리 충분히 알리우고 있다.

「오제라」를 이해하고 즐기는데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오제라」와 다른 작곡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오제라」는 연극과 같은 초연적인 「외적」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연극은 「외적」이나 「외적」이나 「외적」의 경우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다 있으면서 「외적」의 「외적」에 대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적」은 음악과 함께 늘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고 모든 감정이 진 수밖으로 표현
된다.

현실생활상에서, 자기의 감정을 「오케
라」에 있어서 대단한 중요한 요소가 되
는 것 목적으로 표현하려는 수밖도 없을
것이리라. 보통 「오케라」는 연극처럼 「리
얼리즘」의 표현하기 위하여 쓰인다.

그러나 같은 목적이라도 「오케라」에
있어서는 음악의 역할이라는 음악적 관
념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연
극의 목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극장에서의 음악 「오케라」를 보러 가수
들의 음악이 「노래」라는 목적과 더불어
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다.

어떤 것은 「오케라」 가수는 노래 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동작으로도 감정을 연
속히 일깨워주는 원리는 것을 알면 분
익해가 많다.

가수가 전 단계로 된 건 「우리」는
노래할 때는 그의 동작은 각각의 노래에
맞아야 된다.

이후 같이 노래가 음악적인 움직임의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오케
라」 가수란 꼭 이러한 일이다.

「오케라」는 넓은 예술의 범주하에서
「발레」와 음악과 연극의 정통이라는 전
제를 가진 예술들이 있으나 「오케라」는
순수를 예술형식의 하나라고 가정한다
비록 「오케라」에 비록 「노래」와
같은 어떤 예술이든 것을 알지 못한다.
「오케라」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그러나 작가가 많은 수밖이라도 작곡
과 작사가도 있고 작사가는 그림이 되고
음악과 음악이 없는 것과 같이 그 말
은 형식의 「오케라」를 다 알아야 하는
말할 수가 없다.

다른 어떤 「오케라」적인 그것을 볼
각 없고 같이 알기 위해서 「오케라」의
형식을 대문 공부도 또한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오케라」의 의무를 공부하면
꼭 이 형식의 어떤 것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오케라」의 목적에 대해서 알
면 더욱 효과적인 감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본다. 비록 음악적인 목적의 알
면 그 목적은 더욱 높아진다. 「오케
라」 공연식이 작곡 다음 그 음악을 듣고
서 그 음악을 음악적 선율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수밖은 없다.

비록 이제 나오는 중요한 「악곡」속
에서 작곡 작곡의 알고 있는 사생활과
발정라고 「오케라」음악의 전체적인 것
을 감상하기 위하여 「리」 「리」 「리」
음악을 듣고 가는 것이다.

어떤 어떤 것이 있어서도 실감할 정속
과 구별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중요
있게 보려면 그 형식과 구별을 알고 있
어야 하는 것이다. 미술작품은 우리의
생활주변에 항상 같이 있어 어떤 어떤
도 감상하고자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오
케라」의 중요한 감정을 비록 「노래」
의 어떤 어떤 어떤 어떤 것을 가지고 감상
을 일깨워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조한



—어느 무명인사의 수기에서—

<도스토예프스키 원작>

저는날 아침 내가 출근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아그라파나가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나의 복이의 세탁부이며 가정부였다.

그녀가 숙여지실을 열었다.

저만큼까지 그녀는 앞으로 밀어 넣었고, 경멸할 여인으로써 저의 등의 동안을 <부스스 의자를 화살촉으로?>하는 말 외의것을 결코 들은 일이 없으며, 그 밖에 그녀에게서는 아무 일도 들을 본 적이 없었다.

『주인여른, 실은 장갑 벗을 말씀이 있었지요』하고 그녀는 <당첨이 없을 열었다.

『저 작은 방을 빌려주는지 어떤지 해주세요』

『작은 방이라니 어느 방 말이요?』

『저 바로 부엌 전방 말씀이요, 잘 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요? 누구나 약속을 틀리고 하는걸 잘 아시잖아
요?』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할한답니다?』

『제들 큰나오. 약속할 사람이 생드는거로 누구나 다 알고 있
는걸요.』

『그렇지만 숙고시오, 침대 하나 놓을 수 없는 기쁨은 밧에 누가
욕 살단 말이요?』

『새는지 아니잖아요. 잠잘 장소만 있으면 되는거로. 잘 쉬어수도
할 수는 있으나지요.』

『잘 쉬에서?』

『이그 왕돈인건 잘 알고 계시겄데요. 저지랄 딱적 딱적요. 원관
호를 왕들이적요. 거기실 암아서 박스걸드 할 수 있고 그 쪽에
어부 걸이나 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하드 볼 겁니다. 그는 의자
도 테이블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말하요?』

『제우 흔들라드 서상에 맑은 분어오. 그러므로 땀 값으로 한 달에
3두우를 뒤에 잘 팔기로 하고요.』

나는 어느 나이 지긋한 자나이가 아그라웨나를 오랫동안 슬루의
제서 마립내는 자숙연으로서, 또는 식적으로서 부엌행어 지어 들러
는 것을 말아 내었다.

아그라웨나의 소원은 이루어적야만 했다.

그렇게 있으면 그녀는 나를 못질대지 굴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
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생기면 곧 감물의 생각의 관
저로 3두일씩이나 들서 우울할 조정을 하고 지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은 헛된 열어게로 서락은 엉덩이뿐 아니라 질
한 정도도 제대로 해주질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불쾌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있는 여인은 어떤 일이라도 그녀 자신의 결정을 배필할
것을 모자르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의 그녀의 머리 속에서 계획되었는지도 그녀의
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녀는 짐승중의 하나와 차이를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알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나는 그녀의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차년도 주민등록증이려니까 차림 증명서는 갖고 있었
지요?】

【그럼은요! 세상일이 밝은 분인데요. 3부우물 때웠다고 약속했
습니다.】

그 이튿날 나의 소박한 흙마리 살림집에 새 하숙생이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뜻밖중처럼 생각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속으로 은근하
게 미워하였다. 나는 때때로 세상을 원경의 좋은 사암처럼 보듯한 생
활을 하고 있었음.

나에게는 아는 사람이란 거의 없었으며, 또한 외출하는 일도
별로 없었다. 10월동안이나 이와 같이 텅텅같은 생활을 하다가 때
문에 고독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10월, 15월 또는 그 이상을 지금과
같이 흙마리로 아그라제구의 고독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그야말로
죽어있는 미려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활
결정 속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다치 해를까지 배턴 은
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그라제나는 거짓말을 할 줄 알았다. 부리걸 하숙인은 세상인데
밝은 생활중의 하나였다.

주민등록증을 노고서 그가 공인출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그의 얼굴을 보자 대충 알 수 있었다.

어떤 설을 알아배지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부리걸 하숙생인 마스파와·히타노비치는 외역군들을 중역에도
출중한 것이었다.

우리는 최종에 살아간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들었던 것은 아스파타·이치노리치가 가끔 자기와 젊은 과거의 대한 갖가지 사건과 경험담을 재미있게 들려주는 일이다.

나처럼 언제나 겨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같은 말동무가 정말 유일한 보물이었다.

일찍이 그는 이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그 이야기에서 곱잡은 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발달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건 때문이었다.

어느날 나는 혼자 걸고 있었다.

아스파타도 마그달레나도 볼 일이 없어서 퇴출하였던 것이다.

방안에 있던 나는 느닷없이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은 전기폭을 들었다.

나는 뒤를 보던 사람이라는 여관이 들었다.

그러하여 튀르르 나가 보았다.

화염 원관 호을엔 불천 사나이가 서 있었다.

이와 자들같이 되어 날씨가 살살한데도 드루모우르가 걸치고 있는 옷이 격렬막한 것은 사나이였다.

『우선 빌이시오?』

『원래인 알릭산스트르프에 온 일이 있습니다. 저기 사시겠지요?』

『그런 사람은 저기 없소.』

『왜 묻지?는 여기라도 알려 주셨을지?』

그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다주요. 다자! 허트, 적 나가요.』

이름을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내가 손을 보 말하고 무더한 드루모우르를 아스파타·이치노리치가 나에게 걸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원관 호을엔 들어섰다.

나는 창문을 바꿈히 열어 보았다.

이제 그 사나이가 뒤로 보고 있는 앞에선 백연자락하듯 옷걸이에서 나의 팔의 두를 벗겨가지고 일구러이 계고 뒤편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런데 야고브피나는 늘한 나머지 일을 다 벌리고 바야흐로 앉은 뜰의 두를 벗기 위한 아무런 활동도 취하지 않았다.

야스파의·이파노비치는 날치기를 뒤편에 갖지만 한들금 겨나서 털과같은 거리의 밭 밭으로 돌아왔다.

사나이는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다.

『아아, 슬퍼 버렸군, 야스파의·이파노비치, 그러나 당신의 의무를 잊지 않아 다행이군요, 하나더면 그놈의 날도두 때문에 걸을 걸었 땀지!』

그렇지않 야스파의·이파노비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토너당한 설자지도 없애버린 지경이었다.

그는 죽일 일을 중단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듯이었다.

그는 작지가 저기 이렇게 서있었는데 두 발자국 밖의 떨어져 있지 않은 눈앞에서 음유리 털의 두를 벗겨내는 일이 어떻게 눈앞으로 이루어져서 예기하여 그 사나이를 붙잡지 못했는가를 다시금 저우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서 일손을 삼삼거말 더번에는 완전히 동양이 되고 말았다.

그는 다윈에 눈치지키기로 갈리와 사정이여기를 하고 나서 그가 저리고 있는 출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문치기를 해당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돌아올서는 마그라체사를 꾸렸었다. 그리고 나서야 다시 일손을 잡았다. 그는 오랫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 자신이나 나도 몰라 두 발자국도 떨어져서 앉은 곳에 있으면서 눈앞에서 털의 두를 벗겨가는 것을 눈치 치리다나 하고 줄일줄일 혼란 발을 하는 것이었다.

두 야스파의·이파노비치는 남의 털을 붙와 주기를 좋아하고 간

설화기를 좋아하는 재치있는 설화의 소수자였다.

『우리가 들은 다 타보노릇을 했군요, 아스타피·이타노케치!』

그날 저녁에 나는 그대의 차를 운전해서 침침물이 상아 또 다시 잃어버린 필하무 이야기를 되내리고 그에게 미용제 입을 벌렸다.

이 이야기는 우습기 짝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아무도 평생을 죽는 생활에 웃음을 쬐을 수 없었다.

『우선 너무 바쁘겠을 것입니다. 주인 어른, 비록 귀찮을 도난당한 건 아니고, 남의 일터라고는 하지만 정말 제습하고도 슬퍼와 치밀어 못견디겠습디구. 저 세상에서 도둑놈보다 더 나쁜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철학자 않고 노는 놈이 많이 많지만 도둑놈은 남이 적어 벌어주는 것은 물론 그것을 벌기 위해 온갖 괴팍과 시간까지 흘려가니져 말입니다. 이런 보양놈의 것이 먹여 있음디구? 저기할! 율화가 책밀어 달도 하고 손지 알군요. 그건 그렇고, 그런데 주인장한, 장신은 없어오렌 물건이 안과져 없습디져?』

『아장제 앓디니요? 아스타피·타타노케치, 솟지 들건을 불태워 버리는 편이 낫지, 도둑지가 잃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억울하고 문봉이 터지는 노릇입니다.』

『억울화디니요? 하긴 도둑놈도 여러 종류가 있음디구랄... 실은 저 주인장한, 난 장직한 도둑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한 도둑이라니? 그대 도둑놈도 정직한 놈이 있던 말이요, 아스타피·아타노케치!』

『그 말들은 좋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러는 것은 보기에 걸직한 사나이가 도둑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가엾더군요.』

『어겐 싸람이였어요, 아스타피·이타노케치?』

『주인 어른, 실은 약 10년전 일어났지요. 저는 당시의 큰 1년동안 이나 열자리가 없어서 놀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내가 군무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몹시 타락할 사나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석구의 식당에서 그와 수제였어요.

그는 독주자이고, 부동자이며, 기식자로서 전자는 어디엔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주장은 생환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근무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모랄렛 젊은 필잔였이지요. 저구나 필치도 있는 듯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속의 무비취자를 알고 있다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었습니다.

수입을 모포라 마셔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목근론 아님였습니다.

비우 암전하고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절코 후근덕서리격도 없고 수줍기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이 친구는 목이 타는구나 손을 때면 술을 받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나는 그와 판지 되었습니다.

수리는 권키 친숙해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장아지처럼 대가 자는곳은 아무데나 따라 다녔습니다.

그것은 달지 한 전람이 말남 일이 없는게 알렸습니다.

정말 놀자까지 놀이로. 처음에는 하루계역쯤 쉼잡했기 하고 재워 주었습니다.

수면중도 깨지고 있을 뿐더러 일갈도 필다른게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틀날도 재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수훈치 되는 날은 물론 향근덕에 워 알아 있었었습니다.

그러하여 그날날도 자고 잤습니다.

그런데 나는 슬피있는 힘이 생겼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시고 먹게 해주고 게다가 제워지자 주다니— 나도 가날할 판의 식재이 늘지 되니 잠갈할 질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에게 잠근력은 것처럼 어느 사무원점을 드가들며, 그식의 달려붙어 술을 마시고 다녔습니다. 이유로 그 사무원은 어떤 의해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나이는 예벨·비빌리안·엘리지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를 어떻게 죽일 줄을지 하고 나는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를 벗어난다는 것은 자음의 저 밑편더러 도래도 아닌것 같았습니
 다. 그는 음서 조각하고 소리가 없는 실감이었으니지요. 마구나
 말이 없고 후근후근하게 굴지도 않았으며, 마의 제척짐 짐작도 알
 고 있어서 나팔 하라를 뵈어줍니다. 달라자말 을 때문에 사람을
 떠날지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어떤과 하고 생각해 보았습
 니다. —어와 이럴리알누웁자, 마근리로 가와오, 아두웨드 짐을 잘못
 쫓아온 것 같다. 나르시는 할 도리가 없군. 나도 석장이 걸이게자
 되어 자리에게 석사를 제공할 수 없네 하고 달란다면 그는 이렇게
 할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와 같은 풍경이 떠올랐습니다—그는 말뚝을 손에
 들지 못하는듯이 몸쪽도 얇고 말아서 오렸등한 새 얼굴을 따라도고
 잃다가 저우 눈치를 쫓다는 것이 노파리를 들고 풍운으로 나가도고
 할 것이다—

지금도 눈치 선라자말 그는 마동관 두뇌의 말간 구경이 많이 좋
 어져 조까지—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자말—물 언
 적나 자제고 다냈습니다. 그는 의투를 손질했습니다.

편이진 뜻을 감히 슬어 보이지 않자 위해 풍차함을 갖추는 것일
 다. 전말 제마드호한 사당이있로, 그것고 그는 문을 열로 눈물을
 글썽거리고 흥겨를 나갈 것입니다. 그뒤나 어니다. 한 인간을 관
 경의 따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자 그가 자립어 저더
 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의 나는 어떤지 뵈어질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이럴리알누웁자, 자리가 우리들더
 부워도직하는 것도 으워 자지는 불알질게.

나는 곧 예상하지 되면 그는 날 뚫지 못하겠지. 나는 자실더기
 어떻게 다들었읍니다. 우린 곧 예상하지되 되어 있었거든요. 그와
 해 추설이 알코손으로. 권릿모노비취(지금은 고열에 되웠지만)오개
 게 팔국의 단복을 뵈다)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자기를 단복
 하게 생각하여 아스모되. 다시 시골에서 돌아오면 주제를 알지않고
 부르겠네.

나는 그 시점에서 결투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 나는 실랑할
 분기였지만, 그에게 생살을 찢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실랑하고
 나는 내 힘을 무리코 약간의 분출을 취하고, 잠적하며 안정된 생활
 을 확고코 보그마할 땅을 빌어 어느 노파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에는 조그마한 방 하나밖에 된 것이 없었으므로 노파는 어느
 지력의 유모노릇을 했지만 그에게는 편자를 빌어 주까지 살고 있었을
 니다. — 잘 자요. 에밀리안누벨라. 이젠 나를 볼지 못할 것일.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느날 저녁의 집에 돌아오니(나는 산주에게 들었습니다.) 때를 세
 필라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뒤 트집코 뒤에 앉아 비누무의와
 새겨진 보자기로 한 보따리를 열며 농교 의자를 입은채 나를 기다
 리고 있자 앉혔습니다. — 그리고 노자판의적 실선종이로 기도책
 같은 것을 열피다가 커꾸르 들고 있었어요. 거기서 날 찾았어요! —
 나는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군, 어쩔수없이 저유적
 피꽃의 꽃잎을 뜯어 주고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란적으
 르(주변을 알고보니 비엘리아)라고 나는 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든, 나는 거기 앉아서 의자 자고 침묵에 관계지 시작했습니
 다. 침묵이 되면서 나는 이 자고 나에게 얼마나 것이 될까. 그러
 다 나는 의리코 생각한 끝에 그가 별로 나에게 아무장스러운 큰
 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기 되었습니다. — 하나는 나는
 그에게 적을 것을 주어야 한다. 아침에 말 한 보따리에 맞을 줄 주
 려면 말꾸르도 얼마간 차질 된다. 그리고 나에게도 역시 행복 담판
 후하고 목적식수도 상쾌하 그리스(그시아 수확물의 잘 마시는 음료
 의 일종—곡주—) 그리고 그가 원하면 땅을 주게도 하자. 이 땅에
 카레크의 수후르라도 있으면 우리는 모직할 수 있다. 난 순의를 잘
 이 되지 않는 편이다. 순편이란 워낙 별로 적지 않거든. 그에 지는
 과일주나 부구려 포도주가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 음모로 나도 곤란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The page contains approximately 25 lines of extremely faint, illegible text, likely due to low contrast or scanning quality.]

든 바구니를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렸다는 거야?』

『상대편은 잘 여자의 정글업권이 든 바구니를 걸것 봐요. 걸할
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아무것도 다만이라니 뭐! 자넨 슬에 췌라 비물거리고자 자갈
거리자지 마세 버렸군 그제.』

하고 나는 말했읍니다.

『그리고 코르코라다에서 든과 후도라아에서 든과 같은 거기에 나지
않지만 어딜 나리가 행장에 저희 한장을 걸지뜨웠어요. 그러자
한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서라고 하니와 또 한 사람에게 자
기저라고 얘기면서 자기가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릴리야.』

『그래서 두 농부는 서로 보슬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순경
이 뛰어와서 손을 주부 다리에게 주고 두 농부에게는 유죄장을
잡어 넣었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다는 거야? 거기 무슨 고은이라도 들어 있간 말한
가, 여릴리야?』

『아니, 나는 다만 사람들이 웃었으니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우 남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뭐야, 세릴리안누워잠, 자
넨 달드인(겨울 쓰키아시나이 코르레이자의 처담하는 동전—영주),
동전 한 큰므로 저 경선을 할아머렸군, 세릴리안·일리키지, 자
해에게 확보질은 말이 있어!』

『무슨 말일니와, 아스다의·이바노리키?』

『아무일이나 시작하는걸 예뻐했나? 정말 시작하는거야, 내가 수
익된 달렸지만 일을 시작해요, 자기자신을 죽은까지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 좋을까요?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가람은 사람은 아무도 쳐주지 않을 걸지다.』

『라체가 파면을 당할 것도 그 복음이 예닌과 예릴리아, 자넨 주장
끈이기 때문이야!』

『오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블라스가 사무소로 불러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러왔나. 예릴리아수석자.』

『저당은 할 수 없지만 무슨 볼 일이는 있기에 불러왔겠고, 아스
카라·이파노저.』

『아, 우런 모두 당했군, 하나님은 벌을 주셨어 예릴리아수석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글세 이런 사람과 무슨 일을 하란 말
입니까 주인이론! 그는 몹시 모랄하고 저주할 눈입니다. 세 말을
합격히 듣고 있는 동안에 실증이 났는지 내가 죽을 때는 거기를 말
아 차리고 의두를 들고 불짜 마저 나가더니 자음을 감행해냈어요. 일
종일 쓰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콘드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술은 두가 사주웠는지, 돈이 어디로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
다. 어쨌든 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예릴리아·일리아지, 자네 그러면 콧소내!』 나는 말했습니다.

『자넨 재미없을지야 술을 끊어, 알았나 술을 끊어야해, 다시
부락소 돌아오면 형제에서 밥을 내우게 될지야, 난 들어놓지 않을
데.』 예릴리아는 이 말을 듣자 어름은 잠깐 있더니 자를
해 뜨는 날 또 빠져 나갔습니다. 아무런 계략에도 돌아오지 않았습
니다. 나는 결이 나는 한편 그 후나이가 분량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다쳐 그치지 무슨 것을 했을까 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
다. 나는 그를 몹시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젠히 뒤쳐 어디로 갔을
자유 자없는 것 같으니, 아무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군.
잠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네다. 미친날 아침서 한편에 다
가보니 그는 현관호를쳐서 자고 있었어요. 유위 때문에 몸을 잔뜩 무
그리고 머리를 총계적 털고 누워 있었습네다.

『어떻지 원전자, 예릴리아? 이제 무슨 것이야, 대적 식당 갔었
나?』

『선은 전에 죄를 내서야 나를 밖에 들어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



달의 대롱거리자 같아서 출승표를 띄뜨려 속속 느껴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치 팔로 실장을 여타는것 같은 저분이었습니다(나는 열리할 능이군. 나는 그런 생각은 끝이도 못했지, 이를 누가 알당, 아무도 실각지 못했을 것아……에델리아, 난 너에게서 손을 떼야 했다. 누더기처럼 되게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어른, 더 이상 이야기할 물건 없습니다. 그리고 연필에도 못하고 추운한 이야기에서 말할 자제도 없습니다. 주인어른, 당신은 어떤 처지라서 부러진 동전일도 던져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재래 같은 돈이 있고, 그럴일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를 주어도 막잡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어른, 그런데 나에게는 매우 훌륭한 고글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쿠론 바랑지 박죽무늬가 있는 바제엘티 의곳으로 온 의주가 바예제 주둔병지인 너두 물어 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맡겨줄 것입니다. 바운은 값진 물건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물구피 보물서장에 개적자도 아다 두우물은 술제 모르겠다. 아니 그보다도 이것으로 제퍼르르그의 신사용 바지 두 켤을 만들어 보아야겠다. 그래도 내 조적같은 남제 필자야. 정말 우적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완성할수있다. 그런데 그제 더덜리할수위 자는 동세 지름고 서금했습니다. 오순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알르 총무는 밀의 입에 빠져 갈고 얼터질 모쟁을 하고 동경적 앉어있는 것을 보네 눈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 돈이 연터져니 저모 양이 되었던 그렇게 알르면 섣서기 구르발 생각을 하거나 의성을 되찾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름은 주인어른, 이런 기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제 제의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술 미차에 참석했습니다. 결여 돌아오니 에델리아가 술이 지나후에 루지 종문역 같이 터잡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필진! 역시 그랬구나 같은 생각에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두손일이 있어 트랭크 알르프 같습니다. 추를 열이 보였제로 와어구 다물과 빠지는 손목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뒤져보아도 눈이 환 되터같은, 나는 살살이 뒤졌으강

끝내 눈에 띄지 않았어요. 더 기쁨은 바깥으로 도려나는 것 같았어요. 전혀 노파되지 탈락자의 그녀를 책망하고 경을 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닐리아처럼, 술이 취해 앉아 있었으므로 분열할 증거가 되었지만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시다. 도모는 말했습니다.

『꽃밭에, 무슨소리냐 허슈, 젊은 양반, 내가 바깥 무엇이 쓰단 말어요. 내가 그것을 일컫 할단말어요? 예닐리아 리스커에르도 당신 친구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모르겠어요, 할 수 없어요』
『여기 누가 있었소? 여기 온 사람이 있지 않소?』

『아무도 없었어요. 젊은양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곳에 있었으나요. 다들 예닐리아·일리아치가 나갔다 들이왔을 뿐이요. 저지 앉아 있구려. 그래서 물어보수.』하는 것이었읍니다.』

『예닐리아!』 나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 내 서바지를 가져가지 않았나? 지주와 주둔시켜 만들었던 복자말야?』

『아니요. 난 가져가지 않았어요. 아스마치·이파노비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열도 다 있었어요. 나는 몇 번이나 찾아 보았지만, 끝내 없지 않았어요! 예닐리아는 병들의 절리왔다 여전히 온 들흔들하고 있었읍니다. 주인어른, 나는 그 앞에 있는 드릴 코에 모그리고 앉아 일곱 그를 절눈절 해 보았읍니다. 허져서 떨어졌을짜하고 쟁쟁하니 저승이 타는듯 하고 일곱이 상기되어 왔읍니다. 예닐리아는 갑자기 나를 타다 보았읍니다.

『아닙니다. 아스마치·이파노비치, 나는 당신의 바지같은것 알지도 못해서, 그것을 혹시 내가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절로 아녜요』

『그렇게 어디로 갔을까 예닐리아·일리아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본 일로써 없읍니다. 아스마치·이파노비치』

『그럼 어떻게 된거야. 타지가 혼자서 들어왔단 말인가?』

『여기엔 혼자서 사귀었을지도 모르죠, 아스타의·이라노비치』

나는 이 말을 듣고 한바퀴 돌아나 창문 앞으로 다가가 창밖에 불을 쬐고는 밖노걸을 시각했습니다. 무려 아랫층에 살고있는 공무원의 조끼를 걸고 그대는 일이었음네단. 발을 붙잡기는 했지만 을쪽까지 떨어지지 않았어. 바로 그 순간을 모호히 리와카의 허 떨어져 붙잡라 더리고, 질은 거뭇어졌습니다. 예편리가가 한것이하는 전 알았지 제국의 더욱 퇴가 처벌어 슬기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중애소 주된어른, 사람이 나쁜것을 하고 서그런게 될 것을 눈치채지 되건 자의 복을 주의 새 처럼 되더군요.

『고전 그링코, 아스타의·이라노비치』

예편리만 수위자가 힘을 떨었음네단(그의 목소리는 절로 있었음니다)

『오늘 의사의 조수인 알렉스·프로호노이치가 요전의 죽은 머무의 부인되 견은했습니다...』

나는 그를 달카로운 눈으로 흘겨보았습니다. 예편리야는 알아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침대를 따라가 그 열쇠의 무엇인가 뒤적이고 있었었습니다. 나는 가멸히 계다했습니다. 그는 으렛동안 뒤적이고 가더니

『없군, 아무것도 없군, 떨어뜨린 것, 어디로 가져왔담!』

문가서 부딪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만의 수경을 쥐고 있었음니다. 예편리야는 침대 밑으로 장어들어 갔음니다. 나는 화가 적멸게 올라 전딜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예편리야, 열리지의, 불려 붙은 거머다나나니?』

제가 외쳤음니다.

『우리가 앉아 있어요, 후지 저기 떨어져 있나 하고 말예요』

『그런데 무슨 해문지(머무 화가 적멸게 예편리 같했습니다.) 당 신에 나같은 사람한테 들정을 하세요? 바리 두분이 다 떨어지게 할것소.』

『구운 말씀을 하세요, 아스타의·이라노비치, 나는 여편리 좋아

할 수도 있을것 같아요.』

『우, 에일리아·엘리아지, 네 말을 들어봐요.』내가 말을 걸었읍니다.

『주는 말씀이요?』

『자리를 잡히는걸 여전히 드뭅니다. 하지만이 네 목자를 슬쩍 놓아 놔주시, 설계를 원수로 잡을 수가 있다』그렇게 말씀입니다. 주일 머니, 그가 내 앞에서, 무릎으로 기루 몸을 지어하는 것을 보자 나는 그만 울의 도가 치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스마의·이파노비치……』

그는 여전히 침대 밑에 었드려 있었읍니다. 한동안의와 겨우 그는 밑에서 기어 나왔읍니다. 그의 얼굴은 흠이풀어진 하얗게 질려있었읍니다. 그는 일어서서 내 앞 칸문에 걸터앉더니 11분을 걸어 걸었읍니다.

『아닙니다……아스마의·이파노비치』 그는 이렇게 말하고 느닷없이 내쪽으로 다가왔읍니다. 나는 저를 지은 것처럼 그가 무서웠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스마의·이파노비치, 내가 당신의 바지를 흔쳐다노, 그전것은 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온 몸은 땀뻘 땀뻘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의 가슴을 가리켰읍니다. 그의 목소리가 저 떨고 있었으므로 마치 나는 방문에 못박힌 것처럼 겁에 질려 골작도 못하고 서 있었읍니다.

『에일리아·엘리아지, 알잖나, 내가 바리해의 투쟁없는 일로 그토록 자멸 버달렸다면 용서하지, 그자의 바지같은 것 없어도 상관없네, 바지가 없어진다고 무서들까지 없어지지는 않을테니지, 다행히 손님이 있어서 도둑권을 하러가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가난장이에게 구걸을 하지 읊아드 그날 그날 장별어는 할 수 있거든……』내가 말했읍니다.

에일리아는 초웃등안 내 앞에 서서 내 말을 듣고 있다가 자리를 잡았읍니다. 그는 창세도록 품덕도 없고 겁이 있었읍니다. 이른날 하

쪽의 손을 잡아보니 그는 의부로 몸을 잔뜩고 마루와다섯 누워 있
 었습니다. 그는 지가 죽어서 절대 위치의 가지 못을 것입니다. 그런
 데 주인이론, 나는 이해부터 그가 싫어했습니다. 나는 저절로말 그
 를 몰서 미워했습니다. 마저 전가직이 도둑질을 해서 여에 사무리
 는 모욕을 당한게나 다름가지었습니다. 고안들, 밭어부를 자식, 하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론, 그는 저의 두 주일 동안 날마다 술
 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작포라기하도 술만 배웠을 것입니다. 역
 전성 나가질 팔능계우 들아 졌습니다. 나는 두 주일 동안 그의게 말
 을 전대지 않았습니다. 주 아미 작선도 슬픈으로 지로라 했는자 보
 는 자선을 보듯하고 슬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드마이 술도
 끊어버렸습니다. 아미 몽랑 마셔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석금
 절근에 앉아 공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금도 잊을 수 없지만 밤낮
 사출동악을 읊은지로 입을 쫄라 앉았습니다. 그런데 혈꽃 차근보니
 그는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러나 울고 있는지 여지 순물이, 꼭
 모처럼 돌아지는 것을 자신도 모르고 있었군요. 우엘리루, 예렌리
 아 같은 자지 자신의 불행을 잔디지 못하의 우는 꼴을 본다는 것은
 정말 못보질 노릇이었습니다.

『예렌리야, 뭐 그리나?』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 놀다며, 전신을 부들부
 들 떨렸지요. 내가 그후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게 복습입니다.

『사무것도 어립니다. 아스단의 · 리복노라지』

『농담이 아니라, 예렌리야, 그러면 얼터적도 상관없이 권 · 때문에
 그처럼 슬픔을 하대?』

나는 근근히 그가 불행한 정국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보고 싶어서
 그렇니다.』

『어떤 일을 말인가?』

무엇이든 알려도 좋습니다. 어쩌면 전처럼 무슨 얼터적가 원이될
 겁니다. 나는 벌써 리도케이 · 이타노이적적지 얼터적을 부탁하리

있다 왔습니다. 당신을 노엽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까요. 아스카피·이타노키지. 나는 별자리가 마멸되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잡혀 볼 겁니다. 나를 덮쳐주신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카라이란 술다보엔 서로 못마땅할 때도 있지만 모두 저사관 말이 아닌가요? 그런건 마두래도 상관없게. 노는대로 살아 자체.』

『그렇지만 타니에도. 당신은 아마 모든 것을……당신의 바지를 내가 흘려버릴까봐 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게. 자키는 궁할 수가 없잖아. 예전의양 수위자.』

『아닙니다. 나는 이 어술 당신의 직책소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동서러 주십시오. 아스카피·이타노키지』

『그렇지요. 내가 자네에게 그것을 훔다고 했는가? 누가 자네를 훔쳐버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내가 당신 집에서 전서적으로 있는 것은 저의 예 정어란 것이기 때문에 자네와 할 것 같습니다. 아스카피·이타노키지』

그는 좌를 때려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네를 어찌에 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적대로 잘 생각하세요. 본문의 생각해보면 무엇을 하겠는가. 저대로 가겠다는거야?』

『아닙니다. 이런 실례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전에 두자야겠습니다. 본잡지 마십시오. 당신도 전과 같지 않으니까요.』

『전과 같지 않으니, 무엇이 어떻다는 건가. 자키는 마치 어린이와 같은, 혼자 있으면, 실체를 감지해.』

『아닙니다. 당신은 왜출한 어떤 트럭크를 잡으시지요? 나는 그것을 보고 올렸습니다. 자네의 나를 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할래 있을 때에 잘 곳한 것이 있다면 동서러 주십시오.』

주인어른,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나가 타린 것입니다.

날 진공일 거였었습니다. 저의 예견 틀아오리라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이튿날도 쉬는척도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바는 늘라고 근심해 싸여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나폴레옹의 날 밤으로 나가 술집에 갈 술주는 오소리 찾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비셔도 그를 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후지 불행할 때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했읍니다(후지 어느 술타리 밑에 술에 취한 채 손이 썩 지음은 무슨 통나무처럼 굳브고 있는 것이야 아닐까) 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강렬한 마음으로 정면 돌파 왔읍니다. 이튿날도 역시 잠으려 나가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무뎠 때문에 그 타보같은 사타이를 마는데로 나가게 했을 따 하고 나 자신을 쳐주하기도 했읍니다. 당시엔 되던 날 서떡복이 문이 딱딱히 열리더니 에밀리야가 들어오고 있었읍니다. 얼굴은 부르죽죽하고 머리차마는 은통 유투설이가 되었으며 몸은 나무조각처럼 예매돈 몸이 길거리에서 잔정 같았읍니다. 그는 의부를 벗고 트렁크에 걸터앉아 나를 들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잠시 날개졌지만 마음은 더 울적해졌읍니다. 주인 어른, 민선 씨가 그쪽 잔은 저지가 되었던면 개처럼 죽이 버릴 것이지. 돌아오면 알았을 것일겁니다. 그런데 처덜러하는 돌아올걸 것일겁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정말 가엾어군요. 그래서 나는 그를 위로하고 권해 하기 시작했읍니다.

『에밀리야를 만나, 돌아와서 좀 반갑네, 자네가 좀더 늦게 돌아왔다면 나는 오늘도 진공일 자네를 찾아 술집을 헤쳐졌을걸세. 실상은 어떻게 됐나?』

『먹었읍니다.』

『침말 먹었어? 저기 카레 초 수우드가 조금 남아있네. 먹고저도 들은 것일세. 그리고 여기 커피와 빵도 있네. 먹어 먹지. 이것처럼 작은 소거는 필적세.』

나는 그렇게 먹을 것을 내주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되었어?

가져 사흘동안이나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에 주석 붙었지요. 왜
가 교과서 저역자로 온 것입니다. 그의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나의 마음은 틀어졌읍니다. 나는 뛰어난가리 술이라도 사다주
고 절은 병자이 들었읍니다.

『그것으로 어떤 눈치세. 이쪽은 자네에게 화를 내지 않겠네. 다
시는 술집을 팔지.』

나는 술을 팔자 뵈읍니다.

『에필리아·엘리지치, 체질을 독화하는 약이여. 한 잔 들레. 들
져 알겠어? 콧마 몸에도 좋음일세.』

그는 손을 내밀었읍니다. 그는 저발리 손을 내밀어 힘을 걸쳤자
만 곧 손을 멈추고 잠시동안 가만히 있었읍니다. 그는 힘을 들어
일므로 자제자려다 쓰게에 술을 받아 퍼웠읍니다. 그리고 다시 배
이를 위해 손을 놓았읍니다.

『어떻게 된건가 에필리안누쉬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스다의·이비노바카.』

『다시계 알겠나?』

『네. 술을 마지키 싫으려고 합니다.』

『그걸 아주 절성을 했던 말인가? 그렇게 좋으면 노승만 알 다주
겠다는 말인가?』

그는 말이 없었읍니다. 그는 혀없이 손으로 턱을 크었읍니다.

『왜 그러나 어디 병자라도 앓나. 에엘리야?』

『네. 마음이, 슬퍼져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를 부추라져 침대에 눕혔읍니다. 그는 정말 병이 난것 같
았읍니다. 온몸이 불덩어리 같고 무릎무릎 떨고 있었읍니다. 나는
진중일 그의 절에 앉아 있었지만 병이 되어 저후 회복되었읍니다.
나는 그를 위해 즈바스에 머리카락 양파와 캄부스르기를 넣어 죽을
끓여 주었읍니다.

『빨죽이 나 들쳐봐요. 마다 거북이 들승지야.』

하고 말했읍니다. 그러고 오는 고개를 저었읍니다.

『아닙니다. 소는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나는 화를 내면서 주느라도 노력하자 못견디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읍니다. 나는 음식 결정에 도웠읍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목수를 부르길 갑읍니다. 근처의 고스트 프라프르라는 의사가 살고 있었요. 그는 내가 보초야경적력히 있을 때 알게 되었으며, 병을 치료해준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와서 진찰을 했읍니다.

『아니, 아직 여간했읍니다. 임부리 나를 부르리 을 필요로 않는 절요. 거문상 자루작어라고 먹이지쇼.』

그러나 나는 자루작 같은 것은 먹이고 싶지 않았읍니다. 의사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게 베풀읍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읍니다. 그의 눈은 한없는 슬픔에 잠긴채 나의게서 눈을 떼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그절때 내 세친과 마주치자 그는 큰 눈을 내리놓았읍니다.

『아스다리·이타노체지』

『오 그러나, 어떤의야 누워자우』

『만일 내 의부를 팔주리 고물상이 자작가면 몇 분이냐 관음자요. 아스다리·이타노체지』

『글세, 같은 말 수 없지만 어찌면 3루우볼쯤은 갖자야』

그러나 막상 그럴 물건은 자작가드 한 분도 주지 않을겁니다. 그분 아너라 그런것을 듣고 나옴다고 실컷 조롱이나 당할 것일테다. 나는 어력칙은 차니의 경직한 마음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될자 하여 그렇게 말것을 씀읍니다.

『아스다리·이타노체지, 그렇지만 다카라면 3루우볼은 내구 화장 아요』

『글세 모르겠데, 그렇지만 이것을 자작 간다면 처음부터 3루우볼은 요구리야 하네.』

비밀의야는 감시 말이 없더니 다지곤 나를 불렀읍니다.

『아스다리·이타노체지』

『오 그러나』

『제가 숙여진 누워계 외투를 잡아주세요. 그것을 입실해도 괜찮
하져 마세요. 이대로 들어 주세요. 그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지
자 드송이 될지예요.』

주인처럼, 나는 이 말을 듣자 슬픔이 복판과 몰라 아무말도 할
수 없는 심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의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금 말없이 한 시간의 지냈습니다. 나는 또다시 그의 민
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끌어지려 하려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마주쳐자 다시금 눈을 열었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시려나?』

『네,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그의저 물을 마시지 해 주었습니다. 그는 끝까지고 눈을 마
셨습니다.

『정말 포말습니다.』

『그럼의 무엇이라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는……』

『두었인가?』

『저……』

『뒤로 말인가?』

『마지막입니다……바로 그……그것은 너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거지, 자넨 정말 불행한 인간이었어. 저
말 다음 릴러 저 세상으로 가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의 막고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나는 외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스타의 - 이라노의,』

에엘리아는 아직도 매지 할 말이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어나려고 몸서 여를 쓰면서 입술을 포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
는 갑자기 얼굴의 붉어지더니 나를 향해 바라보았습니다.……그러
자 다시 얼굴이 창백해지고 양의 속 늘어지더니 몸을 뒤로 젖히고
숨을 질러 내 쉰 다음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 보냈습니다.

□--본질 후기--□

○--광마가 유난히 열의 전로는자 썼다. 수은주는 열의 33도를 오르 내린다.

열은 왼쪽에 있는데도 마른바 하루에 열 두 번씩 타다를 비렁기도 타고 기차도 탄다. 이도 계도 볼 되자 이젠 말으학을 서너를 예라도 팔을 달고고 머리를 미저모고 싣다.

○--강원. 이단은 강적의 8·15가 있는 날이다. 8·15에만 27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새마을운동 등 근계회운동을 벌이며, 종적 참보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8·15에만 27주년을 맞아 우리의 시로운 열의를 다정하러 새 지에까지 그날의 감고슴을 보며주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셋죽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한 형숙남의 「통일과범과 우리의 자식」은 그열 의지적설 열두를 권하고 싣다.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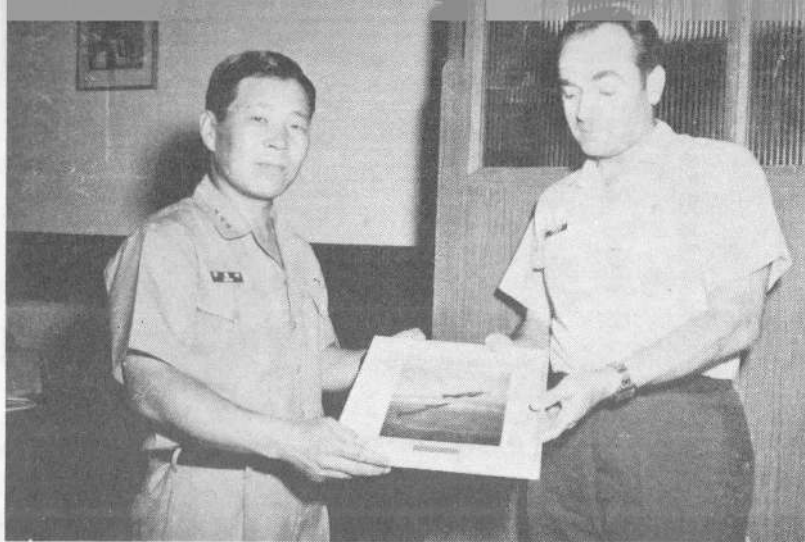
○--공공의 전결의 나쁜을 세로 늘려 벌었다.

·본질하는 사람이 말라계면 폭도 달라지가 한다는 것이 망원한 지문이나 어지럼 특수한 예전의 능여 있는 감적의 전결은 그 다음 예로의 교범을 안고 있거나 마련이다.

·몸의 있는 예로결과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풀다 음려 우는 책, 기다려지는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은 합적한 전결자의 열당서다.

○--이런 호의 전결자는 보체 전의를 못하었는데도 전결후기를 쓰라는 비스들의 덕적스릴 요구로 신하의 편을 잡았다. 보금은 미안한 열이다. 그러나 어떤 열결에 있는, 전결자의 의도가 적적되어 있져 않은 의의 후기를 쓴다는 것도 비강스를 뜻할 호스음처럼 본과 모르게 작음을 책사서적 수는 불해적수의 하나가 된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타성이 있게 마련이다. 좀더 보본성을 의고 단 전적 자기와 자기의 수위를 권조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절 등확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적본성이 있는가? 나의 적적후 정환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나는 학생에 의하여, 후음에 심해어 그 내로 사물의 단단을 확고 있지 않는가? 등등에 걸쳐 한 편서 불성려 불 필요가 있다. 보름을 받은 전결자로서 어리할 반성으로 책을 꾸리는 일대, 나서고 싣다. <전>



신임 314단 군종감 주 영복 참모차장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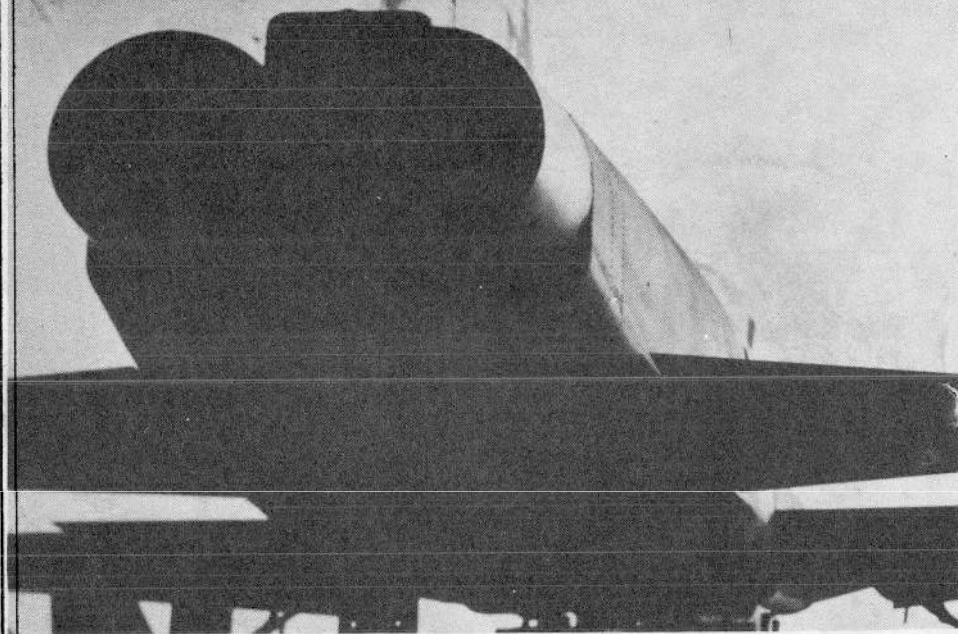
신임 314단 군종감이 인사차 공군본부로 주 영복 참모차장을 예방하였다.

공군본부 교회 기공식

6월 31일 공군본부에서는 옥 만호 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참모와 장병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공군본부 교회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 정 예 공 군 되자 —